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81 1982년3월26일(금) 27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Friday &Saturday, March 26 & 27, 1982

MAR 22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여권신청 부쩍늘어

위니펙서만 159건

토론토총영사관은 금년 1월의 여권법개정이후 위니펙에서 영사순회업무등을 통해 16일 현재 311건의신 여권을 재발급했다.

지난 13. 14일 위니펙교민을 위한 영사 출장업무를 한 여권담당 박종선 부영사는 "봉제업 종사자를 비롯한 위니펙교민여권153 매를 발급했다"고 16일 말했다.

영사관은 3월들어 하루 10여건 여권재발급, 지금까지 거주 259. 동거 6. 취업 4. 유학 3. 기타6 건등 총 295건을 처리했다.

박부영사는 방문자라도 결혼, 취업등으로 인한 여권목적변경이 가능하다며 관계서류를 부첨, 빠른시일내에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교민중 미처 신청치 못한 사람은 한인회를 통해 우송하면 일괄처리한다 고 박부영사는 밝혔다.

韓國政府에 압력

美·日本·프랑스서 정치범 寬容위해

뉴욕타임스報道

〈뉴욕지사〉 한국정부는 정치범들에게 좀더 관대한 자세를 취하도록 미국, 일본, 프랑스로 부터 꾸준한 압력을 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5일 외교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이날 타임스는 워커주한 미대사가 지난주 한국의 교회지도자들에게 레건행정부는 한국의 정치범들을 구제하기위하 조용한 외교를 벌이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말했다고 보고했다

이기사는 또 일본의 좌익들은 의회가 대한 차관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이때 김대중문제를 거론할 준비를 하고있고 프랑스정부도 김대중의 석방이나 또는 그의 20년형이 더감형되지 않는한 전대통령의 프랑스방문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됐다.

韓·中共 交易증대

WP紙보도 몇년간 4倍로…4億弗 규모

한국은 TV·섬유제품, 中共은 石炭등輸出

한국과 중공간의 교역량이 지난몇년동안 계속 조용하게 증대되어 경제적 측면에서 뿐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의의를 갖게 되었다고 14일자 워싱턴·포스트지가 보도했다.

한·중공간의 교역량은 1억달러에서 4억달러로 증대되었으며 중공은 석탄, 참깨, 고추등을 한국에 수출하고 한국은 TV와 섬유제품등의 소모품을 수출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공문제 전문가들은 모택동사망이후 중공당국은 현실에 맞는 실리적경제 정치시책 추구하고 있으므로 소련의 팽창세력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한국과 교역을 늘리고 한국이 강한 경제및 군사력을 유지할 것을 오히려 바라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공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및 일본의 영향력을 더이상 반대하지 않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한국과 중공간의 외교관계 수립은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생각하고 있다.

이와같은 중공의 정책변화는 북한을 당황케하고 있다.

중공이. 현실적실리추구의 정책으로 노선을 변경한데 비해 북한은 아직도 스타린식 김일성우상화를 표방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북경과 평양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한편 WP지는 한국·중공간의 관계개선의 실례로 80년에 미국에 유학중이던 중공관리가 한국을 방문, 산업시설을 시찰한 사실과 오는 11월에 북경에서 개최될 에너지및 환경문제 회의에 한국대표단을 초대했음을 지적했다.

컴퓨터수출호조

한국, 4배 뛰어

(서울16일＝연합)단말장치(Terminal)와 모니터 같은 한국산 컴퓨터 생산품 수출이 금년들어 급격한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16일 이곳 산업소식통이 보도했다.

작년에 천만달러의 컴퓨터를 수출한 삼성전사회사는 금년초들어 미국과 3500만달러의 컴퓨터 장비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소식통은 다른컴퓨터 제조회사들의 수출고도400%까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급격한 수출증가의 주요원인은 품질향상과 저렴한 가격때문이라고 옵저버들은 분석했다.

◆핵잠수함 진수식－미국의 최신속공핵잠수함인 USS앨바투키호가 조선소종업원들이 손을 흔드는 가운데 진수식을 갖고 있다. 이 잠수함은 13일 일렉트릭·보트·디비전·제너럴·다이나믹스회사의 조선소에서 진수되었다.

미화환율 올라

$ 1 ＝715원

(서울17일＝연합)한국은행은 17일 대미환율을 달러당 715원으로 고시했다 이것은 작년말보다2%(14.50원)인상된 것이다

은행간부는 대미환율이 금년들어 꾸준히 인상된주요원인은 수출증가를 위해 원화의 가치를 실질적 수준으로 인상하려는 정책과 국제금융시장에서 미화의 계속적인 평가절상 때문이라고 말했다

17일 캐나다화의 대미환율은 82 26센트이다.

챔피언 김철호 발데즈와 대전

(서울17일＝연합)세계권투위원회(WBC)수퍼·플라이급 챔피언 김철호 선수가 오는5월30일 멕시코의 라울·발데즈 선수와 15회 방어전을 갖는다.

처음 이 경기는 4월24일로 예정되었으나 도전자발데즈의 요청으로 연기됐었다.

발데즈는 현재 WBC 랭킹1위이다

카메라 강좌 슬라이드 감상

토론토소재 한인사진협회(회장 전경수)는 오는26일(금)하오7시30분 블루어×랜스다운은 삼우스튜디오(주인 장연탁 53 Wade Ave. 렌스다운 서브웨이뒷쪽. 도보로 2분거리)에서 3월 월례회겸 카메라강좌를 연다.

「카메라의 특성」에 관해 전경수 회장과 이기성 총무의 강연이있고, 이어 이번 이태리를 다녀온 이축길 초대회장, 캐나다를 다녀온 김명선씨의 여행담및 슬라이드 감상이 있다.

회원아닌 일반교민도 다수 참관을 바라고 있다. 입장무료.

81년도 개인세 보고 요령

경제생활과 우리

세무상담편 ‖ 김명숙회계사무소제공 ①

세무보고는 캐나다에 6개월이상 거주한자면 1년에 한번씩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대부분의 교민들이 매우 어렵게 생각하고 의례히 전문가들에게 맡기는게 예사이나간단한 개인세무보고인 경우예를 들어 수입이 임금이나 이자수입 정도만 있는분은 보고양식을 잘 읽어 내려가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분은 물론 최소세금 전략을 위해 일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현명하다.

본 시리즈는 2부에 걸쳐, 제1부는 개인 세무보고 요령(1981년도), 제2부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 세금전략(Tax Planning)을 다루고자 한다.

〈개인 세무보고작성 절차〉

첫째, 각 기관에서 보내온 모든 세금·양식을 모은다. 이중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김명숙씨

〈편집자주〉82년부터 본사는 「경제생활과 우리」라는 경제난을 신설했다

전문가들의 기고로 연재되는 본난은 제1편으로 지난16일까지 증권소개인 김상욱씨 제공으로 투자상담편을 보내드렸다

오늘부터는 회계사 김명숙씨 제공으로 세무상담편을 보내드린다 김씨(본명 유명숙)는 74년 이대 경영학과를 수석졸업뒤 76년이민 그동안Tessier Smith & Partner's등 유명 CA(공인회계사)회계사무소에서 일한 경력과 알고마 대학등에서 회계학을 수학했다

지난2월 교민들을 위한 회계사무소를 개업한 김명숙씨는 한인신용조합 김연수 상무의 부인이다

본난에서는 세무에 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의문점이나 건의사항은 본인이나(537－3171)본사편집부로 연락하면 된다

본인이 쉽게 할수있어

양식은 우체국에서

T4 : 고용주에게서 받는 임금명세서

T4A : 연금, 코미션수입및 하청을 받아 얻은 수입등(Sub-Contracting, 이 경우는 여러가지 비용을 감면할 수 있으나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T4A(OAS) : 노인연금

T4U :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Commission에서 받은 수입)

TFAI : 베이비 보너스(Family allowance)

T5 : 은행이자, 주식배당금, Capital gain등

T600 : 채권이자(Bond interest)

이상의 슬립 이외에도의료비 영수증, 교회및 등록된 각종 자선기관에 기부한 영수증, RRSP 영수증, 수업료 영수증등 세무보고에 관계된 모든 서류를 모아서 보고서 첨부할 용지와 각자 기록으로 보관할 용지를 분류해 둔다. 이상의 슬립은 늦어도 3월중순까지는 각 개인에게 발송되므로 혹시 지금까지받지 못하신 분들은 즉시 관계기관에 연락 재발행을요구한다. 재발행이 불가능할 경우나 연락이 안될 경우에는 각자 본인이 그동안 받은 금액을 계산 혹은 측정하여 간단한 설명서와 함께 보고하면 된다.

둘째, 금년에 처음으로 세무보고를 하는 분들을제외 고는 정부에서 보내준 자기 이름, 주소및 SIN가 적힌 양식을 이용하면 되고 혹시 양식이 분실 되었거나 처음으로 세금보고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우체국에서 양식을 얻는다.

두장의 양식 중에서 연습용 (working copy)을 떼어서 먼저 시작한다. 주소나 이름이 바뀐 분들은 반드시 새로운 주소와 이름을 써야 한다. 1 페이지의 상반부는 납세자의 인적상황을 적는 곳이니 그대로 따라서 적으면 될 것이다.

셋째로 할 일은 총수입(Total Income)을 계산하는 일로서 각 기관에서 온 슬립들을 각각 주어진 난에 적으면 된다. 임금수입(T4)이 있는 분들은 총 임금수입(T4의 (C)난에 있는 금액)의 3%(최고 $500까지)를 고용비용(Employment Expense)으로 공제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베이비 보너스는 두 부부중 아이들을 부양가족으로 보고하는 분(과세대상수입(taxable income)이 많은 분)이 보고해야한다.

주식배당금을 받은 분들은 실제의 배당금(T5의(A)난)의 1.5배(T5의 (B)난)가 수입에 가산되고 그 대신 텍스 크레딧(Federal Dividend Tax Credit) 을 받게 되므로 과세대상수입이 아주 높지 않은 이상세금공제 혜택이 많은 셈 이다. 주식배당금은 부부사이에 서로 옮겨서 보고를 할 수 있으나 만일 부인이 주식배당금외에 다른 수입이 작아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텍스 크레딧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수입으로서 보고하는 것이 현명하다.

T5가(은행이자수입등)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스케줄 4를 완성, 첨부하도록 한다.

장학금이나 Bursary(근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50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기타수입(other income)으로 보고하면 된다.

이상과 같이 모든 슬 립과 그외의 수입등을 나열했으면 총수입을 계산하여 2패이지로 넘어간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랙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오늘의 예금금리		2월22일현재	
종 별	기 간	신 용 조 합	일 반 은 행
정 기 예 금	30일	14.5%	12.5～13.5%
		200만불 돌파기념 특 별 봉 사 이 율 봉사기간 : 3월20일까지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 BLOOR ST. W. TORONTO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공 고

재미한국과학기술자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본부회장이신 이용락 박사를 모시고 간담회를 갖고저 하오니 협회회원은물론 교민들께서는(부부동반하시어)많이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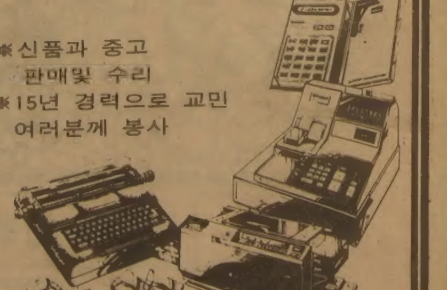
주제 : 한국과학기술계의 전망과 재미과협의 역할
시일 : 1982년3월26일(금)오후7시30분
장소 : CHINA HOUSE(Eglinton & Bathurst)
회비 : 회식비 각자부담
※참석을 희망하시는분은 아래전화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상 : (B)592－2881 (R)881－8349
신복균 : (B)667－3598 (R)494－4906

재미한국과학기술자협회
온타리오지부장 신복균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수리중 차 대여
○ 완전한 차체수리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SKY WAY
●각종 복사기
●각종 타자기－사무용, 가정용, 학생용
●캐쉬 레지스터
●계산기－사무용, 가정용
※신품과 중고 판매및 수리
※15년 경력으로 교민 여러분께 봉사



OLIVETTI, SHARP, 3M
MITACOPYSTAR, IBM, SANYO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김인환
(B)675－1295～6 (R)671－0938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Library
Rm 0349, Robe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날씨로 본 캐나다의 천국은?

뱅쿠버 : 비, 토론토 : 무더위, 에드먼톤 : 혹한

오래전부터 캐네디언 들이 흔히 쓰는 농담이 있다.

"야! 아주 멋있게 태웠구나. 어디서 그렇게 태웠니?"

"뱅쿠버 탄 것이 아니라 녹슨거야."

뱅쿠버사람들은 영구히 비가 오는 숲에서 사는 명성을 얻고 있다. 겨울의캐나다하면 눈을 연상하나뱅쿠버만은 비가 온다. 그것도 상당히 많이….

뱅쿠버주민들이 나들이할 때 필수적으로 갖고 다녀야 하는 것도 우산이다. 토론토의 버스안에서 사람들이 장갑을 가장 많이 잊고 내리는 것처럼 뱅쿠버에서는 우산을 흔히 놓고 내린다.

비가 얼마나 극성과 악명을 떨치고 있나구?

글쎄, 뱅쿠버 베이(Bay) 백화점안에 비옷과 우산등 장산구만을 취급하는 전국적으로 유일무이한 더·레인·숍(The Rain Shop)이라는 큰 가게를 본적이 있나?

죠지·뱅쿠버 선장이 역사상 최초로 뱅쿠버 상륙시 해안북쪽 산들이 비에 촉촉이 젖으며, 음울한 암영을 던질 때 우울한 감상에 사로잡혔다는 에피소우드도 있다.

당신은 뱅쿠버 주민들은 거의 일요일과 수요일사이에 맑은 날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가?

당신은 최근과 같은 전형적인 겨울철에 일간지 〈뱅쿠버·선〉(Vancouver Sun : 아마 캐나다 신문중 가장 부적합한 이름) 1면 열기란 「흐림, 소낙비, 우기, 우기및 소낙비」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아는가?

당신은 토론토가 뱅쿠버보다 강우량이 더 많다는 것을 아는가?

잠깐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거야?

농담인줄 알아?

평년에 토론토는 1,962 밀리미터, 뱅쿠버는 1,538 밀리미터의 강수량을 보인다. 물론 뱅쿠버 강수량의 대부분은 비이고, 토론토는 눈이다.

그러나 뱅쿠버에 있는캐나다 환경국산하 기후자료소의 통계는 캐나다 날씨에 관한 몇몇 신화를 '타파'한다.

첫째로 뱅쿠버의 날씨는 언제나 흐리다는 신화다.

기후자료소장 얼·코아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말한다. 그는 누구나 뱅쿠버 사람들은 햇빛을 구경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류라고 덧붙인다.

"물론 이곳의 겨울은 습하고 흐리다. 그러나 캐나다 다른 지역은 비록 맑은 날을 가져도 영하의 혹한에 시달린다. 이곳은 너무 습해 겨울철 외출이 쉽지 않다. 그러나 다른 곳은너무 추워 밖에 나가기 힘들다. 결국 피장파장 아닌가?"

사실은 캐나다의 주요도시중 뱅쿠버가 가장 비가 많이 오는 곳이 아니다. 세인트·죤스(St. John's) 가 비가 많고, 할리팍스(Halifax)도 뱅쿠버보다는 비가 많이 온다.

일년중 며칠의 햇빛을볼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연중 일사량이 가장 좋은 비교가 될 것이다. 비록 뱅쿠버는 연중 일사량이 다른 곳보다 떨어지나 여름철에는 토론토, 오타와및 몬트리얼보다도 더 많은일광을 즐길 수 있다.

코아타 소장은 "우리는 원할 때 즉 여름철에 햇볕을 가진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뱅쿠버는 여름철에 가장 각광을 받는 도시다.

캐나다에서 기후가 제일 나쁜 도시는 어딘가? 단연 세인트·죤스다. 이곳은일년을 통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비, 더 많은눈, 그리고 적은 일사량을 자랑(?)한다.

그러면 기후가 제일 좋은 곳은? 빅토리아는 가장 온화한 겨울기후를 자랑한다. (뱅쿠버보다 높은 온도) 토론토는 여름에 다른곳에 비해 가장 덥다. 에드몬턴은 겨울철에 일사량이 가장 높으나 가장 추운 곳중의 한곳이기도 하다.

◆빗자루든 군인들—대민봉사활동에 나선 하르빈 주둔 중공군들이 9일 빗자루를 들고 거리청소에 나섰다.

22일부터 「911」번

위급「361-1111」을대신

22일부터 메트로·토론토 지역에서 경찰, 구급차 소방차를 부르려면 전화 911을 돌리면 된다.

토론토시의회는 16일911번이 지금까지의 361-1111을 대체하도록 의결, 이에 필요한 예산 120만 달러를 승인했다. 911번은 돌리기 쉽고 북미 여러곳에서 통용되는 공통성이 있다.

시의회는 앞으로 2년간 140만달러와 매월 4만2천달러를 들여 전화번호—주소연결기를 설치한다. 이것은 구급전화를 건 사람의 주소를 자동으로 알리는장치이다. 구급전화를 건 많은 사람들이 주소를 알리지 않고 전화를 끊는 경향이 있다.

정보센터 설치

24시간 안내

메트로 토론토 전역에걸친 단일 지역사회 정보센터(컴뮤니티·인퍼메이션·센터·오브·메트로·토론토)가 정부보조금 $9,963을받아 설치된다.

밤·주말·공휴일에도 쉬지않고 봉사하는 동센터는 오락, 직업안내, 탁아소 야간수업및 기타 봉사활동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전화번호는 863-0505.

교민동정

◆백용빈(보험인 Sun Life 근무)=지난 11일밤 토론토베타와이즈멘클럽 3월 월례회에서 강연 「이민자의 보험지식」주제로 R.R.S.P., 생명보험 가옥(가구)보험, 자동차보험등 보험일반에 걸쳐 해설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한국고교수준과 비슷"

수학경시대회 시상식

토론토지구 한인대학생회(회장 : 천명기)주최 제5회 수학경시대회 시상식이 지난3월12일 하오7시 동대학 라이브러리·사이언스빌딩에서 수상자, 가족등 60여명이 모인가운데 거행됐다

대학생회 조성호 총무의 사회로 진행 시험준비위원 김중수씨의 시험강평이 있은후 시상에 들어갔다

주니어부는 재미과학자협회 온타리오지부 김종상 부회장이 시니어부는 한인장학재단 이사장 구상회박사가 시상했다 장학재단과 과학자협회는 각각 부상과 상패를 기증 본대회를 후원했다

◇장녹준군

서울고등학교 2년을 다니다 작년온 시니어부1등장녹준(18 이스트욕 고교 12학년)군은 이번시험이 한국 고등학교 실력고사의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장군의대학에서의 전공희망은 법학. 그는 물리학에도 많은 관심이 있다.

주니어부 1등 박순상(14 옷번고교 10년)군은 박문현씨(45·벡커스토어 수퍼바이저)의 장남으로 희망은 수학및 공학박사가 되는것.

박군은 67년 이민왔다.

이번 시험문제를 출제했던 임정혁군은"주로 수학의 기본개념 이해와 논리적 추론을 요하는 문제를 냈다 캐나다 대학에서 실시하는 수학경시대회의 수준도 이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임군은 80년제3회 대회에서 75.5점으로 시니어부에서 1등, 발군의 실력을 보였다.

이날 시상이 끝나고 영화「시집가는날」이 상영 됐다

〈학생문예 : 수상〉

이심전심 (以心傳心)

정 상 진
(워터루대학생)

불교의 선문(禪門)에 있어서는 심오한 뜻은 글씨나 언설로서는 표현이 불가능하기에 마음으로 깨닫아서 마음과 마음으로서면수(面受)하여 전하는 것을 곧 이심전심이라고 한다.

靈鷲拈花 示上機하니
肯同浮木 接盲龜리오.
飮光不是 微微笑하니
無限淸風 付與誰리오.
〈飮光은 가섭 의 이름〉

석가모니(붓타)가 마갈타국 왕사성 영취산에서높은 법좌에 앉아 묘법연화경(妙法蓮花経)을 설할 때 돌연히 아무말 없이 대중을 향하여 한손에 든 꽃을 번쩍 들어 보았다.

이것은 붓타가 가르쳐온 그의 제자들이 체달한 법의 정도를 시험해 보기 위함이었다.

이때 모든 대중은 여롱약맹(如聾若盲)하여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으나 유일하게 가섭존자만이 빙그레 파안미소(破顔微笑) 를 지었기에 이를 본 붓타도 "나의 정법안장(正法眼蔵)인 열반묘심(妙心) 과 실상무상(実相無相)인 미묘법문(微妙法門)을 오직 가섭에게 부촉(付촉)하 노라."하고 선언했다고 한다.

이를 후세사람들은 영산회상(靈山会上)의 거염화라고 일컬으며, 「전등록(伝燈錄)」에는 〔佛滅後附法於迦葉 以心伝心〕이라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근대에와서는 약간 다른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말은 않지만 형편을 보아서 눈치로 알아채게되는 일종의 암중통신(暗中通信)으로 해석되고 있는듯 하다.

이심전심은 묵묵히 소리없이 전파되는 경우이니만큼 조금도 외부에 나타남이 없지만 상당히 빠른속도로 전파되는 특징이 있다.

이심전심이 주효 하려면 그 이전에 많은 지식이나 상황이 대중의 가슴속에괴어있어야 한다. 그것은 반가운 일이나 슬픈일을 당할때 평소에 민중의 가슴속에 잠재해 있던것이 마치 홍수가 일어 막아놓은 강둑이 터지는것처럼 일제히 맥락을 갖게 되는수가 있다.

우리의 역사를 고찰하여 보건대, 임오군란이나 동학란을 비롯하여 4.19 이외에도 대다수의 사건들이이심전심의 작용이었다는 것을 볼수있고, 또한 그 혹심한 팟쇼의 감시하에 직접적인 의사표시는 물론, 입을 봉쇄당한채 상대를 의심하는 처지였던지라, 뒤에서 비판조차도 할수없었던 때에도 이란 대학생들은다만 눈치하나로 이심전심하여 혁명에 성공했으며, 「샤우」(팔레비)를 몰아낼수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은아니었다. 일본의 문호 다니자끼 준이찌로는「문장독본」이라는 저서에서 이심전심은 일본인들이 만든 말이라고 쓰고있으나 이것은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사실에 가까우리만큼 이심전심은 일본사람들의 몸 안팎에 배어있는것 같다.

언젠가 「타임」잡지에실린 일본의 기업체들의 시스템이나 경영현황에 관한 기사를 읽은적이 있다. 일본의 모든 회사들은 경영인과 직원모두가 화합이 잘 되어서 마치 하나의 화목한 가정과도 같은 가족적 분위기 속에서 돌아가고있으며,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라고 했다. 느껴어 지는것은 일본인들이란 개인적으로는 결코우리보다 나을것이 없다. 그러나 일단 집단이 되어 서어떤 어려운일을 처리해나갈때는 장황한 설명이 없어도 이심전심으로 서로단합하여 어딘가 우리보다강한점이 보인다.

일본사람에게 이심전심이 특별히 뿌리박은 이유는 생각컨대 그들이 전국시대(15세기경)를 약30여년 동안이나 겪은결과라고 하겠다. 전국에 1백이 넘는 성(城)이 산재해 있었고, 이 성들을 근거로 군웅(群雄)이 날뛰는통에 양민들은 하루도 편안히 잠잘날이 없었다. 전란통에서 농사지어야하는 서민들은"난리다!"하면 모든것을 이심전심으로 처리할 도리밖에 없었다.

집단 말고도 개인과 개인사이에 이심전심이 작용한다. 언젠가 나는 「맞선」이라는것을 본적이 있다. 상대는 비교적 논리가 정연하고 지성미와 미모를갖춘 여인이라 생각되었다. 우리는 꽤나 많은말을 주고받았으나 가슴 깊숙한곳에서 우러나오는 테레파시적 전율을 전혀 느낄수 없었던것은 아마도 이심전심이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인듯하다. 통신수단이 무척 발달된 사회에 살고있는현대인들은 말을 잘한다. 그리고 비교적 말수가 많은 편이다. 때로는 좁쌀 만한 지식을 커다란 호박덩이만큼이나 되는양 부풀리어자신의 해박을 부르짖기도하지만 그것은 오로지 입과 입의 연결일뿐 마음과 마음으로 통할수있는 심적인 대화를 나누기란 결코쉬운 일이 아니다.

날로 복잡해지는 인구와더불어 못난이들이 많이 득실거리는 요즈음 세상에지(智)와덕(德)을 보존하고 의리와 인정이 듬뿍담긴멋을 잃지않고, 마음의 대화를 나눌수있는 그릇이 큰 벗을 만나기란 실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인간사회일수록 그것은 더욱귀하고 소중한것이 아닐까.

한 가정의 가풍에 다소나마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좋은일이 아닌가 막연히 생각해본다.

인생이란 일종의 드라마다. 수준높은 드라마는 말수가 많은것보다 이심전심으로 처리하는것이 있어야한다. 그러나 요즘의 드라마는 이심전심으로 처리하는 장면이 극히 드물어 고급한 예술을 빚어내지 못하는 혐의가 짙다. 작자의 역량일까? 아니면 대중의 소양일까?

〈장편연재소설〉

영원의 방랑객 ⑲

고마태오(종옥 : 토론토한인천주교신부)

보좌신부의 첫 시련

"내가 이미 말했지 않았는가? 자넨 내 친구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친구야. 자네하고 이렇게 술한잔하며 대화하고 있으니 고향에 돌아가 옛 전우들과 어울리고있는 기분일세. 신학교에 들어간 이후 오늘까지 지난 9년간 단 한번도 가져보지못한 훈훈한 인간적인 기분을 지금나는 강력하게 느끼고있네."

"한번만 다시묻겠는데, 난 너의말을 믿을수 있을까?"

"믿어, 앞으로 어떠한일이 있더라도 나는 나에대한 자네의 신뢰심을 실망시키지 않겠네."

나는그에게 악수를 청하며 정중하게 말했다.

"감사해 태오신부. 나같은 인간을 다 친구로 대해주니 말이야…."

그때 그는 두손으로 내 오른손을잡고 내 손등에키스했다. 그리고 그의 두눈에는 물기가 가득차 빛나고 있었다.

""부리노, 자기자신을 필요이상으로 무시하거나 학대하지말게. 왜 자네가 어째서 내친구가 될수없단말인가?"

나는 다정하게 말했다.

"그래 감사해, 태오신부. 신부들이 다니같으면 왜내가 성당엘 안가겠는가말이야. 자기를 이해해주고 존경해주는 사람을 싫어할사람이 세상에 어디있겠나? 그런데 내가 철들어만난신부들치고 날 이해해주고도와준 놈이라곤 한놈도 없었다네. 그들은 한결같이 내가 하고자 하는일을 방해만 했었지…."

그는 불쾌했던 과거의어느 한 사건을 회상 하는듯 분노로 흥분된 표정으로말했다. 그러나 내가 예상한 것보다는 쉽게 내가원하는 내용의 화제를 그가 꺼내어 나는 내심 반가왔다. 그에게는 신부들을 철저하게 미워하던 그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때나는 인간간에는 이해하는 마음인 신뢰심만이진정한 대화의 교량역할을할수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이번에는 내가 그의손을 잡으며 입을열었다.

"부리노. 자네의 마음 을 상해준 신부들이 있었다니 같은 신부로서 자네에게사과하는 바일세. 그런데 신부들로부터 상처를 받게된 거기에는 그어떤 이유가있을테데 그게뭔가?"

"지금 생각해도 분하기 짝이없는 일이지만 세월이 오래흐르고보니 이젠 감정이 많이식었어. 그때만해도 나는그 신부놈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었다니까…."

"무슨일인데 그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었나? 그 정도로 그들이 자네에게 해를 끼쳤단 말인가?"

"사랑의 문제였어! 그내용을 다 말하자면 오늘밤을 새워도 끝이 안나겠지만…간단히 말하자면 이러했지."

그는 말을 중단하고 담배을 붙을붙여 피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후 말을 계속했다.

"내가 18세되던해,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반이었어. 그해에 난 처음으로 한 여자를 사랑했었다네. 같은 본당출신의 동창생이었어. 그녀도 날 무척 사랑했었지. 우리둘이는 같이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나는공대에 입학했고, 그녀는 불문과에 진학했었다네. 물론 대학을 졸업하면 결혼할것을 약속했었지. 그런데 대학2년을 마칠무렵 내 애인이 갑자기 수녀원에 입회하겠다는거야. 열심한 가톨릭 신자라면 사춘기시절신부나 수녀가 되기를 한번쯤 생각안해본 사람이 어디있겠는가 말이야. 나같은 놈도 한때는 신학교를 생각하고 있었다니까."

그때 그는 말을 중단하고 신경질적으로 담배를재떨이에 비벼끄고 있었다.

나는 그의 그러한 태도를 바라보며 그가 말하고자하는 내용의 심각성을 짐작할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화장실에 갔다 오더니 말을 계속했다.

"내애인이 수녀원에 들어가고싶어하는 마음을 이해 못하는바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열심한 신앙을가진 젊은 여자들한테 일시적으로 있을수있는 순결과 봉사에대한 순수한 감정일뿐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네. 그러나 그게 아니었었어. 날이갈수록 그녀는 수녀원에만 들어가겠다 는거야."

(계속)

한국관
연중 무휴
3불50
냉면·짜장면 ⋮ 곰탕· 짬뽕
각종연회, 동창회, 결혼피로연,
환갑잔치등 각종모임, 단체손님 대환영

점심특별 스페샬
기간 : 1982년4월15일까지
월~금 오후2시까지
한국서 일류요리사 한국관에 오다.
★일식전문요리사 : 김우현
★한식및궁중요리사 : 김옥자
•영업시간• 오전11시~새벽1시
대표 : 나 옥 녀
628 BLOOR ST. W. ☎ : 536-0290, 531-0277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실업인협회
20 MOBILE DR.
TOR. ONT.
M4A 1H9
☎ 752—7771

씰테스트 밀크와 협상완료

3월10일(수) 오후 협회 사무실에서는 협회 고위관계자들과 씰테스트 밀크회사의 지역담당 세일즈매니저 부라이언·학커디 와의 사이에 협약이 성립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타 밀크회사들과의 경쟁 때문에 지상에 공표할 수 없으나 협회사무실로 문의하면 개별적으로 알려줄 것이라고 한다. 이 협상은 끈질기게 오래 걸렸는데, 그 까닭은 유리한 딜을 얻어 내려는 협회측의 노력이 집요했던 것과 밀크회사측에서는 더 많은 K.B.A.회원의 어카운트를 확보하려는 신중한 자세 때문이었다.

새로운 딜의 발효는 새로운 어카운트의 총판매량이 $50,000/Period이상이 되는 시기로 결정되었으며, 집행부는 이 기간이 약 한 달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번 실버우드 밀크의 로즌 데어리와 씰테스트의 딜 협상 완료를 계기로 현재 여타 밀크를 취급하시는 협회원들은 가급적이면 가장 전통있는 두 밀크회사인 실버우드의 로즌 데어리 또는 씰테스트회사와 거래하여 행동을 통일해주기를 재삼 촉구한다고했다.

현재 여타 밀크회사들이 세일즈맨들을 동원하여 고객확보에 혈안이 되어 온갖 감언이설로 유혹하고있음을 보게 된다. 차제에 장래를 내다 보고 협회산하에 뭉쳐주기를 관계자들은 간곡히 요망하고 있다.

슈나이더에서 다이어트 고기생산

키치너 소재 J.M. Schneider회사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시장요구에 따라 보통 점심용 고기보다 50% 정도밖에는 지방분과 칼로리가 함유되어 있지않은위너, 볼로니아, 먹치킨, 런천미트등을 시장에 선보이게 되었다.

현재 북미인들의 식성이 변하고 있어 점점 다이어트 음식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고, 이의 시장점유율이 6.6%에 지나지 않으나 1985년도에는 약 15~20%의 점유율을 예상하고 있다. 맛의 변화없이 칼로리와지방분이 낮은 런천미트생산은 업계의 오랜 숙제였던 바 2년의 연구끝에 이번에 시장에 나오게 되었는데, 보통 고기류보다 파운드당 10~20센트가 더 비싸게책정되리라고 한다.

회원증 발급

협회에서는 Skyway Business Machines 김인환씨의 무료봉사로 회원증을발급하게 될 것이다. 이는앞으로 협회에서 Wholesaler등과의 deal을 했을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제시하는데에도 필요하게 될 것이므로 시민권 같이 플라스틱으로 카바하여 휴대에 편리하게 제작될 것이다.

5대회장 이형인씨 표창차 서울에

오는 3월20일 한국 서울의 국립극장에서 개최되는 제9회 "상공의 날"기념식에서 전회장 이형인씨가장관표창을 받기 위하여 16일(화) C.P. Air편으로 서울로 향해 떠났다.

이는 이형인씨가 실협회장으로 재임중에 여러가지로 수고한 공로를 인정하여 토론토 총영사관에서표창상신을 하여 이번에 수상하게 된 것이다.

협회는 이미 사업계획중에 모국 "상공인의 날"을 기하여 방문단을 구성하여 파견하려고 했으나, 너무도 시기가 촉박하여 불가능하므로 내년도로 미루기로하였다.

집행부 동향

3/15 : Astro Yogurt와 K.B.A. 회원들에 대한 Special Discount를 위한 협상.
3/15 : Johnson Nut와 1년간 재취어 소매가격의 30% off한 원가에서 K.B.A. 회원에게는 extra 10%를 다시 할인.
3/16 : Rosen Dairy(Gordon McGrail)와 Apple Juice의 Special Promotion을 위한 회담.
3/15 : 집행부 모임
○여론조사 질문서 집계
집행부 김종수총무, 정성우편집실장, 여론석기회실장 등 집행부 요원들은 지난15일로 집계 마감한 여론조사의 통계및 분석을 위해 수고중.
○회원상적 주소록 발간작업및 신회 배구팀 출전을 위한 준비작업.
○4월16일(금) 회원상대 교육세미나를 위한 준비
강사 : 최승라 외환은행장
How to build up the line of credit
강찬일 변호사
Store leasing시에 유의할 사항.
공인회계사(미정)
Store Owner의Income Tax Deduction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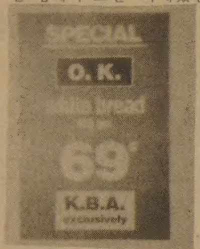
16oz O.K.Bread(69₵)새로출연

Cost 16oz 56₵ 24oz 65₵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판격매를 목적으로 협회에서추진해오던 16OZ O.K빵이 드디어 내주부터 회원스토어에 선을 보이게 되었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단장한 이 빵은 로프당 69센트에 판매될 것이며 대금 결제도 rebate방식이 아니고 Net pricing으로 구매당시 일정금액을 삭감하여 지불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특히 이 빵의 P.R.을위하여 사진과 같은 선전 Sign을 제작하여 직접 스토아에 배부되오니 이 Sign을 반드시 잘 보이는 장소에 부쳐주기 바라고 있다. 이 Sign의 게시는 필수요건으로 되어 있음을 유의하시고 회원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고 한다.



◆포즈가 닮았네—캘리포녀의 소노마주립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하는 캐슬린 존슨양이 16일 점심시간에 강의실 앞 조각품 옆에 앉아 점심식사를 하고있다.(AP)

문헨五輪수영부문 金메달 리스트
스탬, 料理士로 變身
留學中 사우디王조카 음식시중들어

(라호야, 캘리포녀-AP) 10년전인 1972년 문헨올림픽 수영부문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했던 왕년의 수영스타 마이크 스탬이 요리사로 전락, 사우디 아라비아 왕족의 음식시중을 들고있다.

스탬은 일주일에 5번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30분까지 라호야에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 칼레드왕의 조카인 파하드 압둘라지즈공 저택에 출근, 그를 위해 주식및 간식을 준비한다.

또한 낮시간에는 근처 식당에서 파트타임지배인으로 근무하고있다.

압둘라지즈공은 샌디에고의 사립대학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인터내셔널대학에 유학중인데, 그의 집에는 하인들만 21명이 있다고.

회원주소록 입찰공고

온타리오 인인 실업인협회 회원주소록 제작에 관한 입찰을 아래와같이 공고함

일시 : 1982년4월9일(금)오후6시
장소 : 당협회 사무실(20 Mobile Dr Toronto)
규격 : 한인장로교회 교인주소록과 동일한 사이즈와 제본 (150 페이지)
부수 : 1 000부
연락처 : 협회사무실 752—7771
기타 : 최저의 가격으로 입찰하여주신 주소록 낙찰자 에게는 당협회의 일년간 인쇄물을 전담하는 혜택을드림

1982년 3월19일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移民과여행자를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I'M WORKING ON IT.

필자의 시카고 사무실에 전화 고장이 생겼을때의 일이다.

신고를 받고 달려온 전화국 직원이 수리를 하는데 30분이 지났는데도 전화가 불통이다. 「다 되어 갑니까?」 Almost finished?라고 물어 보았더니 I'm working on it. 라고 대답했다. I'm working on it. 란 무슨일을 「진행중이다, 추진중이다」라는 말로써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다.

「직업을 구했나요?」 Did you find a job? 「구하는 중입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No, but I'm working on it. 하면 될것이고 「미국영어회화를 배우셨어요?」 Did you learn to speak American English? 라는 질문에 I'm working on it. 「목하 배우는중입니다」하면 된다.

A : Did you finish your chemistry assignment?
B : I'm working on it.
A : Class starts in twenty minutes.
B : I know.
A : Do you think you can finish it?
B : I can finish if you quit bothering me.
A : 화학 숙제를 끝마쳤니?
B : 하는 중이야
A : 수업은 20분후에 시작이야
B : 알고 있지
A : 그걸 끝낼수 있겠니?
B : 네가 방해를 하지 않는다면 끝낼수 있지
※quit bothering=leave me alone (귀찮게 굴지말라)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실성의젓,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멀티메디아 포켓북
(MULTIMEDIA DISTRIBUTORS)
127 TELSON ROAD MARKHAM
ONTARIO, L3R 1E7
TEL. (416)495—9499

실협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K.B.A.)와 협약을 맺고 포켓북을 공급 써비스하게 되었읍니다. 아래와 같은 계약 내용을 따라 성심껏 봉사하겠읍니다. 자세한것은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세일즈 맨을 보내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협 약 내 용
Net Billing(Total Invoic billing)
매 3개월 분기별
$0.00—$800. 리베이트 없음
$800.00—$1 500. 2.5% 리베이트
$1,500~$2,000 5% 리베이트
$2,000이상 7% 리베이트
Rebate는 매 분기말 15일이후 지급함
1982년2월19일 8
사장 Joe C. Dwek

SKYWAY BUSINESS MACHINES
Special30%Off for K.B.A. Members
Paper roll Each Cach=100Roll

Size	Reg Price	
27㎜×79.5㎜	$72.60	$50.82
37.5㎜×79.5㎜	$81.40	$56.98
40㎜×76㎜	$83.10	$58.98

NCR Style(수동식)

53㎜×12㎜	$107.80	$154.00
33.5㎜×50.5㎜	$35.42	$50.60

■캐쉬 레지스터 ■복사기 ■계산기■각종 타자기
SHARP. 3M. MITA COPYSTAR. IBM.
SALES - LEASING Repairs & Services
215 Carlingview Drive, Unit 109, Rexdale.
(B)675-1295~6 (R)671-0938 김인환

L. L. B.
Video Amusement LTD.
리베이트 $100불!
Rebate $100 협회원들에게

본사는 최근 붐을 이루고 있는 비디오 게임 머쉰 공급회사로서. 가장 이윤이높고. 인기가 있는 각종 게임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봉사해 드리겠읍니다.
아울러 실업인 협회를 통하여 저희들 머쉰을 3, 4월중에 설치하시는 회원 여러분께는 첫 달에 한하여 $100불의 리베이트를 드리겠읍니다.

※카버지역 : Metro Toronto 전ONTARIO지역
※신청연락처 : 실업인협회 ☎752—7771

한인실업인 협회지정
GLOBE
PEST CONTROL
"WE KILL BUGS"
Residential.Comm.Industrial
MONTH FLAT : $8
NO INITIAL CHARGE
※다른조건의 비용청구는 없음
전화주시면 즉시 달려가겠읍니다
WE'RE SMALL BUT WE'RE GOOD
ASK ABOUT OUR WRITTEN QUARANTEE
GOV'T LICENSED 491-1585 FREE ESTIMATES
789-2527

"쌀疑惑" 풀릴때까지 철저調査

國會, 糾明9人委구성

外國商人 진술 듣기로

野 "國政調査 준한 活動" 요구

국회는 15일 하오 經科委를 열고 「外米도입 眞相규명 9人 小위원회」를 여·야공동 발의로 구성했다.

9人小委(위원장 申相式의원·民正)는 民正5, 民韓2, 국민1, 新政1명으로 구성됐는데 小委는 국민들의 의혹이 풀릴때까지 조사활동을 통해 眞相을 철저히 규명키로 했다.

이날 經科委는 9人小委를 여·야 공동발의, 만장일치로 채택한뒤 곧바로 제1차 9人小委를 소집, 위원장에 申相式의원(民正)을 선출하고 활동방법과 범위및 활동기간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19일 제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를 마친뒤 9人小委위원장으로 선출된 申相式의원은 『활동 기간은 국민이 납득할수있을때 까지 계속하고 국민의 의혹이 풀릴때까지 眞相을 철저히 규명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필요하다면 법이 허용하고 외교상의 문제를 야기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외국의 쌀 상인들의 진술을 직접들을수 있는 기회까지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9人小委구성에 앞서 야당측은 小委명칭에 「조사特委」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조사방법에서도 국정조사권이나 이에 준하는 권한을 갖도록하며 활동기간은 관계자의 문책까지 할수 있는 충분한 기간으로 할것을 주장 했었다.

이에 대해 民正黨측은 국정조사권을 부여할수는 없으나 활동기간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적 측면이나 국가이익의 방어라는 차원에서 유연성을 가질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小委구성에 있어서도 民正黨측이 9명(與5 野4)을 제시한데 반해 야당측은 8명(與4 野4)으로 맞섰으나 9人小委는 이날 小委연락간사로 金裕祥의원(民正)과 李炯培의원(民韓)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구성된 9人小委는 다음과 같다.

申相式(위원장) 李孝益 金裕祥 崔相業 裵成東(이상民正) 李炯培 洪思德(이상民韓) 金鍾河(국민) 趙舜衡(新政).

李元淳옹 勳章수여 全대통령, 조치致賀

全斗煥 대통령은 15일낮 청와대에서 최근 소장文化財를 국가에 헌납한 李元淳옹(89)에게 寶冠文化勳章을 주고 오찬을 베풀며 치하했다.(사진)

이자리에는 李光杓문공, 金容休총무처장관, 崔淳雨국립박물관장이 배석했다.

李옹은 지난2월4일 40점의 소장문화재(미국에서 수집20, 국내수집20점)를 국가에 헌납했었다.

"쌀賂物說 아비한造作" 스위스會社

【제네바14日UPI=聯合】스위스의 쌀무역회사인 아그로프롬社는 14일 對韓 쌀수출과 관련, 한국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주장들을 『터무니없는것』일 뿐아니라 『야비한 조작』이라고비난했다.

10일전 미국 캘리포니아쌀 생산업자협회에 의해 독점금지법위반혐의로 제소된 아그로프롬社는 이날 제네바의本社에서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쌀 생산업자협회가 샌프란시스코地法에 제출한 소장의 혐의내용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中南美는 불탈것인가…

◇엘살바도르 左翼게릴라 만행 지난13일 엘살바도르의 산호세·라스플로레스부근에서 좌익게릴라의 공격을받고 숨진 13명의 민간인에대한 합동장례식이 칼라테난고(엘살바도르)공동묘지에서 진행되고있다.【칼라테난고(엘살바도르) 13日AP電송=聯合】

第2越南戰위험속 엇갈린利害… 숨가쁜 움직임

美, 蘇에 "緊張해소協力" 공식촉구

주변國 外相들 仲裁도

"아프간以外의 軍事介入 不利인식 經濟사정등 惡化 蘇도 協商응할듯" 美國務省

中南美사태가 날이 갈수록 악화, 汎세계문제로 번지고 있다. 특히 美國의 입장으로는 제2의 베트남戰 성격으로까지 심각한 문제로 확산되고 있어 급기야는 15일 美國이 蘇聯에 대해 中美의 정치적 긴장해소를 위해 협력해 주도록 공식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美國은 이 제의를 통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폴란드사태이후 악화됐던 美·蘇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汎세계적인 문제에 대해 협상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미국측 제의에대해 소련은 아직 확실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美국무성 고위관리들은 최근 악화된 경제사정등 국내문제로 소련이 對美협상에 응해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워싱턴=聯合】알렉산더·헤이그美국무장관은 14일 中美의긴장을 완화하는데 협조하라고 소련에 촉구하는 한편 이문제에관해 멕시코 외상과 『극히 유익한』회담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날 뉴욕에서 헤이그장관과 1시간동안의 회담을 끝낸후 호르헤·카스타네다 멕시코外相은 『中美사태에관한 일련의 협상이 곧 개시될것』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곧 쿠바및 니카라과정부와 접촉, 멕시코정부측의 中美지역긴장해소방안에 관한 미국측반응과 제의들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쿠바및 니카라과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협상을 주내용으로 하는 멕시코의 中美평화안은 이날 美·멕시코회담에 앞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外相이 참석한 中·北美외상회담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뉴욕·타임즈紙는 이회담에 참석한 美고위관리들이 中美사태의 타결을 위해 『미국은 소련과 협상해야한다』고 말한것으로 보도했다.

美고위관리들은 소련도 中美사태에 對美협상을 거부하기 어려운 취약점과 함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관리들은 소련이 中美에관한 對美협상에 응할지도를 근거로▲소련은 그들의 쿠바및 니카라과에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中美사태가 유리하게 전개되고있지 않다고 보고있으며▲폴란드위기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군사점령으로 西方측의 강경한 반발을 불러옴으로써 현시점에서 소련이 절실히 필요로하고있는 西方측기술보급이 어[illegible]

韓電社長 成樂正씨 住銀長엔 柳悖佑씨

정부는 15일 한국전력공사사장에 成樂正 사장직무대리를 임명하고 한국주택은행장에 柳悖佑 대한투자신탁사장을 임명, 발령했다.

◇成한전사장

◇柳주택은행장

◇成韓電사장 略歷 ▲서울출신·55세▲서울大工大전기공학과▲국방부과학연구소연구관▲韓電기획관리부장·이사▲韓電부사장▲사장직무대리

◇柳주택은행장약력 ▲慶北安東출신·49세▲高大문리대▲한국주택은행部長·이사▲삼우관광대표▲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감사▲한국보험공사부사장▲대한투자신탁사장

韓電 수석副社長 朴世直씨를 임명

★얼굴2면

한편 동자부는 이날자로 韓國電力 수석부사장에 朴世直 [illegible]동자부정책자문위원(豫備役少將)을, 감사에 金[illegible] 東鮮엔지니어링이사를, 이사에 [illegible]을 각각 기용, 임명했다.

社告

"師道의 등불" 찾습니다

本社 제정

제1회 「한국教育者大賞」

世界교육시찰 副賞 2명 各5백만원도

스승賞24명 百萬원씩, 國內여행

추천마감 3월31일

讀者의 추천도 받습니다

「한국教育者大賞」의 수상후보자 추천마감일이 3월31일로 결정되었읍니다. 한국일보社는 文教部를 비롯한 교육계원로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한국教育者大賞」의 운영요강을 마련, 이달 말까지 후보자추천을 받아 5월말까지 수상자를 선정하고 6월중으로 제1회 「한국教育者大賞」 시상식을 갖는다는 스케줄을 확정했읍니다. 受賞者는 「大賞」 2명, 「스승賞」 24명이며 심사는 별도구성되는 심사위원회가 전국에서 추천된 후보자중 시·道별로 2명(국교1명·중고교1명)씩 26명을 선정, 그가운데서 「大賞」수상자를 결정합니다. 한국일보社는 大賞 各2명에게 각각 5백만원과 세계교육계시찰여행, 스승의賞수상자21명에게 각 1백만원과 國內여행의 과격적인 副賞제도를 마련했읍니다. 한국일보社가 거국적인 사업으로제정한 「한국教育者大賞」은 教育立國의 국민적 여망과 意志를 集約한 것으로, 전국의 초·중(고)등교육을 담당하고있는 교육자중에서 師道의 등불이 될만한 모범교육자를 선정, 시상함으로써 일선교육자의 긍지를 높이고 民族의 스승으로 역사에 남게 하자는데 그뜻이 있읍니다. 국민 여러분과 교육자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illegible]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 賞의 選拔범위·推薦및 審査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選拔범위=教職에 15年이상 근속한 초·중·고등학교교사, 교감, 교장및 교육전문직 종사자로 가능한 초·중·고등학교 평교사를중심으로 선정함.

◇推薦=후보자를 추천할수 있는 기관은 市·道 教育委員會·大韓教育聯合會·大韓私立中·高等學校長會등이며 한국일보讀者도 임의로추천할수있음.

◇推薦人員=추천기관은 각 市·道에서 각각 4名씩(국교2, 중·고2) 후보자를 추천하며 受賞者선발은 추천후보자 1백56名과 讀者가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서 선정함.

◇書類提出=추천된 수상후보자는 履歷書, 功績書(추천機關長확인), 寫眞2枚를 첨부한 所定의 申請書를 작성, 3월31일까지 本社事業部에 접수.

◇審査=文教部·教職團體·教育界元老및 한국일보社幹部를 포함한 10名內外의 審査委員會를 구성, 이審査委員會의 審査와 현지확인을 通해 受賞者를 選定함.

◇施賞=①大賞…2名에 副賞 각5백만원과 세계일주 교육계시찰 ②스승의 賞…24名에 副賞 각 1백만원과 국내여행.

主催=한국일보社

後援=文教部·大韓教育聯合會·大韓教員共濟會

中共 主席制 부활

改憲추진

【北京15日共同=聯合】중공은 현재 국가주석 부활을위한 헌법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개정안은 빠르면 이달말열리는 全人代상무위원회에 상정될것이라고 정통한 소식통들이 15일 말했다.

소식통들은 이 헌법개정안이 상무위를거쳐 전국적인공청회에서 충분히 검토되도록 할것이며 모든일이 순조로울경우 금년말 개최되는 全人代 제5차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될수도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소식통들은 그러나 국가주석이 부활될 경우 당부주석 鄧小平이 이직책을 맡을것이라는 일부보도를 부인했다.

소식통들은 이어 이개정안에는 수상과 주석의 임기를 각각 5년으로 정하고 주석은 중임만, 수상은 3차례의 연임까지 할수 있도록 돼있다고 전했다.

地平線

『어디로 가시죠?』 택시는 벌써 구르고있다. 『해방촌』… 『아니야. S병원으로 가!』 『아니야. X경찰서로 가…』 『X경찰서앞입니다』… 『아니야, 가!』 『X경찰서입니다. 손님…』 『가자!』 『어디로 갑니까?』 『글쎄 가!』 하참 딱한 아저씨네… 『어쩌다 오발탄같은 손님이 걸렸어』. 자기갈 곳도 모르제… 50년대가 저물던 59년 李範宣이 발표한 〈오발탄〉의 줄거리이다. ▼한편 [illegible]에 의하면 「이범선의 〈오발탄〉은 분명 남시 [illegible]이계를 진동시킨 문제작」이 이분였다. 분단과 전쟁의 비극속에서 정신이상이된 어머니, 권총강도가된 동생, 그리고 양공주 누이동생을 거느린가난한 월급장이 송철호가 주인공이다. 그는 어떤일이 있더라도 『양심을 버리고 윤리와 관습을 무시하고 법률까지도 범하고』 살기를거부한 인간이다. ▼인생의 오발탄인 송철호의 끝장면은 동생이 권총강도를 저지른 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로부터 시작된다. 『철호는 전에도 몇번 경찰서의 호출을 받은일이 있었다. 양공주 노릇을하는 누이 송생 명숙이가 걸려들면 그신원보증을 하는 철호였다…』 — 게다가 이날아이를 낳던 아내는 숨을 거둔다. 50년대의 마지막을 장식한 작품은 대중 이런 줄거리다. ▼소설〈오발탄〉은 영화로 더욱 대중에게 알려진 작품이었다. 50년대의 비극적인 이땅의 상황을 그린 문제작이다. 작가 이범선은 그렇게 한시대를 살았고, 한시대를 대표한 작가였다. 국토분단이라는 소용돌이와 전쟁이라는 비극속에서 한시대를 숨쉰 작가다. 그가 평생을두고 잊지못한 사람도 전쟁의 비극속에서 만난 이름없는 시골 아낙이었다한다. ▼「내가 본것은, 그리고 이날까지도 아주선명하게 기억하고있는 것은 그때 그여인의 분홍저고리, 어깨가 해어져서 그것을 손바닥만한헝겊으로기웠는데 그기운 헝겊의 분홍색이 저고리 본바탕보다 좀 진했던 그것뿐이다… 아마 그 정거장에서 일하고있는 말단 역부의 아내였을 그초라한 몸매의 여인」 — 그는 피난열차에 실려갈때 장작을 준 여인이 〈鶴마을 사람들〉을 스스로 대표작으로 꼽았던 李範宣은 鶴村이라는 雅號를 갖고있었다. 그만큼 그는 학처럼 고고하게 한세대를 체험하고, 증언하면서 살아왔다. 그가살았던 그시대와 그인간을 그만큼 감동적으로 증언한 사람은 이미 사라진거나 다름없다. 양심과 윤리와 관습과 법을 지키기위해 끝내 고독을 지키다가 그는 62세라는 아까운 나이로 우리에게서 떠난것이다.

社會漫評

구성하는데 歲月가고…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신영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922-3111 (B) 791-8196 (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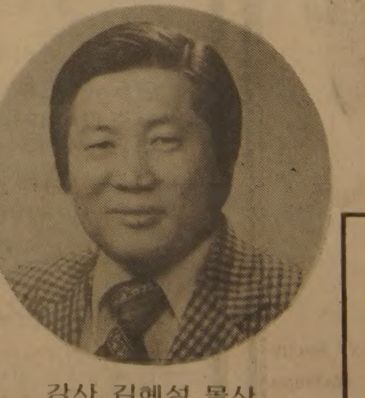
심령대부흥회

★일시 : 3월 25일(목)~3월28일(주일)

▲매일저녁 7시
▲성경공부 토요일 낮 11시
▲일요일 새벽기도회 5시30분
낮 2시, 저녁 7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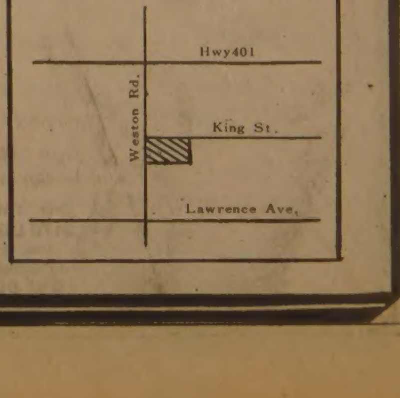
▲연락처 ☎ : 881-7162, 431-9962

강사 : 김혜성 목사 나성영생교회담임 미주대회신학학장



강사 김혜성 목사

〈교회약도〉



★장소 : 순복음토론토교회

1KING ST.WESTON 담임목사 : 이 필 주

美、核 先制사용 가능성

비밀문서 公開 전술核戰개념 마련

全面아닌局地戰국한

레이건의 制限核戰개념 뒷받침

【워싱턴14日UPI=聯合】美육군은 제한核전쟁이 가능하다는 레이건 대통령의 소신을 뒷받침하여 소련식군대와의 전술核戰개념을 마련한것으로 14일 밝혀졌다.

이날 비밀분류에서 해제된 『空陸戰86』이라는 제목의 80페이지짜리 美육군문서는 지난81년 3월25일 작성된것으로서 보다 강력한 상대방 군대를 『강타』하기위한 전술核무기의 사용을 명백히언급하고있다.

美육군정책입안자들은 이 문서에서 전술핵무기의 사용이 전면적인 대륙간核미사일 교환이나 폭격기의 상호공격을 유발하지 않은채 오직 戰爭에만 국한될수있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 『戰域核무기사용이 전략核전쟁을 불러일으킨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전투수행 능력이라는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美육군고위당국자는 이같은 원칙이 미국의 核의 先制사용가능성을 『명백히 의미한다』고 말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신문 편집인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어느 한쪽이 전면核전쟁의 단추를 누르도록 하지않은채 戰場에서 전술核무기를 교환할 가능성을 예견할수있다』고 말했었다.

◇佛미테랑大統領도 한표 프랑스와·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14일 실시된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자신의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샤토 시농 (프랑스) 14日 電送=聯合】

美, 有人우주정거장 建設

往復船실용화후 日·유럽協調얻어

【코코아(美플로리다州)14日UPI=聯合】미국은 우주개발계획의 다음 단계로 유럽과 일본의 협력을 얻어 유인우주정거장을 건설하게될 것이라고 제임즈·베그스美항공우주국(NASA)국장이 14일 말했다.

베그스국장은 수십억달러가 소요될 이 유인우주정거장 설립이 국제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우주탐험사상 가장 커다란 일이라면서 이미 日本이나 유럽우주기구(ESA)의 10개 회원국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벡스 국장은 현재의 우주왕복비행이 정규적으로 상업용 또는 군사용화물을 싣어 나르게되면 NASA는 이에서 손을 떼고 향후 5년이내에 유인우주정거장을 건설하기위한 집중적인 연구개발에 착수하게될 것이라고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달을 비롯한 다른 행성으로의 우주여행임무가 로보트에 의해수행될 것이라면서 20~30년후에는 로보트들이 달에 건설될 공장에서 일할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다음세기에는 인간의 화성착륙도 이루어질지 모른다고전망했다.

美서 6명死亡 飛行機 충돌로

【피닉스(美애리조나州)13日AP=聯合】미항공경비대소속 공중급유기와 민간경비행기가 13일 애리조나州의 루크 공군기지 인근 상공에서 공중충돌, 최소한 6명이 사망하고 두비행기의 기체가 완전 파괴됐다고 항공경비대관계자들이 말했다.

이들은 이번 사고로 KC 135급유기에 탑승한 4명의 승무원전원과 경비행기에 타고있던 2명의 민간인이 사망한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佛社會黨 퇴조현상

地方議會선거 右派 연합勢力 두각

【파리16日AFP=聯合】집권10개월된 프랑스社會黨정부는 14일 실시된 지방의회선거 1차 투표에서 야당인 右派의 연합세력에 밀리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드·골派와 지스카르·데스탱前대통령지지세력은 개표가 약30% 진행된 이날 하오 현재 51%의 득표율을 보이고있으며 특히 지스카르前대통령과 자크·시라크 파리시장은 1차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 당선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총선에서 38%를 득표했던 社會黨은 이날 투표에서 약 30%를 얻는데 그쳤으며 종전지방의회선거에서 23%정도를 고수해왔던 共産黨은 이날현재 16%의 득표율을 기록하고있다.

약 2천명의 지방의회의원들을 선출하기위한 이번선거에는 3천5백만 프랑스유권자가운데 약1천9백만의 유권자가 참가한것으로 잠정집계됐다.

브레즈네프側近 치네프將軍

KGB의 제1副議長에任命

브遂出시도說 일축

【모스크바=聯合】소련비밀경찰(KGB)의 제1부의장에 게오르기·치네프장군이 임명됐다.

올해 74세인 치네프는 지난50년간 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 위원이었으며, 브레즈네프소련공산당서기장의 측근인물중의 하나로 알려졌다.

치네프의 KGB 제1부의장임명은 그가 브레즈네프의 측근인물이라는 점에서 지난 1월 자살한뒤 KGB 제1부의장 세미온·츠비군이 가진 자리에 임명됨으로써 브레즈네프를 몰아내기위한 권력투쟁이 시작됐다는 서방측의 추측을 일축하려는 시도로 믿어지고 있다.

이와함께 소련의 한 정통한 소식통은 『브레즈네프가 죽을때까지 권좌에 머물것이며 그가 은퇴하거나 다른사람으로 교체되는 일은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브레즈네프 重病 지난달 심장마비

【뉴욕14日外信=聯合】레오니드·브레즈네프(75)소련공산당서기장이 지난 2월말 심장마비를 일으켰으나 곧 회복되었다고 美시사주간誌 뉴스위크가 15일자 기사에서 보도했다.

메아리

포근한 三冬을 보냈는데도 지난 주말의 봄빛은 새삼 반갑기만 한것이었다. 날씨가 쾌청답게 환한데다 예년보다 기온도 훨씬 높아 마음마저 절로 들뜨는 그런 하루였다.

옛날 중국의 시인은 봄밤 어스름의 값은 일각이 천금이나 되도록 소중하다고 했거니와 겨우내 울울하게 도시공해에 찌들거나 집안에서 갇혀 지내던 처지들로는 봄맞이 주말의 하루는 그야말로 값이 천금이라 할만하다.

아직 상춘의 행락이 본격화했다기엔 이른 철이라 그렇지, 봄이 한창으로 무르익어 꽃이 난만하게 피어나면,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이만큼 들레는 흥청거리게 될것이다.

그런 봄이 무르익은 주말이었는데도 지난 13、14 양일간은 윤화사고만도 9천이나 발생해서 31명이 죽고 35명이 부상을 입었다.

해남 땅끝재에서 트럭이 굴러 7명이 모두 죽은것을 비롯하여 경주、포항간 국도서는 백시와 트럭이 충돌、4명이 몰사했고 전남 승주서도 기차와 버스가 맞부닥쳐 버스승객 2명이 숨졌다.

또 충북 중원서는 관광버스와 트럭이 사고를 빚어 21명이 부상했는가하면 경부선과 동해남부선 철로에서도 4살과 3살난 어린이가 차에치여 숨졌다. 멀리 제주서는 68세의 대학영문과 선생님이 교내에서 운전연습을하다가 2명에게 부상을 입힌후 스스로도 목숨을 잃는 변이 생겨 어수선 하기 그지 없었다.

즐거워야 했을 이번 주말의 불상사는 그에 그치지 않는다. 일요일 하루 사이에 부산서 보태진 변사사건만 5건에 이르렀으니 모두 자살、소사、낙사、익사로 봄을 등졌다.

이도 모자라 수원서는 광덕산중턱에서 등산객의 부주의로 산불이나 2만여그루의 소나무가 탔고 충남 대덕군서 또한 소나무 1천5백그루를 태워 봄타령이나 주말의 기쁨이 무색해 지게 되었다.

週末의 危險

이른봄 첫 행락 주말부터 봄을 타고 일어날것으로 예상되고 또 지난날 일어났던 온갖 재앙들이 골고루 스치고간 이런 사고투성이는 행동의 계절인 봄을맞은 우리 모두에게 잊어서는 안될 지시사항을 전해주는것만 같다. 봄의 흥청거림이 자초할 온갖 사고를 미리 경계하며 행동량 증가에 따른 안전문제를 각별히 유의하여 이봄의 쾌락지수를 간직해가라는 그런 권고신호로 보여진다.

캄反軍 가스攻擊받아

지난3월초 손산이 이끄는 1萬여명

【방콕11日AP=聯合】親베트남 캄보디아 정권에 대항하고있는 손산 前캄보디아 수상의 게릴라 1만여명이 지난7일부터 11일까지 有毒가스공격을 받았다고 정통한 서방소식통이 14일 밝혔다.

이 소식통들은 크메르 인민민족해방전선(KPNLF)의 본거지인 속산 마을에 지난3월초 『인체에 닿는즉시 전조되는』 유독가스를 칠이야포에의해 발사됐다고 말했으나 이공격에의해 희생된 게릴라수나 이유독가스가 치명적인 『마이코톡신』인지의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앞서 KPNLF지도자 손산은 파리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10일 베트남軍이 유독가스탄을 속산마을에 투하했다고 주장한바 있다.

美、엘살바도르軍훈련

파나마서 實施계획 對蘇·쿠바 추가制裁도

【워싱턴14日AP=聯合】미국은 엘살바도르 내전을 소련과 쿠바 때문에 일어난 『세계문제』의 일부로 간주, 이들 두 나라에 대해 추가경제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엘살바도르 지원을 위해 파나마의 美군사학교에서 엘살바도르軍을 훈련시킬 계획인것으로 13일 밝혀졌다.

니카라과는 레이건 대통령의 美행정부가 中美국가에대한 군사개입위협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최신예 蘇製미그전투기를 구입할 것이라고 프란시스코·피알로스·나바로 駐美니카라과대사가 14일 말했다.

한편 美국무성은 쿠바가 마리화나 밀매조직을 이용, 콜롬비아에 무기를 밀반입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中美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미국과 소련및 쿠바의 中美개입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엘살바도르叛軍 니카라과에本部

【뉴욕14日外信=聯合】현재 內戰中인 엘살바도르좌익게릴라들의 指揮本部가 인접국인 니카라과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美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14일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이날 발간된 일자판에서 지난1월부터 니카라과군에 의해 엘살바도르게릴라들과 그들의 본부간의 연락이 무전보고에서 그와같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카리브海의 거센「政治波高」 <上>

昏迷속의 中南美사태…어디까지 번지려나

◇지난해 엘살바도르에서 체포된 한니카라과 게릴라가 12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쿠바 이디오피아에서 교육을받은뒤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정권에의해 엘살바도르전투에 투입됐다는 앞서의 자백내용을 번복하고있다. 【워싱턴13일AP電送=聯合】

남북美洲 두 대륙을 잇는 中美일대가 요즘 연쇄 화산폭발이라도 보듯 떠들썩하고 불안하다. 엘살바도르의 內戰이 격화되고 있는건 오는 28일로 임박한 총선거를 의식한 한판승부의 대공세 때문이라고 치더라도 사람이 무더기로 죽고 다치는 가하면 이유모를 폭발사고가 과테말라에서 콜롬비아에 이르는 미주대륙의등뼈부분에 줄줄이 터져나와 긴장을 더해주고 있다.

쏟아져들어오는 뉴스사진은 차마 신문에 싣을수없는 처참한 屍身들이 즐비한 장면들.

지난해말 폴란드가 계엄령선포로 한참 「얼어붙은 겨울」속으로 빠져들어가자 다음 뜨거운 뉴스의 본고장은 틀림없이 中美일대가 될것이라는 경고가 있었다. 카터를 안보보좌관직책을갖고 보좌했던 브레진스키교수가 다분히 黑白논리에 토대를둔 레이건의외교정책이 안고있는 맹점을 미리 내다보고 경고하는뜻에서 그런말을했었다.

「쿠바以後」 20년만의 陣痛

뿌리깊은不平等·소수獨裁

美의黑白논리로 解決못해

니카라과·이웃小國 軍備경쟁 중단돼야

오늘의 中美 여러나라에서 벌어지고있는 분쟁의 뿌리와 양상은 여러면에서 불행한 일치를 보이고 있다. 수천에서 수만에이르는 사망자들 가운데 왜 죽어야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숨지는 숫자가 너무나 많다.

지난79년 니카라과에서 우익독재자 소모사가 산디니스타 세력에 밀려날때까지 좌우익 대결이 벌어지는 사이에 무려 4만5천명이 숨졌다.

그렇게해서 미국의뒷뜰로 보면 中美에 「제2의 쿠바」가 발을 붙인후 번지고있는 엘살바도르 내전에서 지난2년동안 적게잡아 2만5천명이 숨졌다. 흔히 中美의 월남이라고 일컫는 엘살바도르는 크기로보면 미국이 60~70년대에 걸쳐 맞물려있던 월남땅덩이의 15분의1밖에 안되는 小國이라는 걸 감안해보면 人命피해가 많아도 너무많다.

그것도 左와右사이 十字포화의 희생자들보다는 부락단위 초토화 전술로 무고하게 숨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데 문제가 크다. 월남전에서 그랬듯이 양민학살 비난이 꼬리를 문다.

이런 대결은 정치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데 반드시 있어야할 中道세력이 발붙일땅을 더욱 허물고있다. 따라서 미국의 지원아래 치러지게될 엘살바도르 선거는아무것도 약속해주지않는 허례행사가 되고말것이 분명하다.

미국은 두아르테 基民黨정권의 중도노선이 선거에서 국민지지를 얻는데 성공하면 모든 在野세력과 타협을 모색, 총화체제를 갖추어 좌익게릴라를 완전 소탕할 수있으리라는 시간표를 설정해놓았다.

하지만 두아르테의 독선에 반발 재야세력과 좌익이 모두 빠진 코트한 선거는 치러보자 결과는 뻔하다. 그런 절름발이선거로 탄생되는 정부는 타협보다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마련이다. 두아르테정권은 표방한 중도민주의 기치와는 달리 극우세력의 채를 더욱 떠게 마련이다. 極左세력의 활동력화가 도리어 極右정권의 출현을 도와주어 분쟁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게될 공산이 엘살바도르에서는 크다.

오늘의 中南美사태는 거슬러보면 59년 쿠바에 카스트로정권이 들어섰을때부터 예고된것이었다. 전통적으로 農耕위주의 카리브 연안국가들은 소수 가문의 독재지배아래 있었다. 카스트로의 쿠바혁명은 군대군에서 비슷한 혁명이 그대로 불붙이리라고 보았다.

그런 혁명의 확산을 차단한 것은 미국의 安保이해와 직결돼 있는 쿠바를 미국이 경제·군사적으로 봉쇄하는데 성공해 왔기 때문이다. 진짜든 상상이든간에 소련과 쿠바의 공산팽창주의는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는 논리가 中美여러 나라에서 번질만한 소요의 여지를 눌러온게 사실이다.

그러나 과두지배체제가 장기화함에 따라 이에 반발하는 계층은 숨을 죽여가며 성장했다. 소수가문의 정치支配는 빈곤, 정의를 위한 대중투쟁으로 종식시켜야한다는 큰 흐름이 니카라과政變후 中美일대를 거세게 휩쓸어쳤다. 이런 견해는 西歐지도자들과 가톨릭세력의 지지를 얻었다. 폴란드의 不自由를 통탄한 바티칸교황청이 엘살바도르라고 침묵할 수는 없게 돼있다.

엘살바도르분쟁의 진상을 말해주는 修女들의 무더기 피살이 좌익게릴라가아니라 극우세력의 私兵노릇을 하는 보안군이 저지른 사건이었다. 그 범인들은 지금재판을 받고있다. 과테말라나 콜롬비아가 겪는 내분도 본질적으로는 앞서 니카라과나 오늘의 엘살바도르가 겪는 不平等의 문제이고 장기독재 여파라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이점에서 레이건행정부의 분쟁해결방식은 핵심을 벗어난것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레이건은 쿠바를 마르크스·레닌주의를 中美에 이식시키는 이데올로기 오염의 주범으로 몰아세우고 있으나 中美체제의 여론은 이를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티스타독재정권을 넘어뜨렸던 점에서 쿠바혁명이 中美에서 나름대로 평가는 있지만 마르크스주의가 뿌리를 내릴 토양은 돼있지 않다는 판론이다. 그것은 압도적 가톨릭 勢때문일것이다.

中美국가 저마다의 내부문제 말고 局地전반의 문제로는 친소니카라과의 군사력강화를 꼽고있다. 니카라과는 소모사집권당시 겨우 7천에 불과했던 병력을 4만으로 늘리고 蘇·佛양국 무기를 대량 들여와 전례없는 重武裝국가가 되고있다. 「혁명의 波及」을 전제하려는 주변 우익국가들이 군비강화를 하고있는데 한 對應이라고한다.

中南美의 긴장이 완화되려면 니카라과 이웃 소국들의 군비경쟁을 멈춰야한다. 그러니까 美―쿠바, 美―니카라과, 니카라과―그주변국간에 不可侵조약이 맺어져야한다는 포르티요 멕시코 대통령의 분쟁해결방식이 설득력을 더 얻고 있다.

【金炳武외신부차장】

外信안테나

◆바르샤바條約3國 기동훈련突入=폴란드계엄령선포 만3개월이되는 13일 소련·폴란드·동독등3개국군대는 계엄에 반대하는 폴란드국민들에게 위압감을 주기위한 것이 분명한 『힘의 시위』로서 폴란드서북부지역에서 1주간의 기동훈련을시작했다. 【바르샤바=AP】

◆가다피 訪美가능성示唆=무아마르·가다피 리비아국가원수는 14일 자신이 미국을 방문할가능성을 배제하지않고 있다고 밝힌것으로 리비아관영 JANA통신이 보도했다. 【트리폴리=UPI】

◆시아누크·金日成회담=북괴를 방문중인 前캄보디아국가수석 노로돔·시아누크公부처는 13일 金日成과 만나 金이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했다고 14일 중공관영新華社통신이 평양발로 보도했다. 【홍콩=聯合】

通貨증권 또發行

한국은행은 오는20일을기해 5백억원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또 발행, 시중에나도는 과잉통화를 거두어들이기로했다.

이번에 발행되는 증권역시 일반에 공매되며 금리는 시장실세, 기간은 91일짜리와 1백82일짜리 두종류가있다.

한국은행은 통화환수를위해 지난13일 5백억원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 그중 백63억원어치를 판매했고 2월25일에도 4백억원어치를 발행, 1백52억원어치를 판매한바있다.

美배우 더글러스"革命에도 사랑있다"

미국 영화배우 커크·더글러스는 14일 北京대학에서 『혁명에도 사랑이 있다. 사랑이 없이는 혁명을 할 이유가 없다』고 자신의 혁명관을 피력, 2백여명의 학도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미국의 對중공 이해증진계획의 일환으로 중공을 방문중인 더글러스는 한 학생으로부터 그가 주연한영화 『스파르타쿠스』가 고대 로마의 노예봉기를 다룬 영화라기보다는 사랑을 다룬 영화인것 같다는 평을 듣자 『이곳에서도 영화평론이 싹트고 있군요. 사랑은생활의일부지요』라면서 그같이 조크. 【北京AP=聯合】

"코피많이 마시면 不具兒 낳는다"

임신부가 코피등 카페인 함유식품을 과다 섭취할경우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이있다고 美의사들이 보고했다.

보스턴의과대학 의사들의 동물실험결과에 따르면 쥐의 경우 과도한 카페인은 새끼에게 여러가지 결함을 일으켰고 또 하루 코피24잔이상에 해당하는카페인을 섭취할 경우 지체의 일부가없는기형동물이 나올가능성마저있다. 그러나 이같은 동물실험결과를 사람에게도 적용할수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시카고UPI=聯合】

◇"내美貌가 어때요" 캐롤린 모나코공주가 12일밤 몬테카를로에서 열린 「장미의 무도회」라는 자선파티에서 아름다운 미모를 과시하며 초청인사들과 환담하고 있다. 【니스(프랑스)14日AP電送=聯合】

海外토픽

英설계사 童話속의 金토끼찾아 橫財

한 영국작가에의해 동화속에 숨겨졌던 「신비의 금토끼」가 3년만에 발견됐다.

영국의 선데이·타임즈는 14일 지난 한 설계기사가 런던에서 북쪽으로 80㎞떨어진 베드포트부근의 한공원에서 금으로 만든 토끼를 찾아냈다고 보도했다.

순금에다 보석을 박아 3만달러를 호가하는 이 금토끼는 영국작가 키트·윌리엄즈가 3년전 숨겨놓은것으로 그는 자신이쓴 동화 「가장무도회」에 나오는 각종 수수께끼속에 발견의 실마리를 숨겨놓았었다.

금토끼를 발견한 행운의 설계기사는 수개월간 동화속에 나오는 수수께끼들을 연구해왔는데 수일전 개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다가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했던 묘비명이 새겨진 돌십자가를 발견, 주변을 집중수색한 결과 부근에 숨겨진 금토끼를 찾아냈다. 【런던=聯合】

맛 사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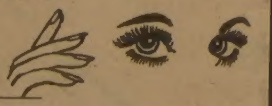
DIXIE HEALTH STUDIO

Whirlpool * Sauna
Gym * Massage
Luxurious Surroundings
OPEN 10 AM-1 AM
5170 Dixie Rd.
(near airport)
MISSISSAUGA
624-8822

Annie's Beauty Care Center
(Hair Wizards)

♥여성의 희소식♥
美의센타 탄생

*최신식 장비구입
*여드름 치료
*잔주름 제거
*노화방지
*살결을 탄력있고 부드럽게
*매니큐—패티큐



▪불란서 최고급화장품 사용하여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
▪털이 많아 고민하시는분.
▪바른화장법 지도.

6093 Yonge St. (영×휜치)
Yonge 센타 플라자 내
☎ : 223—7884~5 Mrs. 리

＊개업인사＊

김명숙 회계사무소
(Kim's Associates)

안녕하십니까? 다아오는 TAX시즌에 대비해서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코자 2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사무실을 마련했읍니다. Tax Return, Bookkeeping, Accounting등 제반회계 업무와 세무및 경영상담 등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왕림하시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력 : 1974년 이화여대 경영학과 졸업
Algoma 대학교 회계학 전공
5년간의 C.A.Firm근무
현재 C.G.A. Undergraduate(5th Level)

484 BLOOR ST.W.
(강찬영변호사 사무실내)
☎ : B(537-3171 R(669-2710

취임예배안내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배하려 들지말고 오히려 그들의 모범이 되십시요. 그러면 목자의 으뜸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월계관을 받게 될것입니다. (벧전 5 : 3—4)

본 교회 제2대 담임목사로 청빙되신 조남유목사님의 취임예배를 드리고저 하하오니 오셔서 함께 축하와 격려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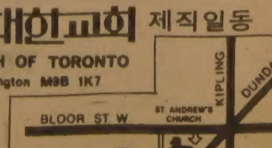
— 아 래 —

때 : 1982년 4월 4일 오후 2시
곳 : 본 교회(3819 Bloor St.West)
St.Andrew's church
설교 : 홍 순 관 목사님(동부장로교회 시무)
안내전화 : 742—2193(정집사)

1982. 3. 15

— 개별 초청 생략

토론토 대한교회 제직일동
KOREAN CHURCH OF TORONTO
3819 Bloor St. W. Islington M9B 1K7



抒情에 바탕둔 준열한 社會意識

他界한 李範宣씨의 文學과 人生

◇故李範宣씨의 原作소설을 영화화한 「誤發彈」의 한장면。그는 이 소설로 「社會意識이 강렬한 휴머니즘의 작가」로서의 이미지를 굳혔다。

흐트러짐없이 반듯한 私生活
非人間化의 시대 아프게 告發

13일 타계한 소설가李範宣씨는 「전형적인 작가로서의 기질」을 가진 인물이었다。조금도 흐트러짐이없었던 얼굴 표정속에서 단단한 뼈가 만져지면서도、조용한 말소리속에서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씨가 느껴지는 소설가였다。

이같은 기질은 그의생활과 문학 양쪽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그는 어느 모임이나 회의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늦어본적이 거의 없었다。

그는 이처럼 정확하고 반듯한 생활태도속에 사람을 성실하게 사랑하는 다정한마음을 지니고 있었다。그는文人친구들도 있었지만、다른 평범한 직업을가진 이름없는 친구들과 오랫동안 진실한우정을 나누며 지냈다。

2년전 겨울에는 그의 동네를 맡고 있는 쓰레기 청소부와 가깝게 돼、청소부의 자녀가 고교에 입학할 때 입학금을 마련해 준「숨은 이야기」도 있다。

이같이 흐트러짐없는 반듯한 생활자세와 사람과 정에 깊이 기우는 마음때문에 그는 서로 경원하고 반목하는 文壇풍토속에서도 끝까지 모나지않게 지냈다。

그의 문학의소재는 사회의 非理와 不條理、전쟁과 동족상잔의 처참한 아픔등에 집중돼 있다。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준열하고 강한 주제의식을 선택하지만 부드러운 抒情性을 바탕으로 삼아 많은 독자들에게 共感을 받으면서 쉽게 읽히고있다。

그의 소설이 참여파、순수파의 격한논의속에서 안전하게 있을수있었던것도 이처럼 강한 사회의식과 따뜻하고 부드러운 서정이 엮여 있기 때문이다。출세작으로 꼽히는「誤發彈」「갈매기」(58년) 「흰 까마귀의 手記」(79년) 등은 非人間化、反社會化돼가는 시대의모습을 뼈아프게 그린 작품이다。「오발탄」은 자유당 시대、모두가 방향을 잃고 되는대로살아가는 암울한 사회분위기속에서 피로와 하는 지식인의 이야기를 그린 소설로、영화화가되고、「오발탄」이란 유행어까지 만들어낸 문제작이다。

李範宣은 이소설에서 인간을「造物主가 잘못 쏜 오발탄」으로 묘사、사람을 한알의 탄환에 비유하는 非情한 면을 보여준다。그러나 그속에는 암울한삶을 사는 사람들에대한 깊은연민과 사랑이 괴어있어 강한휴머니즘을 內面으로 연결시키고있다。

「흰 까마귀의 手記」는 어느 일요일에 외출해서 돌아오지 않는 오십대의 쟁쟁한 법관이 쓰는 手記형식으로전개된 소설로、주인공이 살아온 이야기를통해 사회의 온갖 어리석음을 그려낸다。겉으로 화려한 직업을 가진 이 주인공은 자기 자신의 진부하고 어리석고 평범한 小市民的인 생활에서 벗어나기위해「영원한 가출」을 한다。

「鶴마을 사람들」과 「黨員의 微笑」는 6·25의 아픈기억을 소재로한 소설로、그의 작품연보가운데서 가장무거운 자리를 차지하는 작품이다。특히「당원의 미소」는 원고지 6천장이 넘는방대한 부피로 10년에 걸쳐집필、80년에 마지막 피리어드를 찍은 大作이다。그는 이 작품에 가장 큰 힘을 기울여 『이소설을 쓰는동안 내가이제까지 겪어왔고 느끼고 생각한 나의 모든것 모든 삶을 다시 사는것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고백한 적이있다。

「당원의 미소」는 그 자신이 격렬한 시대를 살며 마주쳤던 이야기를 半自傳的으로 그린 소설로、소설속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건들의 절반 정도는 實在한 사실이다。

작품의 무대를 그 자신의 고향 平南 新安州에 두고、해방전부터 6·25를 거쳐 70년대에 이르기까지 35년간의 시대상을 소재로 한다。가장 친하게 지낸 두 명의 청년이 6·25 남북분단으로 갈라져 서로「적의 위치」에 서게되는 이야기가 다루어진다。

이 작품은 이데올로기와 전쟁에 의해 생이 결정되는 인간에 대한 짙은 연민과 남북분단의 비극을 생생하게 환기시키는「二代로망」으로 평가된다。李範宣은 고향을 버리고 온 실향민으로서、失鄕의 아픔을 어느 누구보다 진하게 느끼며 살았던 작가로 알려져있다。

그는 대학교수(外大)로서、인세수입이 좋은 소설가로서 생활에 별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면서도 反共교육을위한 방송프로그램에 오랫동안 원고를 기고해、남북문제에 대한 자기의 이론과 생각을 열심히 편 진지한 지식인이었다。【高桂源기자】

時限、「死後50년」으로

飜譯物은 規制없이出版 무단複寫는 禁止하도록

出版協、著作權法 개정試案 내일공청회

10·26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저작권문제가 다시 거론된것은 우리 저작권법이 너무 낡아 급속히 변모하는 저작권의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1957년11월에 공포된 현행의 저작권법은 사실상19세기말 日本의 저작권법을그대로 본떠온 것이었다。日本은 10년전인 1972년 이를 개정했지만 그후의 상황변화로 이것마저 낡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出協이 이번에 저작권법의 개정을 서두르게된것은 88올림픽을 앞두고 우리의 모든 제도가 개방적으로 나가고있는추세에서 국내출판계의 이익을지키려는데 1차적인 의미가있다。

번역물은 별다른 규제없이출판하는대신 무단복사는 금지하도록 규정하고있다。이것은 그동안 국제적인 海賊出版시비가 번역물보다 복사판때문이라는 현실을 감안한것이다。關泳斌출협회장은『올림픽이 아니라도 외국출판물의 무단복사는 한계에부딪쳐 臺灣의경우도 복사판에대한 규제를 검토하고있는추세다。따라서 무단복사는 금지하더라도 국제저작권조약에 가입하는것은 현단계에서는 시기상조이며 번역물에대한 로열티의 제공은 1990년대에나 검토해볼일』이라고 말하고있다。이번 시안은 또한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저작자의 死後 30년으로 규정된 현행법제30조를 고쳐「사후 50년」으로연장하고、著作隣接權 규정등을 보완하고있다。저작권의 존속기간을 저작자의 사후 50년으로설정한것은 국제적인 추세를따른것으로 저작권의 주사용자들인 출판인들이저작자들에게크게양보한셈이다。출판인접권은 오늘날저작물의 사용이 출판뿐아니라 레코드、연극、무용、방송등 광범위한 부문으로 확대되고있으며 최근에는 비디오까지 대량보급되고 있는데비해 현행법이 낡아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왔다。

出協은 이번 시안이 공청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가을국회에서 토의되기를 바라고있다。【梁平기자】

凍土 사할린에 「봄」이 오려나

6萬동포 애타는 望鄕

"날개라도있다면"…수천명

實現실마리…蘇측에 열쇠

日、終戰전후 自國民만 철수후 버려둬「棄民」상태로

日의 "無責任·蘇심술·한국의 無誠意"로 空轉

사할린동포들을 그대로 버려둘것인가。

지난9일 일본에서 스즈끼(鈴木) 수상이 사할린 거주 한국인귀환을 위해 『기회있는 대로 끈질기게 소련과 교섭하겠다』고 중의원에서 발언한것은 수십만 이산가족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스즈끼수상의 이발언은 전날 일본 사까다(坂田) 법상의중의원발언을 뒷받침해 준 결과가 되어、일본정부가 이제야 뒤늦게나마 책임을 느끼고 일관성있는 귀환노력의 의사가 있음을확인한것이다。사까다 법상은 귀환문제에대해 인도적 견지를 강조하면서 『소련이 허가하면 일본거주희망자들에게도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말했었다。

열쇠를쥐고있는 소련이 어떻게 나올지 짐작하기어려운 형편이지만 소련이 지난해12월 사할린동포朴[illegible]씨(52) 가족에게 일본여행을 허용한 사례가 있는데다 일본이 갑자기「적극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이번 발언은 귀환실현문제의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

사할린동포 귀환문제는 지금까지 37년동안 일본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한국측의 무관심、소련측의 「심술」로 많은 우여곡절을 되풀이 해왔다。일본정부의 새로운 태도를 계기로 지난 37년간의 귀환운동 경위와 사할린동포들이 겪어온 슬픔을 알아본다。

「37년未濟」의 歸還문제… 日首腦뒤늦은 "적극노력"

뉴스診斷 特輯部 文昌宰기자

「서한왔。수일간 소식을몰라 궁급하나。이곳 나는 조선 한국을가서 너희를 만나보고싶은 생각이 간절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노력해보았으나 마음대로 되지않고、적막강산이라 날개라도 있다면 날아가지만 마음만 답답한 뿐이라 할수없이 이곳에서 사망하고 말겠다。사망날짜는 다른사람이 써서 보낼것이다。」

징용등으로 끌려가

이글은 지난80년 사할린땅에서 망향의 한을 안은채 숨진 安泰納씨가 죽기얼마전 고국의 아들 安碩煥씨(충남 牙山郡 排芳面 長在里)에게 쓴 마지막 편지의 전문이다。그가 죽은후 동포 한사람이 그의 사망일을 아들에게 편지로알려 아들은 금년9월 아버지의 탈상을 맞게된다。

이 기막힌 사연은 安씨 한사람의 얘기가 아니다。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安씨가 동토에서 그렇게 죽어갔는지 우리는 알수없다。

해방당시 사할린에는 4만3천명의 한국인이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인구의 자연증가로 현재는 약6만명이 살고있는 것으로 전해지고있다。

이들은 해방6년전인 39년부터 국가총동원체제에 들어가면서 모집、관알선、징용등의 형태로 끌려간 탄광과 건설공사장의 노동력으로 대부분이 남한출신이다。

동포 현황

해방이 되어 소련군이 진주하지 한국인들은 애타게 본국귀환의 기회를 기다렸다。그러나 일본은 자국민 38만명은 모두 귀환시켰으나 한국인4만3천명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지난해 7월 일본정부및 관계기관·단체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사할린동포들은 소련의 강요와 북괴의 공작으로 70%가 소련국적을、25%가 북한국적을 취득했으나 나머지 5%는 직업·진학·여행동의 제한을 감수해가며 귀국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무국적을 고수하고있다고。

지난 80년 가족을만나기위해사할린에 다녀온 재일동포 公忠信씨(61·東京江戶區本一의)는 『사할린동포들은 대개열심히 일해 어렵지않게 살고 있으며 특히 두뇌가 우수한 민족으로 평가받고있지만 나이든 1세들은 망향의 한을안은채 죽어가고있었다』고 전했다。

꽃파는 同胞여인들

지난해 9월 사할린 한국인사회를 르포한 일본 아사히신문 시라이(白井久也) 기자는 기사에서『사할린州都인 유지노사할린스크시내를 걸으며 생각보다 한국인이 많은 것에 놀랐다』고 썼다。그는 루이노크(자유시장)에서 한국인들이 김치와 야채를 팔고 있었고 시청앞 길가에서꽃을파는 여인네들은 모두 한국인이었는데 유창한 일본말로 자기를 반겨주었다고 밝혔다。

사할린동포들의 귀환촉진운동을 벌이고있는 樺太抑留歸還韓國人會 회장 朴魯學씨(東京都足立區六月町1의32의15)에 의하면 지난 66년에는 귀환희망자가 6천9백24명이나 되었으나 귀환이 실현되지않자 많은동포가 귀환노력을포기、현재는 2천명정도로줄어들었다。

끈질긴귀환노력

일본은 패전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자마자 재빨리 사할린에 사는 자국민들의 철수작전을 개시했다。당시 사할린거주 일본인수는 38만여명。일본이 항복하고 소련이 사할린에 진주한 45년 8월23일까지 일본해군은 7만6천여명의 일본인을 北海道로 소개시켰다。소련군에의해 철수작전이 금지되자 수많은 일본인들이 밀항으로 귀국했으며 46년11월 일본과 소련의 협정으로 29만2천여명이 귀국했다。그후에도 두나라의 정부간 교섭으로 7차례의 집단귀환이 이루어져 잔류일본인전원이 귀국했다。

한국인 철저히外面

그러나 이토록 철저하게 자국민을 보호하면서도 일본은 철저하게 한국인의 귀환은 외면했다。일본인과 위장결혼해 귀환선에 오른 동포들을 강제로 끌어내리기도 했고 어쩌해서 숨어들어온 사실이 밝혀지면 오오무라(大村) 수용소에 가두는 비인도적 처사를 서슴지 않았다。

지금까지 사할린으로부터 본국이나 일본으로 귀환한 동포는 2천명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은 일본여자와 결혼했기때문에 일본정부의 교섭에 따라 공식적으로 귀환한 사람들이며 그이외에는 일본인 집단귀환때 일본인으로 위장귀환한 사람들도있으나 그 수는 몇십명에 지나지않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사할린동포들은 끊임없이 일본과 소련당국에 대해 귀환실현을 촉구했으나 일본은 언제나『샌프란시스코협정에 따라 재일한국인은 일본국적을 상실했기때문에 알바 아니다」는 철면피한 반응으로 일관해왔다。

지난 65년 金永培씨등이 소련에 귀환신청을 했을때 소련은「한국과 국교가 없으므로 일본의 입국허가가 있으면 보내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힘입은 동포들은 66년 6월 한국영주희망자 1천5백76명、일본영주희망자 1천5백76만의 귀환희망자명부를 작성、한국정부에 제출했다。한국으로부터 귀환희망조회를 받은 일본은 『귀환희망자들이 모두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소련측과 교섭할 용의가 있다』는 태도를 밝혔다。

귀환성취는 몇명뿐

이에따라 76년 4백38명이 소련측에 출국허가。일본측에 입국허가를 신청했다。그러나 이들가운데 귀환의 꿈을 이룬 사람은몇명 뿐이었다。소련이 태도를 표변、출국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이다。

소련의 태도변화전에 출국허가를 받은 安泰植씨등 4명은 일본이 입국허가를 늦게 내주어 귀국하지못했다。

이들은 사할린에서 소련본토로 건너가 일본영사관에 입국허가를 신청했는데 일본은 한국의 입국허가가 있어야한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었다。

한국정부의 입국허가를받아 일본외무성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 법무성에 입국허가조회를하는 사이 이들의 소련출국기한이 지나버려 결국 사할린으로 되돌아가고 만것이다。

76년후 出國허가없어

그후부터 소련은 단 한사람도 출국을 허가하지 않았는데 지난해 12월 朴亨柱씨가족에게 일본여행을 허용、朴씨는 한국에서 달려온 가족과 일본에서 재회했었다。

귀환청구재판

지난75년12월부터 지금까지 東京지방 재판소에서는 34차례에 걸친「사할린재판」이 열렸다。樺太 한국인귀환청구소송이다。사할린 코르사코프(熱大泊)에 사는 嚴壽甲씨등 4명의 한국인이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을 귀환시킬 의무를 이행하라』고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것이다。

일부 양심있는 일본인들과 재일동포들이 이재판을 적극지원하고있다。일본인 변호사 16명과 재일동포변호사 金敬得씨등이 무료변호인단을 구성해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벌이고있으며 미하라·레이(三原令)씨를 중심으로 한 일본여자들이 소송실행위원회를 조직、10만명서명운동을 벌여 일본정부와 국회에대해 귀환책임이행을 촉구하고있다。또 재일한국부인회(회장 裵順姬)도 사할린재판지원을 위해 모금활동을벌이는등 적극적인 지원을하고있다。

訴訟도 7年제자리

그러나 일본정부는 우이독경(牛耳讀經)이다。샌프란시스코협정타령을 되풀이하여 재일한국인이 일본국적을 상실했으므로 일본이 제소당할 이유가없으며 이문제는 행정의 문제일뿐 사법상의 문제가 아니라며 제소의 기각을 요구해왔다。

재판소의 태도도 미온적이다。소송이 제기된지 7년、그동안 34차례의 재판을 열었으나 아직 증인신문의 단계에 있다。출발점에서 한걸음도 진척되지 않고 있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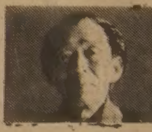
소송을 지원하고있는 사람들은 일본인들의 인식부족과 한국측의 무관심으로 더욱 외로운 재판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2월 제34회재판때 만난 소송실행위원회 사무국장 미하라여사는『일본은 사할린억류 한국인귀환문제를 매듭짓지 않는한 전후처리를 끝냈다고 볼수없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잊혀진 기민(棄民)들의 슬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식 환갑잔치상앞에 모인 어느 사할린동포(公忠信씨)가족들。뒤줄 왼쪽2번째가 며느리。그는 전남羅州郡南平面東舍里에 사는 아버지 유정요씨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男女

十字春秋



金泰吉 〈서울大 교수〉

한국과 일본을 가리켜『가깝고도 먼나라』라고 흔히 말한다。남자와 여자의 사이도 가깝기로 말하면 내몸보다 가깝고、멀기로 말하면 극락보다 요원하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인력으로 타넘을 수 없는 먼 거리가 있다。남자에게는 남자의 마음이 있고、여자에게는 여자의 마음이 있다。남자에게는 별것 아닌 것이 여자에게는 생명처럼 중요하기도 하고、여자에게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남자에게는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중대사가 되기도 한다。

남자가 아는 여자는 여자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여자가 아는 남자는 남자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피차 잘 모르는 가운데、남자와 여자는 한편으론 서로 끌어당기고 다른 한편으론 서로 물리친다。

플라톤의 대화편 심포지엄에 따르면、본래는 따로 떨어진 남자와 여자가 없었고、오직 둥근 기둥 모양의 통일 인간이 있었을 뿐이다。그 통일 인간이 너무나 강력했던 까닭에、그에 대하여 위협을 느낀 신이 인간의 힘으로 삭감하기위하여、둥근 사과를 가르듯이 인간을 두 쪽으로 나누어 버렸다。그 한쪽이 오늘의 남성이요、다른 한쪽이 오늘의 여성에 해당한다。

반쪽 신세가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나머지 반쪽을 애타게 그리워하게 되었고、자아의 옛반신(半身)에 대한 절절한 갈구가 다름아닌 남녀의 사랑이다。서로 제 짝을 갈구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약 완전히 서로를 이해하고 급기야 완전한 재결합을 이룩한다면、인간은 또다시 신에 버금가는 강자로 번신하게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완전한 재결합만은 저지되어야하며、그러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모르는 곳이 있어야하고 서로 끌어당기면서도 서로 물리쳐야 한다。

우리 한국을 남과 북으로 가른것도 신의 조화였을까。신의 조화든 강대국의 농간이든、우리는 우리의 옛모습을 최선의 노력으로 찾아야 한다。

한국일보 詩壇

봄의 山鄕歌

金海星

눈 녹은 山、山。
봄이 다가 와 앉는데
생기 도는 아침 햇발은
山窓가에 고웁게 머문다。

地心을 돌아、돌아서
새 봄 소식 전하는 시냇물
어린 풀 위를
도란 도란 情답게 흐르네。

대밭에 사는 비둘기 부부
古家의 龍머리에 앉아
긴 겨울을 對話하는 소리
구、구、구우 구우 구우…。

歲月 따라 드나드는 季節에
밝은 달이 앞을 서면
나는 깊숙한 산골에 앉아
짤막한 詩作品이나 쓰고 싶네。

파릇 파릇 새순 돋는 들판
봄이 찾아 와 쉬는데
생기 도는 노을 타는 햇발은
竹窓가에 고웁게 잠이 든다。

아세아한약방
3월22일(월)확장이전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TEL:(B)530—0522
(R)531—4165
확장이전
----645
Bloor. St. W.
(신용조합옆)
조지섭

점보機는 여객기의 王

알뜰 해외여행 ③ 初心者를 위한 가이드

5百萬개부품으로된 최대 걸작품
날개하나가 테니스코드크기 비슷

하루5百여대 날아

보잉707기가 비둘기라면 보잉747점보기는 백조다。뜨고 내리는 품새를 멀리서 보면 의젓하고 점잖기가 영락없이 한마리의 큰 백조같아 보이는것이다。그래서 외모만으로도 여객기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는지 모른다。

미국이나 중동유럽등 장거리 해외여행을 하는 승객은 반드시 이 비행기를 타게된다。평균적으로 볼때 승객의 반수 이상인 60%는 타게돼있다。

이세상에 비행기를 선사한 라이트형제가 다시 깨어난다면 분명히 「공룡과 같구나」하고 기절초풍할 이점보기의 「모든 것」을 알아두는 것도 해외여행에 도움이 될것이다。

세계의 유수한 항공사의 사세를 평가하는데 곧잘 점보기의 보유댓수를 들먹거린다。그것은 점보기가 수송능력과 안전성을 겸비한 인류사상 최대의 걸작품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세계 각국의 하늘에는 하루에 무려 5백여대의 점보기가 날아다닌다。국적과 피부색이 다른 사람과 동식물 상품등을 싣고。승객도 大英帝國의 엘리자베드 여왕에서부터 낚시미끼가 되는 갯지렁이까지 다양하기 이를데없다。

「나르는 하늘의 궁전」이라고 곧잘 불리는 점보기를 처음 타본는 여행객은 기내에 들어서자마자 어리둥절해진다。그넓고 호화로운 기내좌석중 어디가 자기자리인가를 찾을 길이 쉽지않기때문이다。

점보기는 다른 기종과 달리 2층으로 되어있다。2층앞쪽이 조종석이고 뒤편이 15명내외가 탈수있는 일등석이다。1층객실은 5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있다。각실마다 화장실이 달려있고 전면에 영화스크린이 걸려있다。KAL에서는 평소 이 스크린에 동양화를 걸어 놓는게 보통。

2층은 나사형계단을 통해 올라가도록 되있고 화장실은 조종석바로 뒤편에 붙어 있어 1등승객과 겸용이다。점보기에는 평소 2개의 문으로 승객을 내리고 태우지만 일단 사고시에는 아래층에 10개의 비상구가 위급에 2개의 비상구가 열리게 돼 있다。조종석에도 물론 비상탈출구가 있다。

비행중 식사시간이되면 점보기는 커다란 레스토랑이 되고、영화상영시간이 되면 문자그대로 극장이 된다。

뒷날개는 6층높이

점보기가 사람과 화물을 만재했을 때의 중량은 3백72톤。쇠로만든 이 거대한 물체가 하늘로 떠오르는 것을 보면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항공인자신들도 신기하다는 느낌을 갖는다。32년간 비행기를 조종한 KAL의 간판 파일러트 金良根기장(57)도 「처음 점보기를 보니 도대체 이 비행기가 공중에 뜰수있는지 의심부터 먼저 갔다」고 말할정도다。

길이 70·5m、폭 59·6m나 되는 이 점보기는 날개 하나가 테니스코트만하다。수직꼬리의 높이가 19·3m로 웬만한 6층빌딩과 같다。

인간이 만든어떤 가장 큰 비행기이기때문에 당연한지도 모른다。경제사정으로보면 점보기는 70년을 전후한 세계경제의 호황에 힘입은 대량수송시대의 산물이라고 할수있다。최근 경기침체로 이 비행기도 수지타산이 맞지않아 고전하고 있기는 하지만。항공전문가들의 결론으로는 이 이상 큰 비행기는 만들 필요가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점보」(JUMBO)가 공식 명칭은 아니다。애칭이다。공식명칭은 「슈퍼제트보잉747」이다。애칭이 붙은 내력또한 재미있다。

오래전 런던 동물원에 「점보」란 이름을 가진 코끼리가 있었다。이놈이 몸집만 컸지 몹시 미련스러웠다。그래서 사람들은 덩치가 큰동물을 보면 곧잘 「점보」라고 불렀는데 지난 68년 보잉747이 처음 선을 보이자 취재하던 신문기자들이 「점보」라고 부르면서 사람귀에 익어버린 것이다。

보잉사 경영진들은 처음 「점보」라는 애칭을 몹시 못마땅해 했다。그러나 이제는 누구나 본명보다는 「점보」라는 별칭만을 부른다。이제는 보잉사의 광고에도 점보가 등장할 정도로 덩치는 크지만 재빠른 코끼리로 사랑을 받게됐다。

최대 5百명까지 타

크기때문에 별명도 많은 점보는 도대체 얼마나 태울수 있을까。좌석수를 최대로 늘릴경우 승객은 4백80명까지 태울수 있다。승무원 20명을 더하면 5백명이 탈수있다。그러나 실제로 KAL이 꾸민 좌석수는 4백30석 내외。요즘 화물점보기를 통해 캐나다에서 소가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한번에 4백80마리씩 싣고온다。

점보기는 이렇게 많이 태울수 있어 승객만 많다면 엄청난 이익을 항공사에 주지만 덩치가 크다보니 기름도 엄청나게 소모된다。점보기 1대에 들어가는 연료량은 5만3천갤런、약 3천드럼이다。이 연료를 양날개에 가득 채우고 승객과 화물없이 빈비행기로 날으면 약 1만1천km를 계속 날수있다。1시간에 소모되는 가름은 72드럼、포니승용차 1천3백68대가 시속 60km의 속력으로 달릴때 드는 연료와 같은 양이다。

점보의 자체 중량만은 1백66톤이다。이륙이 가능한 중량은 3백51톤이고 착륙일 경우는 기름이 소모되어 2백86톤으로 5백명의 승객을 태우고 또 보잉707화물기에 싣는 만큼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다。

臺當 값은 4百억원

점보는 크기도 하지만 빠르기도 대한가지。최고 시속 9백30km까지 날 수 있다。공중급유를 받으며 이 속력으로 적도상공을 난다면 38시간만에 지구를 1바퀴 돌수있다。그러나 점보는 시속 3백20km이하로 감속하면 날지 못하고 그대로 땅에 떨어지고만다。따라서 이 속력에서 착지하고 스톱한때까지 비행기가 활주로상에 있어야 하기때문에 이에 필요한 활주로가 최소 3천2백m는 돼야한다。

점보가 최고 높이 뜰수 있는 고도는 1만2천m。그러나 기름이 적게 소모되는 경제고도는 약 1만m다。조종사들은 이만한 고도에서 東支那海를 뒤흔드는 태풍의 눈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경우가 많다。먼 훗날 中共이 원권을얻게되면 히말라야의 8천8백82m연봉을 눈아래 내려다보며 여행을 즐길수 있을는지 모른다。

점보는 자그마치 5백만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져 있다。작은 것은 50센트짜리 나사에서 큰 것은 3백50만달러나 호가하는 엔진까지 각양각색이다。또 4개의 엔진을 다시 분해하면 2만개의 부품이 나온다。이들 부품은 마모가 되건 안되건 일정한 비행시간이 경과하면 전부 갈아끼워줘야 한다。이중에서 가장 빨리 닳는것은 타이어。모두 18개의 바퀴는 1백20번 이·착륙하고 나면 새것으로 갈아줘야 한다。또 브레이크는 6백번 이·착륙후 바뀐다。

점보기의 값은 요즘시세로 약 4백억원이다。웬만큼 큰공장값이다。웬일로서 세계굴지의 항공사는 이기종을 1백여대나 보유하고 있고 JAL이 40여대、대한항공이 12대 갖고 있다。기자가 만났던 에어프리컴의 한중역은 82년도 자기회사의 대표가 점보기 1대를 들여오는 것이라고 어깨를으쓱해보였다。이정도로 점보기의 인기는 대단하다。【金首宗기자】

◇비행기의왕 점보가 이륙하는 모습。승객、연료、화물을 만재했을때가 3백50여톤。 관제사들은 『만삭의 여인이 달리는것같아 불안하다』고 농담을한다。

싱가포르、脫線學生들로 골치
學業중단하고 暴力團에 가담

싱가포르의 젊은 학생들이 학교를 퇴하하고 폭력조직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어나 당국의 골치를 썩이고있다。

싱가포르 문교부당국은 일부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들이 지하사회의 폭력단에 들어가 범죄를 일삼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학교당국의 어느 부분이 학생들로 하여금 범죄조직에 빠져들게 하는가를 가려내기위해 실증적인 사례연구를실시키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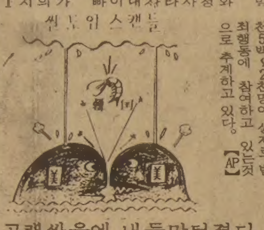
「3인조」로 알려진 싱가포르의 대표적 지하폭력단은 19세기전부터 중국계이민들에 의해 조직되었고 다른 조직들도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으나 오늘날 싱가포르의地下사회는 옛날보다는 많이순화된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남아있는 대부분의 폭력단원들은 절도범이거나 신문관매원、택시운전사、창녀、행상인들에 기생하는 착취배들이다。

최근 실시한 2천4백15명의 지하단원에 대한 개인기록조사에 따르면 이들중 91%가 14세이전에 학교를 퇴학했으며 지능은 최소한평균수준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교부의 한고위관리는 지하폭력배중 일부는 해외장학금을 받을정도의 지식수준이었다면서 『이들이 지능지수가 낮아 시험에 떨어져 사회를 저주하게됐을 것이라는가정은 빗나간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명의 심리학자와 1명의 사회학자、1명의 정신의학자에의해 작성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중 타의로 지하단체에 가담한 사람은 3·6%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어렸을때의 친구、이웃、직장동료들의 유혹에 빠져 범죄단체에 가담했다。

싱가포르당국은 현재 싱가포르내에는 대체로 1백명의 단원을 거느리고있는 37개지하단체가 존재하며 이중 1천5백~2천명이 실제로 범죄행동에 참여하고 있는것으로 추계하고 있다。【AP】



고래싸움에 내등만터졌다

【최길봉·서울마포구도화2동 428】

나의 이력서

金蘇東 ⑪ 〈題字·金蘇東〉

式典서 하모니카獨奏 感傷 돋구고
"法律배우겠다"父母설득 東京으로

『그렇지만 예술(영화)의꿈을 어떻게 짚신짝같이 버릴수야 있나』그것이 서울을 떠나던때 나에게 준 마지막 李箱의 대사다。정든 교우들과 아쉬운 결별을 나누고 벚꽃나무가 양쪽으로 늘어선 화동교사를 떠나는 날이 왔다。졸업식날 강당무대에 올라가 하모니카 독주를 멋지게 해서 전교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숲속의 대장간」이 第一高普를 떠나는 마지막 고별이었다。당시 하모니카 명수로 불리던 나의 능숙한 솜씨가 감동적으로 강당의 분위기를 사로 잡았다。경쾌한 곡이 오히려 졸업이라는 感傷을 더욱 촉진시킨것 같다。트레몰로의 음률이 고요한 대강당속으로 울려퍼질때 어느 학우는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1932년 아직도 쌀쌀한 봄날 정든 화동교사를 뒤돌아보며 푸른 꿈을 안고 우리들은 교문을나섰다。화동이여、팔판동이여、소격동이여 잘있거라。정든 거리와 꿈을 불사르던 골목들과 작별을 아쉬워 했다。안국동 호떡집이나 청진동 계란빵집은 무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곳들이다。

안국동에서 청진동으로 빠지는 길목에 친우 晴江 金永基(동양화가)학우의 집이 있었다。하학후 하숙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끔 들려서 晴江의 아버지인 海岡 金圭鎭선생의 서예와 四君子의 산실을 참관하곤 했다。지금생각해볼때 一高를

高普 졸업

나온 동창중에서 오직 晴江과 나만이 예술의 길을 택한 유일한 동창같다。晴江은 그후 北京대학에서 동양미술을 전공했고 현재 낙원동에 동양미술연구소를 설립해서 새로운 한국화연구에 몰두하고 있다。마음속으로 늘 경애하는 친구다。

얘기를 졸업때로 다시 돌리기로 하자。

金處郁、李東根과 같이 청진동골목에 들어서서 그들을 길목에 세워놓고 晴江의 집에 들러서 작별인사를 나누고 나왔다。내가 서예의 매력을 느낀 연유이기도 하다。海岡 金圭鎭선생의 글씨는 남한전역의 사찰에 남아있다。지금도 유명사찰을 찾을때마다 감개무량하게 그 고고한 필치에 경모의 정을 알뜰하게 느낀다。晴江이 그의 독특한 필치로 새우그림한폭을 어느해 봄에 보내왔다。내 서재에 걸어놓고 추억과 우정의 그리움을 늘 느낀다。친우들과 같이 청진동 계란빵집까지 와서 다가올 내일을 약속하면서 이들과도 헤어져야했다。경성제국대학 법률학과를 나온 이동근과 경성법학전문학교를 나온 김처욱은 환해도 안악과 재령으로 돌아갔으나 지금은 그 생사를 알길이 없다。오래된 꿈과도 같다。

졸업후 내가 동경으로 가야만했던데는 복잡한 사연이 깃들어있다。부모님은 경성제국대학에 입학할 것을 염원했다。그당시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으로 생각한것은 사실이다。왜냐하면 반도에서는 제일 권위있는 배움의 전당으로 신봉되었기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았다。남보다 빨리 해외로 도약해야 한다는것이 내 꿈이고、내 이상이기도 한 까닭이다。동경을 거쳐 미국으로 흑은 브라질로 가서 내 가슴속에 잠재한 꿈을 이루어보자는 것이 그때의 내 속셈이었기때문이다。

해외로 웅비해보자는 꿈을 실천에 옮겨보자는 학생이 나말고 또하나가 있었다。故 金在龍이다。김군과 나는 늘 행동을 같이했고、또 늘 같이 다니면서 꿈을 속삭였다。지금생각해보면 실현되기 어려운꿈이련만 당시의 야망은 왜 그리 부풀었는지 모를일이다。꿈이 현해탄으로 줄달음치던 그 소년의 모습들을 아련한 추억속에서 찾아본다。

엄친께서는 내 포부와 꿈에 찬동하셨다。명목상으로는 우선 법학을 전공한다는 간판으로 동경유학에겨우 합의를 본것이다。

下關에서 동해도선을타고 동경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흰 물결이 세또나이까이바다에서 모래밭위로 밀려왔다。마치 내 미래의 꿈들과도 같았다。차창밖으로 흘러가는 일본의풍물들을 보면서 우울안 개구리를 벗어난 해방감을 맛보았다。

기차는 휘황한 불빛들을 스치고 캄캄한 관서지방을 질주하고 있었다。

각가지 서울의 추억들을 되씹어보며 내가 서야할 땅을 마음속에서 찾아보았다。월 30원의 학비를 보내주시겠다며 나를 전송해주시던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법률학을 전공해야 하고 또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야한다는 엄친의 당부가 귓가에 맴도는듯했다。

◇晴江 金永基화백이 지난80년 초여름에보내준 새우그림。동창생중 예술의 길을 걷고있는 사람은 晴江과 나뿐이다。

千字春秋

「耽羅史料志」

柳炯鎭 〈大韓敎聯 회장〉

濟州道敎育委員會가 조국광복 36주년 기념사업으로 지난연말에 펴낸 耽羅史料志는 근래에보기드문 快擧로서 학문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대서특필할 가치가 있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릴때 비로소 새로운 역사의 창조는 가능하다고 하거니와、耽羅史料志는『耽羅先人이 남기고간 遺香을 발굴하고 그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이를 거울 삼아 향토의 무궁한 융성을 꾀하려는데』그 의의가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三國史記 高麗史 王朝實錄등 正史에 기록된 내용가운데 濟州道에 관계된것을 拔萃하여 국역한것이 바로 이책인데、이것은 앞으로의 역사교육은 물론이요、국민정신교육에도 좋은 자료가될것으로 믿는다。

그 발간사에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듯이、耽羅先人들이 絶海의 돌과 바람과 파도뿐인 火山島의 가혹한 생활조건과 끝까지 싸워서 오늘의 아름다운 낙원을 이룩해낸 강인한 개척정신과、처절하다고 할이만큼의 自立自助의 생활태도등을 제주도의 많은 신화와 전설과 민요등에서 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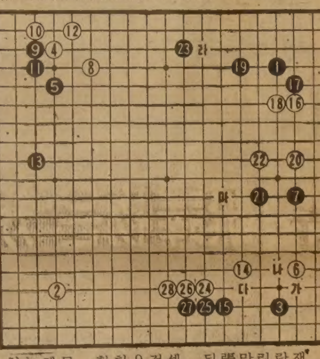
사업으로써、옛 조상들의 염원과 포부와 정서와 의지를 다음 세대에 계승시켜 나간다는 것은、비단 濟州道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의 교육에서 강조해야할 교육철학의 근본원리이다。

또한 앞으로 내외로 부터의 시련과 도전앞에서 이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려면、강한 우리의식과 민족의 얼을 젊은이들에게 심어 주지 않으면 안된다。우리는 한국인이며、반만년의 긴세월 동안 고락을 같이하며 이 땅에서 살아온배달민족의후손이라는자각과긍지를말이다。

삼천리 반도 방방 곡곡은 우리 조상들의 땀방울이 스며 있는 곳이며、조국의 수호를 위하여 조상들이 피로 물들인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젊은 학생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어디를 가나 조상들의 거룩한 발자취와 뼈가 묻혀 있다는 것을 한 시도 잊을 수가 없다。그리고、우리의 자손들도 우리의 뒤를 이어서 이 땅을 길이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 나가도록 하는일이야 말로 오늘날의 국민정신교육의 과제일뿐만 아니라、모든 교육자와 사회의 지도층이 명심해야할 일이다。

第13期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5局 第2譜 1~28 (각5시간 덤5집반)



白 (4段) 姜 勳 〈3勝0敗〉
黑 (7段) 河燦錫 〈2勝1敗〉

이바둑의결과는 본인들은 물론、현재 4명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된다。姜4단이 승리하면 4승무패로 혼자 앞을 달리지만 질경우는 이두사람과 徐奉洙7단、張秀英5단등이 모두 3승1패동률이 되는것이다。

본선리그戰중 최대의고비를 맞이한 셈인데 그것보다 지금은 전보의속제거리부터 풀어보기로 한다。좌상귀黑9의수로 우하귀의 白6을 적극공격한다。해설자 趙8단은말

『여러가지중에서 黑9를「가」에 모붙임하여 白「나」때 黑「다」로선제공격을 가하는 수도 있지만 그결과는 미지수이고 첫째 바둑의양상이 전혀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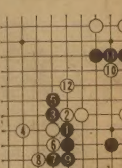
그것은 그렇고 姜4단은 결국 白14로 보강해놓고 白16에걸쳐 이하22까지 여기도 정석같은 형으로 처리했다。

孤立된 右邊黑軍

河7단은 바둑의 흐름을 타듯이 하고 지체없이 상변에 黑23。白「라」를 예방하여 큰곳이다。

하지만 국후평에서는 異論이 많았다。『黑23은 우변을 계속하여「마」자리에 뛰어야 편했을것같다。23으로 집차지에 구애된때문에 白24가 너무도 준엄했다』는 것이다。

다음 黑25。이수로 참고도 黑1、3처럼 저항하면 이하 白12까지 되어 우변黑11쪽 3점이 미생마로 되기쉽다。그래서 실전과같이 黑25이하로 두었는데 과연 어땠을까。【一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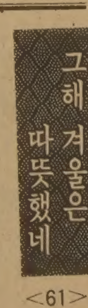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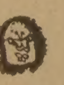
"오늘 생각해보니 지붕을 꼭 고쳐야겠더군"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않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구" "그럼 이제 그렇게 하실거군요?" "아나,생각이 거기에 미치기전에 멈췄어"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61>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숨바꼭질 ㊽



그렇게 되니 밤이 늦었다는 사양 같은게 통할리 없었다。저녁대접이라도 하다못해 차린도 한잔 하자면서 모녀는 목이를 집으로 떠다밀었다。

미순이의 집 대문도 삐걱하고 열렸다。근심에 잠겨있던 할머니와 아버지와 동생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돌아온 미순이를 야단도 치고 반가와도 했다。골목에서 있었던 환영의 법석이 마루끝에서 또 한바탕 벌어졌다。

목이는 비켜서서 조금 눈물이 났다。돌아온 식구를 반기는 그집사람들 때문이 아니었다。장독대가 있고 빨래줄이 있는 마당을 가운데두고 ㄷ자로 오므린 한옥이 그녀를 폭 감싸안는 것같은 형언할수 없는 평온감때문이었다。화강암 댓돌에 흩어진 크고 작은 신발들、유리창으로 된 분합문을 통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마루의 구식 뒤주와 신식 찬장、마루로 면한 안방 건넌방의 창호지문、부엌 부뚜막에 걸린 크고 작은 양은솥과 시커먼 김치찌개냄새。이런 사람 살아가는 모습의 정다움때문이었다。그건 애사 정다움이 아니라 바로 옷그저께까지 그녀의 것이었던양 그녀를 반기고 편안히 맞아들이는 정다움이었다。

옛그저께 일리는 없다。그럼 그보다 전、아니 훨씬 전일일까? 그러나 그녀가 기억하는 한 그녀의 생에 그런 것들이 지나간 일은 없다。

그녀의 기억에 의하면 그런 것들은 초면(初面)임이 확실했지만 기억과는 또다른 느낌 혹은 지필에 의하면 그건 구면이었다。

목이는 그 불가사의한 정다움을 규명하기위해 자꾸 머리를 흔들어보았다。언제였더라、언제였더라? 언제 그러나 또 한바탕의 법석을 치르고난 식구들에게 목이는 또다시 생명의 은인으로 나인 찍히고、거기 합당한 대접을 받기위해 안방으로 끌려들어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목이를 선생님이라고 공대할때부터 집작한대로 그집 식구들은 다 순박하고、부모도 교육열만 덮어놓고 높을뿐 자신의 학력은 별로 높아보이지않았다。그들은 후기학교에 미순이를 지원토록해야한다는 목이의의견에 두말없이 찬성해주었다。특히어머니는 진작이렇게 자상한진학지도만 받았어도 결코그런 무리한 지원으로 아이가슴에 멍들고 온식구가 혼비백산하는일은 안당했을것이라고 목이를 일찍 못만난걸아쉬워했다。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이 들어오고 그걸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흉허물없이 하는 사이에 목이가 보기보다는 나이도 자긋하고 혈혈단신의 고아원 출신으로 드물게 독학으로 대입검정고시를 준비중이라게 알려졌다。식구들은 목이가 얼굴이 빨개지도록 감동을하고 칭찬을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면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저런 선생님이 미순이 동생들 가정교사로 들어오면 좀 좋겠느냐고 넌지시 눈짓을했다。아버지도 미순이 실수를 거울삼아 동생들은 일찌거니 성적을 다 잡아 놓아야 할것같다고 맞장구를 쳤다。

과일을 먹으면서 미순이도 목이한테 언니가 친언니면좋겠다고 어리광을 부렸다。목이 보기에 안방 아랫목의 조각 이불도 칠 벗겨진 흑자반(舍子盤)밥상도 어제 그제 아니 그보다 훨씬 전에 거기서 살았던 것처럼 낯익고 정다왔다。

차 마시고 과일까지 먹고 나니 이미 통금을 넘긴 시간이었다。

성령교회 유월절대성회 1982.4.2~13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무론하고 애굽나라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땅을 칠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찌라 내가 피를 볼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찌니라.(출 12 : 12~14)

내가 너희에게 전한것은 주께 받은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때 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때 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전 11 : 23~26)

너희는 누룩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으로 하자. (고전 5 : 7~8)

세례(침례)는 양심의 악을 깨닫고 예수를 구주와 그리스도로 모셔 드리시는 분은 누구나 언제든지 받을 수 있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행 2 :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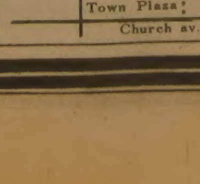
유월절은 최상최대의 명절이며 모든 위성절기의 태양입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 십자가 수난의 상징이며 인류속죄구령의 보증입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 탄생의 완성이며 당신의 신부교회 해산입니다. 유월절을 먹고 마시는 이에게 영혼의 쾌락이 소생하고 영생의 소망이 생동하며 평강의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뜻깊은 명절을 맞이하므로 신령한 하늘의 은사를 체험합시다.

〈유월절 대성회 일정표〉 담임목사 김 관 선

순서	월 일	요일	내 역		집회시간	설 교 내 용
1	4월2일	금	유월절양 준비	회계 와 세례	오후7시반	유월절 양준비와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2	3일	토			오후7시반	유월절양 선택과 그리스도인의 성결
3	4일	일			오후2시	누룩제거와 그리스도의 성전정화
4	5일	월			오후7시반	유월절양의 만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고난
5	6일	화	유월절	성만찬	오후7시반	구약의 유월절과 신약의 유월절
6	7일	수	무교절	말씀과 기도	오후7시반	구약의 출애굽과 신약의 출애굽
7	8일	목			오후7시반	"숙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행오
8	9일	금			오후7시반	바로의 변심과 질투
9	10일	토			오후7시반	불과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광야교회의 하나님
10	11일	일			오후 2 시	바로의 추격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11	12일	월			오후7시반	모세의 이적과 여호와의 영광
12	13일	화			오후7시반	이스라엘의 개가와 무교절끝날 축제

집회장소 : 성령교회

379 Kenneth Ave. Willowdale



◇그레이스·켈리

「王妃생애」映畫化에 쐐기

모나코 그레이스、美 두TV에 반발

옛동료에 로비活動

○…그레이스·켈리 모나코 왕비의 생애를 TV영화로제작하려던 美ABC·TV와 CBS·TV는 환영하기도 전에 본인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아 주춤한 상태。ABC와 CBS는 서로 밤 영입자를 앞당기고 촬영을 빨리 끝내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정작 이야기의 주인공 그레이스왕비가 이 계획에 정식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레이스는 자신의 전기반영설이 나돌자 프랭크·시내트러등 할리우드의 옛친구들에게 손을 써 영화를 만들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있다。

사생활의 공개를꺼리는 그레이스왕비는 영화를통해 과거가 드러난뒤 받을 이미지 손상에 대해 격분을 금치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CBS가 만들 영화에는 레이니에왕이 그레이스와 만나기전 선박왕 오나시스가 마릴린·먼로와의 결혼을 주선하려했다는 사실이 폭로될 예정이어서 그레이스왕비는 몹시 못마땅해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演芸

가장 개성있는눈은 데이비스

美검안협회 選定

○…美 검안협회는 세계에서 가장 특색있는 눈을 가진 연예인을 선정했는데 여배우 베트·데이비스가 단연 톱텐에 올랐다。그의 날카로운 눈은 강한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는게 검안의사들의 일치된 의견。

발레댄서 미카일·바리시니코프는 선정된 2명의 남자중 단 한사람으로『그의 예술과 창조적인 영혼을 반영하는 감성적이고 생각에 잠긴 거울』이라는 평가였다。

또 브루크·실즈는 부드럽고 환상에 젖은 눈이 힘과 개성을 감추고 있으며 라이저·미넬리의 눈은 경이와 장난스러움이 결합되었고 골디·혼의 눈은 순결과 유머를 겸비한 작은 소녀의 눈매를 지녀서 특색있는 눈을 가진 사람의 대열에 끼었다。

엘리자베스·테일러는『환상적이고 매혹적인 보라빛눈을 가졌고』제인·시무러의 눈은『마력과 신비를 갖추었다』고 평가되었다。【外紙】

배우人名錄에 헨리폰더 百45번 수록

45년간 百50版발행

○…1937년 美영화술과학 아카데미가 처음으로 배우인명록을 발간한 이래 지금까지 1백50판을 찍어냈다。그런데 45년전 발간된 책에 등록돼있던 1천8백명의 배우중에 지금까지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은 26명에 불과、스타가 명멸함을 여실히 증명해준다。이들중 우리에게 알려진 배우는 존·폰테인、헨리·폰더、미키·루니를 꼽을 수 있을 정도。

1백50판이 나온동안 이 인명록에 한번도 빠짐없이 기록된 배우는 없다。헨리·폰더가 1백45번 수록되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는 아들 피터와함께 등장하기도 했다。【外紙】

새봄 할리우드에 로맨스滿發

施賞불참하고 여행

○…봄을 맞은 할리우드에 로맨스가 만발하고 있다。버트·레널즈가 애인 토니·리틀을 버리고 스타 로니·앤더슨과 교제중인가 하면 가수 마리·오스먼드가 TV극「듀크스·오브·해저드」의 존·스나이더와 염문을 뿌리고 있다。또 캘리포니아 제리·브라운주지사와 염문이 있었던 탤런트 신디·윌리엄즈는 골디·혼의 전남편인 가수 빌·허드슨과 결혼한다는 소식이다。

로니·앤더슨은 골든·글로브상 수상후보로 지명되었으나 시상식에 불참、레널즈와 하와이에서 나흘간의 여행을 즐겼고、골든·글로브시상식에서 나란히 노래를 불렀던 스나이더와 오스먼드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LA지사】

◇『진하게 사랑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現代의 청춘상을 표현하고싶다』는 「장희빈」의 柳仁村·李美淑콤비。

첫 共演이 「미움받는 役」이지만…

史劇은 섬세한맛 없어도 무게있어

우리는 콤비

MBC「장희빈」 柳仁村·李美淑

시청자들로부터 가장 미움받는커플。「장희빈」(MBC·TV)의 柳仁村(32)과 李美淑(23)콤비는 우유부단함과 표독스러움 때문에 시청자들의 거센 항의에 시달린다。

『비록 극중역할이지만 시청자들의 미움을 받는다는게 마음이 편하지는 못해요。한편으론 그만큼 시청률이 높다는걸 말해주기 때문에 뿌듯한 감회를 느끼지만요』

둘이서 같이출연하기는「장희빈」이 처음。그러나 오랫동안 살아온 친근한 애인처럼 호흡이 잘 맞는다고 털어놓는다。

『글쎄요、밉음 때문이랄까요。같이 연기를 하더라도 부담스럽지않아요』이들의맞장구다。『남자는 여자의 미모에는 무척 약한가봐요。절대군주도 미모에는 어쩔 수 없는 걸 보니까요』

아직「사랑」이란 걸 체득해보지 못한 노총각 柳仁村은「장희빈」을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사랑의 의미를 알게되었다고 말한다。

『장희빈이란 역사 속의 인물에 대해 처음 알게됐어요。일반적으로 표독스럽고 영악한 여자로만 알려져있지만 실은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표독스러워진 거죠。새삼「사랑」의 무서움을 깨닫게 됐어요』李美淑의 고백。

사랑을 해보고 싶다는 고백。

사극에 처음출연하는 李美淑은 사극이 섬세한 맛은 없어도 깊이와 무게가 있다면서 대사가 무척 어려워해도 사극을 통해 역사공부를하고 역사의식을 갖도록 노력한다고。왕역할을 하기는 처음이라는 柳仁村도 『군주는 風林火山같아야 한다』고 나름대로의 견해를 피력한다。군주는 바람(風)처럼 날쌔고 수풀(林)처럼 두텁고、불(火)처럼 뜨거워야하며 산(山)처럼 무거워야한다는 지론이다。진하게 사랑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現代의 청춘상을 표현하고싶다는 이들 콤비는 대중의 영원한 靑春으로 남아있기를 원한다。【秀】

◇아슬아슬한曲藝…2층자전거

묘기대행진에서나 볼수있었던「2층자전거」가 차도를 질주하고있다。최근서울시내에서 간간이 눈에띄는 이 자전거는 사용자들이 스스로용접해만든 사제품(私製品)。자전거를 탄 30대남자는 장바구니를 싣고 휘파람까지 불며 신명나게 달리고 있지만 보는사람은 아슬아슬하기만하다。【6일하오 서울江南區淸潭洞에서·독자任成津씨(32·江東區城內洞)제공】

봄이 오는날

누가
실비를 내리고
하늘문을 열고
꽃물을 쏟는가

살풋이
아침이슬 벌어
얼굴씻고
하늘과 땅이
홍조를 띠어
물안개속에
촉촉이 서다

아카시아
가는가지 끝에
봄 입김이 스며들다

황토밭 위로
주홍빛 하늘이
손짓에
풀어나다

연록색
팔랑팔랑
하늘문이
트인다。

【崔善姬·서울은평구 응암동37의50】

"가네히라 黑幕은 사실"

한국측 결정적證人 崔承哲씨 밝혀

藥物피해 확인되면 告發

당사자들은 核心말안해

◇記者회견하는 崔承哲씨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있는 崔承哲씨(왼쪽)。崔씨 옆으로 梁正圭회장 趙賢成 사무국장 金煥珍선수 金賢治트레이너 全沿然 매니저등이 굳은표정으로 앉아있다。

가네히라(金平正紀)스캔들의 결정적증인으로 알려진 崔承哲씨(41·金龍鉉선수의 前매니저)가 15일 입을 열었다。그는 가네히라의 비행을 폭로한 週刊文春의기사가 사실이라고 거듭 밝히고 가네히라의 약물주입기도에 의해 한국선수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日本사직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필리핀에 머물다가 13일밤 귀국한 崔씨는 기자들에게 가네히라 흑막의 전모와함께 한국프로복싱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날하오 뉴서울호텔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이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가네히라 파문의 진상을밝히기위해 열린 기자회견에는 가네히라 약물파동의 직접적 피해자로 보도되었던 金龍鉉선수를 비롯하여 당시 金선수의 매니저崔承哲씨、트레이너鄭英華씨、金煥珍선수와 코칭스태프(全沿然매니저 金賢治트레이너)가 참석했으며 한국권투위원회(KBC)에서 梁正圭회장、黃宗洙부회장、趙賢成사무국장등이 배석、약 50분간에걸쳐 기자들과의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최초로 약물중독사건을 발설했던 柳濟斗선수(前WBA주니어미들급 챔피언)의 당시 매니저 姜錫雲씨와 트레이너金德八씨도 배석했다。柳濟斗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회견도중 崔承哲씨와 金龍鉉선수는 의견충돌로 몇차례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으며 金선수의 아버지 金權濟씨는 崔씨와 鄭英華트레이너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고함치기도 했다。

권투계와 매스컴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베일에 가려있던 상당부분이 드러날것으로 기대했으나 당사자들이 핵심을 피한채 횡설수설하는바람에김빠진회견이되고말았다。

崔씨는『가네히라의 비행을 입증할 모든 자료를 1억원에 내놓겠다』고 했던 자신의 14일 발언에 대해『기자들에게 농담으로 말했는데 기사화되었다』고 해명했다。

金龍鉉-도까시끼 대전을 앞두고 金이 오린지 주스를 마셨는가에 대해서는 金과 崔承哲씨 鄭英華트레이너의 진술과 週刊文春의 기사내용이 엇갈려 앞으로 논쟁의 불씨가 될것 같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國內선수 더이상 被害없게 폭로결심

鄭英華씨 진술달라 論爭여지

-절친했던 사이로 알려진 가네히라씨와 결별하게된 이유는。

▲崔=가네히라와는 친하지 않았다。스승인 세끼·미즈노리씨가 가네히라와 친해 나를 소개시켜 주었다。그래서 2번정도 도움을 받은적이 있다。도까시끼와 金龍鉉의 대전전에 金의 체중조과를 양해한다고 했었다。그러나 현지에가니 체중도 봐주지않고 글러브도 8온스짜리로 하자는등 약속을 위반했다。그때부터 비양심적인 인물로 보고 결별하기로 마음먹었다。

-日本 週刊文春誌에 협조하게된 동기는。

▲崔=日本기자들이 찾아와 약물공작의 증인들이 日本에 있다고해 전화통화로확인했다。日本쪽 증인들은 가네히라의 사무실 종사자들이었다。우리나라 선수들이 日本에가서 더이상 피해를 입지않도록 하기위해 週刊文春과 같이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도까시끼와의 대전때 金龍鉉선수의 컨디션은 어떠했나。

▲金=경기전날 호텔근처 가게에서 딸기·사과·멜론을 사서 가게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다음날 계체량이 끝난후 먹었다。

대기실에서 崔매니저에게 힘이없고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말했다。

링에서 싸우는데 다리에힘이없어 崔씨에게 계속 물을 끼얹어달라고 말했다。(이때 崔씨는 金이 동양타이틀전을 치른직후였고 도까시끼 대전에 무리한 감량을 했기 때문에 힘이없어서 그랬을것이라고 한마디)

▲金=도까시끼와의 대전날짜는 동양타이틀을 직후여서 시일이 너무 짧아 휴식이 필요했다。그래서 崔씨를 피해 다녔으나 崔씨는 이번 경기에 응하지않으면 동양타이틀을 도박탈당할지모른다고했다。

-스승을 위해 대전에 응했나。

▲崔=세계타이틀에 도전할 기회를 잡기가 무척 힘들다。도까시끼에게 이기면 세계타이틀에 도전할수 있는만큼 도까시끼와의 대전은 꼭 했어야했다。

-가네히라로 부터 1만5천달러를 받은적이 있는가。

▲崔=사실무근이다。鄭巡鉉의 동양타이틀전때 日本에간 모국내인사가 鄭에게줄 돈이 있었는데 내가 세끼·미즈노리씨에게 6천달러를 빌려주었다。이돈은 아직 세끼씨에게 갚지않고 있다。

-鄭英華트레이너가 보기에 金선수가 약물에 중독됐을 가능성은。

▲鄭=전혀 없다고 본다。

호텔 시설도 별로 안좋고 음식도 좋지않아 근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과일등은 호텔냉장고 시설이좋지않아 보관해놓을수도 없었다。

▲金=틀림없이 호텔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다。

한국인최초 5월 도버해협 挑戰하는

權熙凡후원회 發起

오는5월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도버해협에 도전하는 윈드·서퍼 權熙凡씨(29)를 지원하기위한 후원회 발기식이 15일하오 서울플라자·호텔에서 베풀어졌다。

80년10월 대한해협을 윈드·서핑으로 횡단했던 權씨는 오는 5월11일께 英佛사이의 도버해협횡단 모험에 오른다。

1천여만원의 경비가 드는 도버해협횡단 계획은 열렬한 윈드·서핑애호가인 한국바이엘약품의 西獨人 라인하르트·바우어씨(37·한국바이엘약품 공동대표)의 뒷받침으로 이루어지게된 것이다。라인하르트씨는 泰國서 열린 4개국 아시아·레이스서 3위 입상경력을 가졌다。그는 한국인의 첫 도버횡단과 한국내의 윈드·서핑보급에 큰 관심을 갖고있다。

北傀대표 玄峻極등 日、入國 허가방침

【東京=梁泰鎬特派員】일본정부는 현안문제인 韓日漁協문제가 타결되자 玄峻極을 단장으로한 북괴어업 대표단의 입국을 허가할방침이다。

駐日대사관은 일본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16일하오 작년6월말 東京을 방문한 玄峻極이 입국조건을무시하고 정치적발언을 했음을 지적、북괴어업대표단의 입국을 허가하지 말것을 일본외무성에 요청하고 북괴 어업대표단의 일본 입국으로 말미암아 한일간의 우호협력에 금이가지않도록 할것을 강조했다。

일본정부는 북괴와 2백해리 전관수역내에서의 어업문제를 다룬 日·北韓간의 민간어업협정이 6월30일로 끝나기 때문에 玄峻極의 일본 방문을 허가하는등 북괴에대한 추파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玄을 단장으로한 북괴어업 대표단은 3월17일부터 10일동안 일본을 방문、어업협정을 위한 사전협의를 하겠다고 입국목적을 밝힌바 있다。

日 노장마라톤大會

李德圭 20km서優勝

한국의 李德圭씨(65)는 14일 日本구마모또縣에서 열린 日本전국 노장 마라톤대회 20km에서 1시간22분12초로 우승했다。

어머니代表 농구

京都팀에 逆轉勝

【東京15日=聯合】日本을 방문중인 한국어머니농구팀은 14일 하오 교오또(京都)시내의 체육관에서 京都어머니팀과 친선경기를벌여 42-41로 역전승했다。

한국어머니농구팀은 전반전에서 22-24로뒤졌으나 후반들어 20-17로 역전승、토탈 42-41로 힘겹게 이겼다。한국어머니팀은 17일 도오교어머니팀과 경기를갖는다。

流星의 賊 <333>

李炳注 作 李友範 畵

風前의 燈火 ⑧

신립이 도순변사가 되었다고 들었을때 홍계남이 이영에게

『어쩌자고 신립장군을 그런 요직에』

하고 얼굴을 찌푸렸다。

『왜?』

이영이 되물었다。

『신립장군은 무모한 장군입니다。게다가 졸(卒)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병사가 장수에게 심복하는 데가 없으면 전쟁은 무모한 것으로 됩니다』

『그래도 신립장군은 공적이 많은 명장으로 소문난 장군이 아닌가』

『이일장군은 소문난 명장이 아니던가요?상주가 패했으면 필연코 조령에서의 싸움이 될 것인데 치밀한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나는 신립장군에게 그런 전략이 있을 것 같이 믿을 수가 없는데요。일단 조령에서 판가름을 해야 할겁니다。거기서 지구전략(持久戰略)을 써야죠。조령에서 버티고 있으면 적은 반드시 딴곳에 활로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그 활로로 예상되는 곳에 복병을 매복하는 겁니다…』

홍계남은 울울한 가운데 주야로 머리속에 그려온 자기의 전략을 피력했다。

그리곤 조방장(助防將)의 계급으로 신립군에게 편입되었으면 한다는 희망을 말했다。

『홍군이 말했듯이 신립장군은 고집이 세다고 하잖는가。그 고집 센 장군이 홍군의 전략을 호락호락 들어주겠는가。자칫 잘못하면 통수권의 문란이니、명령불복종이니 하는 명목으로 생명을 잃기가 고작일것이니 잠자코 있기나 하게。지금 조정에선 몽진의 의논으로서 한창이다』

『적이 아직 조령의 저편에 있는데 무슨 야단입니까』

『아니다。임금은 잔뜩 불안한 모양이다。홍군의 말을 꺼낼까 했지만 몽진할 그날、그 시각까지 덮어두기로 했다。괜히 엉뚱한 곳으로 찬출되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싶어서』

그러나 계남은 이영의 말을 듣고만있을 것이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임금을 직접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과 직접 싸워 그들의 예봉을 꺾어 놓는것이 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느껴졌다。그는 신립의 군에 참가하지 못한것이 한스러웠다。

조령의 지형 지물을 잘 알고 있는 계남은、응당 우리가 조령을 고수할 것으로 알고 대책을 짰을 적의 허점을 찔러 성공을 거둘 자신이 있었다。이럴 경우엔 이렇게、저럴 경우엔 저렇게 하는 임기응변하고 신속유연한 전법이 다음다음으로 뇌리를 스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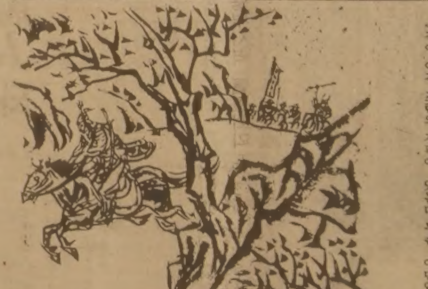
하지만 그건 공상이었다。총대장 아닌、하급의 군관으로서 그저 해보는 공상에 불과했다。

『신립장군의 진퇴를 보고 곧 임금의 행차가 있을 것같으니 그리 알고있게』

하는 말을 남겨놓고 이영은 떠났다。이 무렵 신립은충주에 진입하고 있었다。그가 거느린 군사는 약 8천명、대개가 충청도 군현의 병사들이었다。

그는 먼저 단월역(丹月驛)으로 나아가 주력부대를 주둔시키고 충주목사 이종장과 조상관 김여물등을 거느리고 조령으로 가서 지형과 지물을 정찰했다。

그러기에 앞서 신립은 단월역에서 이일을 만났을 때 상주 패전의 책임을 물어 고참(斬)하여 본보기로 삼을까 했었는데 곧 그마음을 바꾸어 싸울기회를 주기로했던 것이다。



제7회 미인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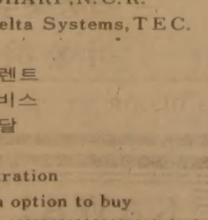
●신청마감 : 1982년 4월10일 하오 5시
●제 출 처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SBS Specialized Business Systems Limited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PANASONIC, SHARP, N.C.R.
Sweda, Victor, Delta Systems, TEC.

◎판매, 써비스, 렌트
—Same day 써비스
—pick up & 배달
—Paper Rolls
—Free demonstration
Rent on lease with option to buy

◎2년간 보증.



☎ : 252-7377

822 The Queensway
(퀸스웨이 × 이슬링톤)
— 하비 햄버거앞 —

가격 $ 595.00
(2년간보증)

DOMINION SMALLWA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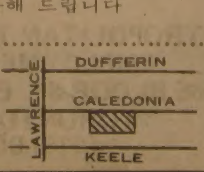
Cash & Carry에 한함

* Mar.22 - Apr.3 *

(Chocolate)		
Black-magic	1 lb.	$ 3.75
Black-magic	½ lb.	2.05
Dairy box	1 lb.	3.45
Dairy box	½ lb.	1.89
After eight	390g	2.45
After eight	200g	1.50
Wilson pop		5.49
Life-saver lollipop	12x10¢	7.59
F.B.I. pure apple juice	10oz.	7.99
Cleenex	72x100	33.49
Pocket cleenex	12x12	14.55

Victoria day에 필요한 Fire Cracker를 다량입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40% Off, Cash & Carry는 Additional 7% Off)으로 봉사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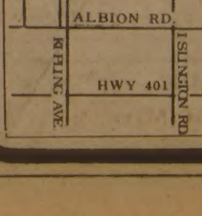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시계및귀금속 수리
(M &J WATCH JEWELLERY REPAIR)

안녕하십니까?
각종 팔목시계와 귀금속(금줄, 팔지, 반지) 일체를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 정확히 수리해 드립니다.
마 능 욱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과 ALBION)



TEL :
742-1205(B)
745-1632(R)

국민교 선생님도「滿員」

敎壇없는 敎師 올해 2천5백명

처우개선·不況에 離職줄고 농촌零細학급 統廢合 원인

국민학교선생님이 남아돈다. 15일 문교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에도 교단에 서지못하는 국교교사가 줄잡아 2천5백여명에 달해, 50학급규모로만 따져도 50여개학교를 따로 세울만한 선생님들이 실직상태에있는 형편. 이같은 잉여교사의 누적현상은 얼마전까지만해도「교사양성소」까지 만들어「교사난」에 대처하던 때와 비교하면 정반대의 행복한 고민이라고 할수도있으나 장기적인 교사수급정책에서 볼때 교사난 못지않은 문젯점을 던지고 있는것이다.

"임기응변식 敎員수급政策 시정해야"

최근 국민학교교단이 이처럼 이례적인 만원사례가 된것은 문교부가 지난몇년동안 도시와 농어촌간의 학생증감 추세와 이에따른 교사양성을 잘못 추정한데다, 인건비를 줄이기위해 영세학급을 대량으로 통폐합시켜 한꺼번에 교사들의 일자리가 줄었기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들어 교사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사회적 지위가 향상될 전망인데다 경기불황등의 이유로 교사들의 이직률이 현저히 떨어진것도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꼽힌다.

문교부에 의하면 올해 새학기에 국민학교교사가 가장 많이 남아도는 지역은 서울등 대도시로 서울의 경우 올해 교대 졸업자 5백81명중 73%인 4백28명과 지방교대출신중 서울로 배정받은 2백40명등 교대출신자만 6백68명이 임용에서 제외됐으며, 지난 80년에 순위고사로 채용된 3백명도 3년째 발령을 못받아 모두 9백68명이 실업상태를 면치 못한채 무한정 대기상태에 있다.

서울시교위 관계자에 의하면 교대졸업생이 졸업한해에 임용발령을 받지못한예는 이번이 처음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것이다.

다른市·道지역도 사정은같아 심한 인사체증 현상을 보이고있는데 경기도의경우 仁川교대출신을 포함 6백47명이, 충북은 淸州교대출신 1백50명전원, 충남은 公州교대출신중 2백42명과 경남의 80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각각 미발령상태로 교단에 서지못하고 있어 전국적으로는 금년한햇동안 퇴직교사들의 빈자리를 메우고도 줄잡아 2천5백여명이 남아도는것으로 집계됐다.

국교교사 임용사정이 이처럼 악화된것은 문교부가 특히 농어촌 영세국민학교에대해 지난해 과감한 통폐합조치를 했기때문인데 당국은 이미 신학기가 시작되기전까지 전국적으로 1천6백97개의 영세학급을 폐지, 그숫자만큼 교대 졸업자등의 신규임용이 억제됐다.

문교부가 최근 밝힌 농어촌학교의 영세화 실태조사에 의하면 현재 6학급이하의 영세학교가 39·4%나 되며 매년 6만7천명의 학생이 도시로 빠져나가 농어촌지역에서만도 매년 1천2백곳의 교사일자리가 줄어드는것으로 돼있다.

그밖에 교사들의 이직률은 예년평균 4~5%선 것이 지난79년부터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 작년에는 불과 2·9%로 절반정도까지떨어졌다.

지금까지 이직률이 가장높았던때는 69년으로 8·6%였고, 79년의 이직교사수 4천6백5명(3·9%)이 80년엔 4천1백50명(3·4%), 지난해엔 3천6백14명(2·94%)으로점점떨어지기 시작했다.

한편 문교부는 이같은 잉여교사 누적현상에 대해『교육세 신설에따라 대도시의 과밀학급, 과대학교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남아도는 교사전원이 곧 교단에 설수있게될것』이라고 낙관하고있는데 일선교육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임기응변식의 교원수급정책을 반성하고 보다 장기적인교원양성정책을 세워야할것이라고 지적했다.【李鍾九기자】

◇봄철 산불조심 — 해마다 봄철이면 전국곳곳에서 산불이 자주발생, 애써가꾼 산림을 태운다.【13일하오2시30분 大邱市南區 삼성산 산불현장. 본사 세스나機에서 朴泰弘기자찍음·金海日항공부차장 조종】

"간통事件 무마해준다" 警衛가 收賂

서울지검北部지청은 15일 서울南部경찰서 조사계주임 李武富경위(40)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崔榮鎬씨(42·주거부정)를 뇌물공여및 알선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李경위는 지난2월중순께 간통혐의로 수배중인 李錫煥씨(34·서울東大門區面牧1洞386)의 누이 李수蘭씨(38)에게『李씨를 무혐의로 처리해주겠다』며 1백만원을 받은혐의이며 崔씨는 李경위를 소개시켜준 댓가로 李수蘭씨로부터 3백만원을 받아 1백만원만 李경위에게 건네주고 나머지는 가로챘다는 것이다.

이들은 돈을받은뒤 李씨의 처金모씨(30)에게 고소취하를 종용하다 金씨가 이를 거절, 처리가 지연되는바람에 사건이 드러났다.

동광醫院長·보조원 拘束

患者 둘 마약中毒

病院서 진통제過多주사 廢人돼

부산지검특수부는 15일 부산中區東光洞3街2 동광의원 원장 김우식씨(61)를 마약법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80년10월 경해및 담석증으로 치료를 받으러온 성모씨(62)와 치질환자인 김모씨(54)에게 진통을 시켜준다면서 마약인 염산모르핀을 1인당 매일20㎎씩 주사해오다 마약중독증세를 일으키자 환부치료는 무시한채 지난해7월부터 지금까지 하루마약사용한계인 30㎎을 2·5배나 초과한 80㎎씩을 주사해 심각한 중독증세를 일으키게했다는것.

중독증세를 일으킨 성씨와 김씨는 모두 전신통증및 구토·취식불능등으로 폐인상태에빠졌으며 김씨는 이들에게주사한 마약량을 속이기위해 진료일지및 마약사용대장도 아예 만들어놓지않은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또 지난해 7월간호보조원인 여용원씨(33·南區門峴3洞33)와 함께 30평짜리 진료실을 빌어 의원을 이전한후 자신은 성형외과, 무자격자인 이씨는 피부비뇨기과 전문의원인것처럼 속이고 이씨가 수술한 5백여명의 환자를 자신이 치료한것처럼 위장한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이날 간호보조원이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 법률위반및 의료기사법 위반혐의로 함께구속하는한편 이씨가 그동안 사용해온 의료기구 9천여점과 의사김씨가 사용하다남은마약로르핀2백7앰풀도압수했다.【釜山=聯】

康德壎·金용준씨 월남歸順 환영대회

공산치하를 탈출, 귀순한 반공투사 康德壎씨(46)와 金용준씨(31)를 위한 서울시민 환영대회가 15일상오10시 서울세종문화회관대강당에서 李種浩원호청장 朴英秀서울시장을 비롯, 徐鐘喆 반공연맹이사장, 이북5도 관계자, 시민등 5천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열렸다.

중부지역 署長회의 防犯강화論議

치안본부는 14일 상오10시 서울시경 회의실에서 서울·京畿·江原·忠北등 중부지역 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한전麗水지점 예비군 무기고 카빈 도난사건등 최근에 일어난 허술한 방범태세에 대한 경찰의 자세확립과 봄철 치안대책등을 협의했다.

安應模치안본부장을 비롯, 70여명의 경찰서장급 간부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통금해제후 늘어나고있는 도범에 대한 일제단속과 봄철 행락질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대책등을 논의했다.

카빈犯신고 百만원전달 尹交通 驛務員

尹子重교통부장관은 15일 한국전력 麗水지점 예비군 무기고 카빈소총 절도범 검거에 공이큰 順天역 역무원 金世鍾씨에게 장관 표창장과 격려금1백만원을 수여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땅속으로「배달」한 便紙

集配員이 33통 산비탈에 묻어버려

住民이 찾아주자 우체局長은 燒却

淸州지검 堤川지청(지청장 金榮秀검사)은 15일 丹陽郡梅浦邑 우체국장 金鎭河씨(44)를 직무유기혐의로, 전집배원 李在煥씨(22·丹陽郡梅浦邑梅浦1里320)를 우편법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체국장 金씨는 지난9일상오 9시께 梅浦邑下詩里 이장 李洙根씨(40)가 땅속에 묻혀있던 우편물 33통을 발견, 우체국으로 가져와 신고했는데도 이를 배달하지않고 불에 태워버린 혐의를 받고있다.

전집배원 李씨는 梅浦우체국 일용잡급직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2월13일 하오4시께 梅浦邑下詩里속칭 모두메골 산비탈에 일반우편물 27통, 우편엽서 3장, 3종우편물 3통을 땅속에 묻어버렸다는것.

이 우편물은 梅浦邑下詩里주민 신성재씨(43)가 지난 9일 고추온상을 꾸미기위해 산비탈을 파다 발견, 이장 李씨에게 신고했다.【堤川=聯】

용돈마련하려 殺人

택시强盜까지 8회나 20代 둘拘束

강원도경수사과는 15일 유흥비마련을 위해 밤길행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하고 택시만을 전문적으로 털어온 韓基永씨(20·楊口郡東面元塘里3반)를 강도살인및 상습강도혐의로, 공범 鄭基哲씨(24·楊口郡東面元塘里2반)를 상습강도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韓씨는 지난해 4월24일밤10시께 春川市校洞11앞 골목길에서 용돈마련을 위해 이미 구속중인 南相敎씨(22)와 같이 군납업자 李重燮씨(49)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혐의를 받고있다.

韓씨는 또 鄭씨와 같이 지난해 4월이후 최근까지 서울東大門區典農洞 모아과트앞길에서 타고가던 택시운전사를 과도로 위협, 3만8천원을 터는등 서울富川에서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3만6천원을 빼앗아 유흥비로 탕진했다는것.

韓씨등은 고급주택을 털기위해 서울백조아파트입부가구를 인구조사원을 가장 호별방문을 통해 범행대상을물색하기로 했는데 경찰은 13일 하오 韓씨가 군납업자 李씨의 살해범이라는 정보를입수 李씨집을 급습해 韓씨등을 검거했다.

喪家서 집단食中毒

한마을住民 48명入院…11명중태

13일 하오2시께 경기龍仁郡龍仁邑古林里 李수성씨(55)의 상가에서 음식을먹은 이마을 朴원목씨(67)등 주민48명이 집단식중독을 일으켜 龍仁읍의 인성의원에입원, 치료를 받고있으나 이중朴씨등 11명은 중태다.

주민들은 이날 李씨집에서 돼지고기와 산나물등을 먹고 귀가했는데 14일 새벽1시께부터 복통과함께 구토·설사를하는등 식중독증세를 일으켰다는것이다.

龍仁郡보건소는 이들이 먹다남긴 음식물을 수거, 경기도보건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仁川=聯】

새벽家庭집에 괴한 姉妹찔러 동생숨져

14일 새벽3시께 光州市西區農城洞76의75 高珉珍씨(43)집 작은방에 흉기를든 괴한이 침입, 잠자던 高씨의 딸 민아양(13)과 민희양(15)등 자매를찔러 민아양은 현장에서 숨지고 민희양은 병원으로 옮겨치료를 받고있으나 중태다.

高씨에 따르면 이날새벽 안방에서 자고있는데 갑자기 신음소리가들려 달려가 방문을 열어보니 민아양은 가슴을흉기에 찔려 숨져있었고 민희양은 배를찔려 신음하고있었다는것.【光州=聯】

太白광부 매몰사건 6명救助·2명숨져

속보=강원太白市鐵岩광업소(소장 金顯烈·59)매몰사고로 8명이매몰됐다가 崔부현씨(32·太白市黃池2洞6통2반)등 6명은 20여시간만에 구조됐고 韓주용씨(45·黃池2洞7통4반)와 金정환씨(36·黃池2洞6통11반)등 2명은 숨졌다.

메마른땅에 단비

일요일밤 서귀포 42㎜

봄이 오르기 시작한 나무가지와 메마른 대지를 촉촉히 적셔준 단비끝에 봄날씨가 화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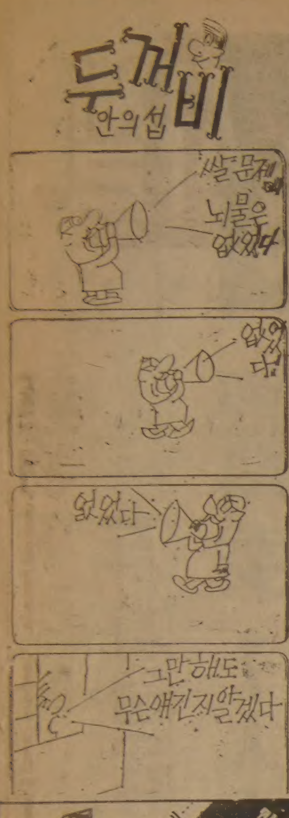
일요일인 14일 하오10시부터 전국에 걸쳐 내리기 시작한 비는 15일하오 嶺東지방을 제외한 전국이 화창한 봄날씨를 보였다.

이번 비는 15일정오현재 西歸浦가 42·1㎜로 강수량이 가장많았고 麗水37·2㎜, 晋州22·5㎜, 全州21·8㎜, 忠武26·8㎜, 釜山25·2㎜등 남부지방에 주로 많이 내렸으며 중부지방은 서울10·2㎜를 비롯, 春川10·4㎜, 大田11·1㎜, 淸州12·2㎜, 仁川10·9㎜로 10㎜안팎이다.

麗水高 총기도난 校長등 징계회부

전남도교위는 15일 麗水高교장 金炳萬·교련교사 朴京善·숙직교사 金蓮成씨등 4명을 문교부 고등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도교위는 지난1월29일 발생한 麗水高의 교련용 M1총기 3정의 도난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光州=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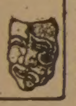
「바람長官」

가장 분주한 李奎浩문교

행동과 思惟 양수겸장

李奎浩문교장관(사진)은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인 모양이다. 어느날 신문치고 그의 이름 3자가 나오지않은 날이거의없다.

교육문제에 관한한「비상수기」라는 3월에들어서도 대학입시 전후기구분, 교장임기제 시비등으로 바람이 잘날이 없는 것이다.



그의 하루일과표를 보면 정말 바람같아 보인다.

「상오 8시30분 차관업무보고, 8시50분 部內3실8국30개과의 결재와 지시, 9시30분 실국장회의및 지시, 10시30분 서울大총장 면담, 11시 사립중고회장단 면담, 11시30분…」

그것으로 끝나지않고 점심은 대학학장단과 간담을 겸한오찬, 하오도 출장 그렇고, 저녁도 해외 교포를 위한만찬….

1백73㎝의 키에 몸무게 63㎏, 얼핏 文弱해 보이는데 정력적으로 매사에 전광법으로 부딪친다. 정치인처럼 술술 피해가는 요령을 부리지 않고, 관료처럼 주위를 의식하지도 않는다. 그래서「바람」이 생기는 것인지.

학원소요가 염려될 때는 대학을 돌며 야생마같은 젊은이들과 직접 대화를 갖는가 싶더니, 어느새 발길을 종교계로 돌려 이데올로기에 대한 모험적 강론을 편다. 강연도 많고 베스트·셀러인 저서도 여럿이다. 교육의 최고책임자인 동시에 최고의 지성이기로 마음 먹은것 같아 보이는건 어쩔 수 없다. 그런「모습」의 장관이 언젠가 한 말이 유난히 귀에 선하다.

『신문들이 교육 문제 다루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신문들을 읽으면 당장 무엇이 바뀌고 고쳐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거다라고 설명하면 이번엔 朝令暮改라고 두들깁니다』

과연 그럴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달리 교육열이 높다. 또 그 교육열 때문에「한강변의 기적」도 세워가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교육제도나 문교정책이 훌륭해서 그「기적」을 끌어오는 견인차 구실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적을것이다. 그「생각」은 현재도 큰 변화는없다. 그 신문이「교육」에 남다른 관심을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필요이상의 기사를 쓰고 있다는것은 사실일지 모른다. 하지만 쓰게한 원천, 쓰게 계기를 준것은 문교부 자신일 경우가 많다는것도 사실이다.

막상 李장관이 장관실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정물화처럼 차분하다. 세상에 투명된 분위기와는 정반대같은 인상을 풍긴다.【李鍾九기자】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오팔
536-1692

고국의 향수가 듬뿍어린
미도파 백화점 비디오부
연속극, 가요, 문학, 영화, 전설…
454 BLOOR ST. W.
536-1692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 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목, 금, 토, 일 권순근과 그일행 출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REWARD
yourself with a challenging and exciting career with good salary and excellent fringe benefits in the:
METROPOLITAN TORONTO POLICE
APPLICANT MUST BE:
1. Canadian citizen or British subject.
2. Age: 17 to 20 years for CADET. At least 21 years for CONSTABLE.
3. Weight must be proportionate to height (In good physical condition).
4. Holder of a valid Ontario Driver's License.
AS A POLICE CONSTABLE OR CADET REQUIREMENTS:
EDUCATION: Applicant must also have 27 Ontario credits in courses taken at level four or higher or equivalent.
VISION REQUIREMENTS: Uncorrected vision to be not less than 20/30 in both eyes and not less than 20/50 in one eye. Normal colour vision.
For further information attend, call or write our:
METROPOLITAN TORONTO POLICE EMPLOYMENT OFFICE
365 BLOOR ST. EAST, SUITE 908
TORONTO M4W 4L3
(416) 967-2391
Between 8:00 a.m. - 4:30 p.m. Monday through Friday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 (Miss. 정)

고향의 맛!
한식, 중국식요리 각종음식준비
— 각종국수 전문 —
서울하우스
615 BLOOR ST. W. ☎ : 532-0602

KAWAI 피아노
●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 HILLCREST MALL ☎ : 883-9407
●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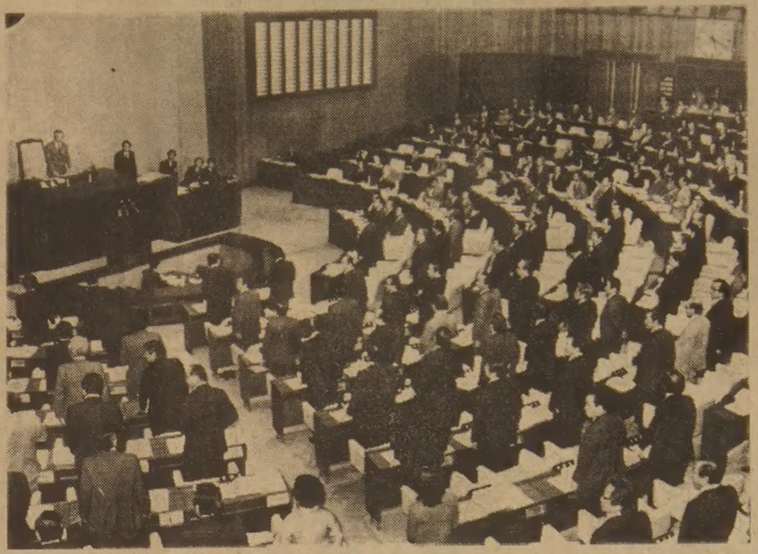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쌀波紋 조사小委 15일께 구성

임시國會 어제閉會

經科委「7人小委」는 白紙化

特調委案 본회의서도 否決



◇外米도입문제로 진통을겪은 제110회임시국회는 13일하오 野黨측이 낸 特調委案을 贊反토론끝에 起立표결에 붙여 否決시킨뒤 閉會했다。

外米도입 의혹사건조사를 둘러싸고 파란을 거듭해온 제110회임시국회는 民正黨이 단독 전격통과시킨 經科委小委구성안을 白紙化하고 本會議에서 야당이제의한 特調委구성안을 否決시킨뒤 閉會했다. 쌀스캔들로인한 각정당간의 異見조정때문에 당초예정보다 6시간30분이나 늦은 하오4시30분열린 이날 본회의는 야당측이 공동으로 附議한「外米導入에따른 부정사실조사를 위한 國政조사특별위원회구성」과「국회 회기연장에관한 결의안」을 贊反토론끝에 否決처리하는등 모두 28개議案을 처리했다。

國政조사特委결의안에 대한 贊反토론에서 民正黨의朴鉉兌·丁時采·李致浩의원등은『국정조사권을 발동한다고해도 實益이 없을뿐 아니라 국회법에따라 常任委에서도 證言청취、鑑定人소환、참고인진술청취、관계서류 제출요구등 조사와 다름없는 권한을 행사할수 있다』면서 經科委에서 小委를구성、심사토록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말했다。

한편 찬성토론에 나선 朴寬用(民韓) 金永光(국민) 趙舜衡의원(議政)등은『이번 사건은 단순한 뇌물사건이아니라 低質의 쌀을 高價로 과다하게 구입하여 의혹과 不信을산 중대한 사건으로 이에대한 진상을 규명하기위해서는 국정조사권을갖는 特委의 구성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가 주장하는 潔白性을밝히기위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國會는 이날하오 經科委를열고 전날밤 同위원회에서 民正黨단독으로 통과시켰던 7人小委 구성안을 民正黨측제안에따라 번안동의안형식으로 白紙化시켰다。

經科委는 또 7人小委案을 철회한데이어 오는15일께 회의를열고 各政派의 공동발의로 小委를 새로 구성키로 했다。

이날 申相式 民正黨간사는 번안동의안의 제안설명을 통해『12일 經科委에서 의결된 美國米도입 진상파악 小委구성의件은 각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한결과에따라 앞으로各政派의 공동발의로 小委를새로 구성키로 합의했기때문에 이미 구성키로 의결한것을 번안한다』며『동시에 12일 동일한 小委구성에 관한 件을 철회코자한다』고 밝혔다。

단독處理 공개謝過 千위원장

千永星위원장은『12일밤원만한 회의를 진행치 못한데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經科委는 12일밤 民正黨이 제안한「美國米도입 진상파악小委」를 야당위원들이 불참한가운데 구성키로 의결했었다。

한편 與野총무들은 두차례에 걸쳐 회담을 갖고 전날 民正黨이 단독으로 처리한 經科委의「美國米진상파악小委」를 白紙化하고 15일 經科委를 다시 열어 各黨공동發議로 小委를 구성키로합의했다。

이에앞서 이날상오 民正黨은 원내대책회의를、民韓·국민당은 의원총회를 각각열고 대책을 논의했었다。

이날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議案은 다음과 같다。

28개議案통과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관한 긴급명령 폐지안▲不動産소유권이전 등기등에 관한 特措法중 개정법률안▲헌법위원회법중 개정법률안▲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안▲지방交付稅法중 개정법률안▲증권거래법중 개정법률안▲시설대여 산업육성법중 개정법률안▲홍삼 전매법중 개정법률안▲원자력법중 개정법률안▲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중 개정법률안▲대학생등의 兵役특혜에 관한 特措法중 개정법률안▲대학원생등의 兵役特例에 관한 特措法중 개정법률안▲兵役法중 개정법률안▲家畜전염예방법중 개정법률안▲軍納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중 개정법률안▲해외이주법중 개정법률안▲의료사기법중 개정법률안▲汚物청소법중 개정법률안▲직업안정법중 개정법률안▲상공법중 개정법률안▲관광사업법중개정법률안▲선박안전법중 개정법률안▲건축법중 개정법률안▲건축사법중 개정법률안▲82년도발행 주택채권원리금상환에대한 국가보증동의안▲韓美修交1백주년에 즈음하여 양국간의 友好協力관계 증진을위해서 韓國國會가 美의회에 보내는결의안

行長직속 特監班둔다

은행감독원 不條理척결 不時·암행監査… 情報교환

뇌물供與者 명단작성… 任員도 문책

은행감독원은 13일 금융부조리척결을 위한 세부지침을 각 금융기관에 시달, ①각행은 15일까지 행장직속하에 정화및 사정담당 정예직원 10명(지방은행은5명)으로구성되는 特監班을 설치할것② 특감반 편성내용과특감사항, 특감대상, 특감일정등 4월중의 구체적활동계획과 2·4분기중의 개괄적계획을 작성, 16일까지 감독원에 보고할것 ③특감반활동실적을 월별로 매달5일까지 감독원에 보고할것등을 지시했다. 아울러 대출과 관련해서 금품을 제공하는자는 그명단을파악, 은행간 상호통보해서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이명부에 이름이 오른자에대해서는 신규대출및 지급보증을 6개월간 중단하는것은 물론 기존대출금도 즉각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감독원은 이날 各行대표자회의(專務)를 긴급 소집, 7개항목으로된 금융부조리 척결지침을 구체적으로 시달하고 특히 特監班은 정보수집과 감찰을 주임무로해서▲여론조사▲청렴도측정및▲감사결과 취약부문으로 나타난 곳을 중점 활동대상으로 삼아 암행감찰, 불시검사, 정보수집등을 통해 감찰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달 시달된 지침은 또 금융사고에 대한 연대처벌을강화, 사고당사자를 엄중처벌하는 것은 물론 직상및 차상감독자에 대한 문책과 사고 部店담당임원에 대한 책임추궁도 함께 하도록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감독원은 은행의 불필요한 경비를 절감, 점포운용비로전용하되 소요비용을 정확히파악해서 적정수준의 활동비를 지급토록하라고 지시했다.이와 아울러 감독원은 예금과당경쟁을 방지하기위한 근본적인대책을 수립, 시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감독원은 또감정원가, 신용보증, 중소기업및 서민금융등 부조리소지가 많은 대출등 제도적개선이요망되는 부문에대한 각행의자체개선대책과 예금할당제폐지 예금실적위주 업적평가제폐지등 금융환경및 제도개선방안을 오는 4월30일까지마련, 감독원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金값 계속下落 온스當 3百20弗線

【런던12日路=聯合】 金시세가 12일 뉴욕시장에서 온스당3백20달러이하로 떨어져 지난 2년반만에 최하수준을 기록했으며 다른 세계시장에서도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뉴욕에서의 금시세는 낮한때 온스당 3백19·75달러까지 내려갔는데 거래상들은 앞으로 금값이 계속 하락, 온스당 3백달러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금값은 취리히시장에서도 온스당 3백32·50달러에서 3백22·325달러로, 런던시장에서는 3백30·50달러에서 3백23·75달러로 각각 하락했다。

"小委 변칙事態收拾해 다행"

民韓黨 성명

金珍培民韓黨대변인은 13일 제110회임시국회 폐회에즈음하여 성명을발표,『마지막에 導入外米조사특위 구성문제를 둘러싼 變則사태를 與野의 진지대화로써 타결, 수습책을 마련한것은 다행스러운일』이라고 논평했다。

金대변인은 또『야당의원들의 대정부질문이 한층 密度있고 정부의 답변자세 또한 전에비해 크게 나아진것은 국회의국정감시기능이그만큼늘어난증거로본다』고말했다。

카빈훔친犯人 順天서 검거

★기사 11면

"臺灣에 무기팔면 美·中共관계위협"

【北京13日UPI=聯合】 중공은13일 워싱턴당국이 대만에 대한 장기무기판매를 강행할경우 미·중공관계는 심각한 타격을입을것이라고경고했다。

중공 외무성의 한 대변인은 존·홀드리지 미국무차관보가 지난10일『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중단할 의사가 없다』면서『현재 미·중공관계는 다소 긴장되어있다』고 말한데 대해『미국의 對대만무기판매를 반대하는 것은 중공당국의 불변의 원칙적 방침』이라고말했다。

2百여虐殺 헛소문 과테말라官吏 실수

【산타크루스델퀴체(과테말라)13日AP=聯合】과테말라에서 인디언2백여명이 집단학살된사건을 처음으로 발설한 자쿠알파읍관리는 12일 자신의보고는 결국 낭설로판명된 소문에 근거를 둔것이었다고 밝혔다。

헤이그 5월訪韓

中共방문때 추진

【워싱턴13日=曺洋煥특파원】 헤이그美국무장관은 대만문제로 냉각된 美·中共관계를 호전시키기위해 오는5월 中共을 방문할 계획을 추진시키고 있다고 美국무성의 정통한 소식통이 12일 말했다。

美국무성의 한관리는 헤이그의 이번中共방문계획이알려지기전인 연초에 헤이그장관이 韓美修交 1백주년을 기념하기위해 美행정부를 대표하여 서울을 방문할 생각을갖고있다고 밝힌바있다。

레이건행정부에 정통한 한아시아문제전문가는 한국의 국제지위향상과 국내안정으로 지난30년간 南北아시아의 안정을 위협해온 한반도정세가 처음으로 호전되어가고있다고 전망했다。

이 아시아전문가는 ①주한미군철수정책철회 ②북한의무력에 의한 한반도 통일방안에 대한 中·蘇의 냉담 ③한국경제회복의 가속화 ④韓·中共무역증대 ⑤88년 서울올림픽개최등 한국의 국제지위향상으로 東北亞의평화전망이 밝아져가고있다고논평했다。

◇소년단원 海上퍼레이드 한국해양소년단 단원들이 3백여척의 작은 보트에 나누어 타고 노를 저으며 해상퍼레이드를 펼치고있다。 【부산=徐鍾道기자찍음】

한국 2개國策銀行 세계3百大銀끼어

한국의 2개국책은행과 5개市銀이 모두 세계3백大은행에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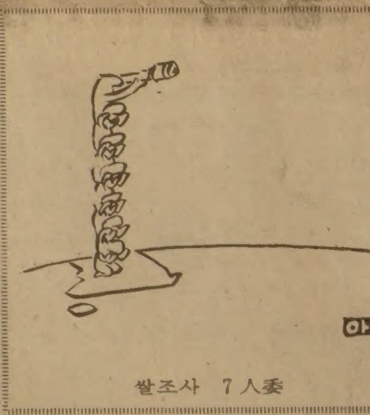
금융전문지인 월드·뱅킹이 최근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선정한 세계3백대은행에 따르면 한국외환은행이 1백66위, 산업은행이2백7위를 기록했다。

신탁계정이 있는 서울신탁은행은 2백12위로 기록됐고 상업은행이 2백72위, 한일은행이 2백76위, 제일은행이 2백91위, 조흥은행이 2백99위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선정의 기준이된 80년말 국내은행의 총자산은 ▲외환은행 82억2천8백만달러 ▲산업은행 61억4천7백만달러▲서울신탁은행 60억4천6백만달러(신탁계정포함)▲상업은행 45억2천6백만달러 ▲한일은행 43억6천5백만달러▲제일은행 40억6천9백만달러▲조흥은행 39억7천2백만달러등이다。

구독신청 533·2861

社會漫評



쌀조사 7人委

地平線

좀 묵은 얘기다. 10년전인 72년 7월27일 경기도 平澤郡彭城面 院井里 예비군3중대 무기고에서 카빈 3정과 실탄 60발이 없어졌다。한적한 시골에서 있었던 일이라、사건은 세상에 알려짐이없이 끝났다。신문에 1단짜리 기사가 실리지도 않았고、경찰수사는「未濟」딱지를 붙인채 달을 넘겼다。▼같은해 9월 첫번째 南北赤회담을 위해 우리 대표단이 平壤을 다녀왔다。그 감격이、北赤대표단의 入京을 맞아 더 고조되던 9월12일、은행에서 돈을 찾아오던 상인李正洙씨가 카빈을 든 두청년에게 납치됐다。사건은 北赤대표단의 동정을 보도하느라 바빴던 신문지면에서 외면을당했고、제1보는 겨우 北赤대표단이 돌아간뒤 끝에야、신문 한귀퉁이를 차지했다。▼이뒤의 사건진전은、사건이 너무나 피비린내났기에、지금껏 잊지못하는 이들이 많을줄안다。범인들은 李正洙씨를 포함한 2명을살해、九老工團에서 한차례 갱사건을 저지르고、京仁국도에서 총격전을 벌이며 경찰과 대치하다、처자를 죽이고 자살하는 참극을 벌였다。李正洙씨 사건이라 불렸던 사건은 범인들의 이름을따 李鍾大·文度錫사건으로 끝이났다。▼그러나 사건의 自初至終을 모두 따지자면 이사건은「平澤예비군 카빈 도난사건」이라 해야옳은지 모른다。李鍾大·文度錫이란 인격이、또 그때지적됐던 人命輕視·金錢萬能의 풍조가 그만한 사건을 빚을만했다고 하더라도、사건에 깃빛을 더한 꼬투리는、예비군의 무기도난에 있었다고 할수밖에 없기때문이다。무기도난사건이 제대로 알려지고、수사가 제대로 됐던들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꼬리를 끈다。▼비슷한사건이 근래에도 있었다。「[illegible]麗水지점 무기 도난사건」이다。그범인은 어이없이 잡혔다。불순분자의 소행、S대학·K대학의 제적생운운하던 경찰수사에 비하면、참 맥빠진결말이다。총을 훔쳐서 멧돼지를 사냥하려 했다는둥、총기를「人質」삼아 1억원을 받아내려 했다는둥、뚜껑을 열고보니、사건은 失笑감이다。▼하지만、생각할수록 등골이 시리다。범인은 두번이나 무기고를 털었다는데、그런 틈을 남기고도、세상이 무사할수 있을까。사건이 알려져서、사건해결 단서의 신고가 있은것은 다행이지만、범인이 李鍾大·文度錫만큼 악독하지 못했던것만을 고맙게 생각해야한다면、너무나 어설픈 일이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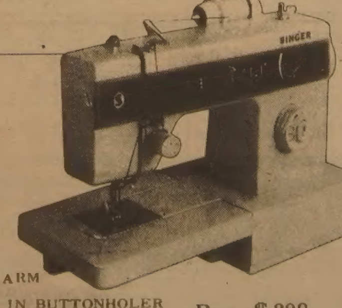
김신명
●생명보험
●연금제도
●교육보험
●그룹보험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R. R. S. P
922-3111 (B)
791-8196 (R)

쿠폰을 가져오면
$1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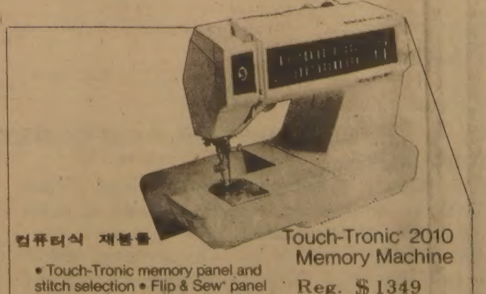
3월 수퍼 스페샬 싱거 재봉틀

★싱거 회사중 이곳에서만 교포특별 우대합니다. ★무료 강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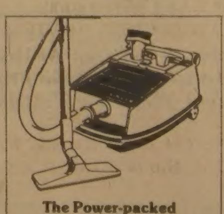
—기간 : 3월12일~3월말까지—



●FREE ARM
●BUILT IN BUTTONHOLER
●STRETCH STITCH
●SLANT OVEREDGE
●BLINDSTITCH
Reg. $299
Save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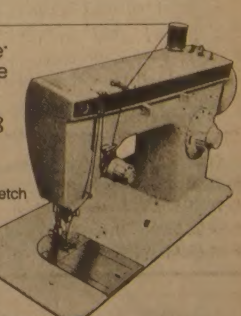


컴퓨터식 재봉틀
Touch-Tronic® 2010 Memory Machine
• Touch-Tronic memory panel and stitch selection • Flip & Sew® panel • Universal pressure system • Twin needle capability •
Reg. $1349
Save $300



The Power-packed Canister Vacuum
Step right up to fast, deep-down cleaning at a smooth Singer price.
Model C-141
REG. $169.95
SPEC. $111.95

Fashion Mate® Zig-Zag Machine
ONLY $128
• Front drop-in bobbin • Snap-on presser feet • Sews elastic and stretch fabrics • Three needle positions • Model 247



튠 업(TUNE-UP)
SINGER FAMOUS 4STEPS TUNE UP

*Trademark of THE SINGER COMPANY
Authorized user: Singer Company of Canada Ltd.

SINGER APPROVED DEALER

SINGER SQUARE—ONE 쇼핑센타내
MISSISSAUGA, (416) 277-0341 MR. 오

국제油價속락에 자신
外貨부담줄여 경쟁력도 강화
기름값 7월부터 自律化
政府 당초계획 앞당겨 실시추진

정부는 油價자율화를 앞당겨 실시할 방침아래 油價制度개선반을 편성, 본격적인작업에들어갔다. 동자부는 연초 油價자율화가능성을 검토하기위한 시안을 마련한다는 기본계획만을 세웠었으나 최근 세계시장에서 원유값이 계속떨어지고있고 보다싼 원유도입을 촉진시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외화부담을 줄여 국제수지를 개선해야한다는 결론에따라 油價자율화방안마련을 서두르고있다.

관계자는 또한 국내소요원유의 90%만을 장기계약분으로 충족하고 나머지 10%해당분에 대해서는 정유회사들이 現物市場에서 도입토록하고 점차 그폭을 확대해 나가려는것도 같은 의미로 볼수 있다고 밝혔다.

油價자율화는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지않고 국내수급및 가격안정, 세계석유시장변화에의 대응능력등을 감안,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될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자부는 금년내에 시안을 마련, 공청회등을 거쳐 그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 금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마련, 빠르면 하반기부터 실시할 방침을 세운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당국자는 이번 油價인하조치를 계기로 低價導入인센티브제, 高價導入페널티, 처질원유도입에 대한 비례치부여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는 原油價平準化제도를 폐지한것도 유가자율화제 실시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東國貿易등 4개社 PE系 新增設허가

상공부는 東國貿易등 4개회사에대해 日産78톤의 폴리에스터F系 생산시설의 신증설을 허가했다.

13일 상공부에따르면 폴리에스터F系 생산시설 신증설은 코오롱등 기존업체 7사와 東國貿易 星安纖維등 신규업체 2사등 9개업체서 日産 3백8톤을 신청해왔으나 수요를 감안해서 4개업체에 78톤만 허가했다.

이번에 시설허가내용은 東國貿易이 일산30톤규모의 시설을 갖추도록 신규업체로 참여시키고, 大韓化纖이 10톤 第一合纖이 18톤 高麗合纖이 20톤을 증설토록하게됐다.

신증설업체는 허가받은 시설을 83년말까지는 끝내고 84년부터는 생산을 시작해야되는데 시설은 톤당10억원이소요되어 第一合纖 高麗合纖 東國貿易은 차관자금으로, 大韓化纖은 외화대부자금으로 건설하게된다.

이번 신증설 허가로 폴리에스터F사 생산능력은 현재 日産3백35·6톤에서 이의 증설 허가를 받아 시설중인 77·5톤과 이번 허가분을 합쳐 84년에는 4백91·1톤으로 늘어나게된다.

상공부는 이번 신증설신청업체중 코오롱 東洋폴리에스터 三養社 東洋나이론등은 지난해 일부시설허가를 받아놓고서도 추진실적이 부진하거나 그룹내에 폴리에스터 F사 생산업체를 보유하고있어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신규참여업체는 81년도 폴리에스터F사 소비실적이 경제단위(日産50톤)이상인 업체에 국한시켰다.

일부기업 賣出額줄여 稅金 덜내
國稅廳, 작년에 1백22억 더 받아내

일부기업이나 개인사업소득자들은 주로 매출액을 적게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덜내오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3백74개업체및 사업소득자에대한 세무사찰을실시, 1백22억4백만원의 稅金을 추징했는데 이의 40%인 48억7천만원이 매출누락분에대한추징세금인것으로 나타났다.

원가를 크게함으로써 소득을줄여 稅金을 실제보다 적게낸것은 전체의 24·4%인 29억7천만원에 달했다.

精油5社 결손 작년에 百84억

국내精油5社는 지난해 결산결과 1백84억원의 결손을 나타내 지난80년에 이어 2년째 적자를 기록했다.

13일 동자부와 업계에따르면 지난해중 국내精油업계는 두차례의 국내製品가격인상에도 불구,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누증등의 이유로 油公이 1백10억원, 湖油 56억원, 雙龍 59억원, 極東 1억원등 총 2백26억원의 결손을 보였으나 京仁에너지가 精油및 發電부문을 포함 稅後 42억원의 이익을 기록, 모두 1백84억원의 결손을 나타냈다.

經濟短信

▲徐상공리야드着=徐錫俊상공부장관은 12일 솔레만·알·살림사우디아라비아 商業相의 초청으로 사우디공식방문을 위해 리야드에 도착.【매내마(바레인) 12日聯】

▲忠州다목적댐 본댐 축조착수=忠州다목적댐의 본댐 축조공사가 시작됐다. 충주다목적댐은현재전체공정의 30%를 돌파하고있는데 연말까지 51·7%에 이를 전망.

▲三星電管, 90%유상증자=三星電管은 오는 4월15일을 신주배정기준일로해서 90%의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했다.

▲貿協, 수입원자재에 영세율적용건의=貿協은 수입원자재에 대해서도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 업계의 자금압박을 덜어줄것을 건의.

美자매市 동포에 國語교과서 보내 光州市

光州市는 13일 자매도시인 미국 텍사스州 샌안토니오市의 교포2세들에게 우리나라 국민학교전과정의 교과서를 보내기로했다.

市는 샌안토니오시에 살고있는 2천여명의 교포들에게 모국애를 더욱 북돋우고 2세들에게 모국애를 배울수 있도록 하기위해 국정교과서 8백80권을 구입, 보내줄 계획이다.

市는 이와함께 국내문학, 역사 서적등을 수집, 샌안토니오시거주 교민들에게 보낼 방침이다.【光州=聯】

地方短信

◇奧地 移動民願室 운영키로=강원도 江陵원호지청은 당일 왕래가 어려운 오지 지역 원호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매월10일과 15일, 20일등 3회에걸쳐 오지지역을 대상으로 이동민원실을 설치, 운영키로했다.【江陵=聯】

◇春川, 家庭植樹운동펴기로=春川시는 13일 오는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 올림픽에 대비, 거시적인 가정식수(家庭植樹)운동을 벌여 숲과꽃으로 덮인 호반관광도시로 가꾸기로했다.【春川=聯】

半月공단 入住자격 완화
수도권廢工場등도 들어갈수있게

半月工團에 공장을 지을수 있는 자격이 상당히 완화됐다.

13일 상공부가 새로마련한 半月공업단지 입주자격규정에따르면 光明市와 華城·始興·龍仁·楊平·廣州·金浦郡인 부동 京畿도내 제한정비지역에서 이전하는 업체, 수도권안에있는 기업이 分工場을 설치하거나 수도권안에있는 廢工場을 인수해서 이전하는경우에도 입주를 추가로 허용키로했다. 그러나 半月공단안에 신규로 허가를받아 공장을 건설하는것은 허용치않기로했다.

지금까지는 공업배치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과 水原·仁川·富川·安養·城南市에서 이전하는 공장및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협동화사업에 참여하는 공장만이 半月공단에 입주할수 있었다.

공업배치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은 서울, 議政府市, 楊州郡(州內面 白石面 長興面), 南楊州郡(九里邑 渼金邑 瓦阜邑 榛接面 別內面), 高陽郡(神道邑 一山邑 碧蹄邑 元堂里 知道面)등이며 京畿道내 제한정비구역은 仁川, 水原, 城南, 安養, 富川, 光明市와 華城郡(半月面), 始興郡(儀旺邑 蘇萊邑 東浦邑 果川面 秀岩面 郡子面), 龍仁郡(水枝面), 楊平郡(江下面 西宗面), 廣州郡(東部邑 廣州邑 草月面 退村面 南終面 西部面 中部面), 金浦郡(高村面 桂陽面)등이다.

電算室·디자이너분야선 능력발휘
기혼女性공채 5개월의 實態
번역등엔 경제·전문용어 서툴러 고전
6개월 이상 지나야 제실력 평가가능

大宇그룹이 지난해 공개모집해 5개월째 직장생활을 계속하고있는 37명의기혼여성이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社內에서 그리큰 평가를 받고있지 못한것같다.

회사경영진은 이들 기혼여성들이 직장분위기에 새로적응, 담당분야에서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까지는 최소한 6개월~1년이 지나봐야 한다면서 아직은 공식평가하기를 피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동료들은 번역·비서직에서 다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있다.

번역직의 경우 이들여성들이 경제용어등 전문용어에 서툴고 남자 직원들이 대체로 여성들이 번역해놓은 자료들을 의식적으로외면하는 경향이 있다는것. 남자동료직원들은 표면적으로는 번역물을 통해서는 원문이 갖고있는 뉘앙스를 파악할수 없기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도 그정도의 원문은 쉽게 이해한다」는 자부심이나 번역물을 읽는다는 「약점」을 다른 동료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하는 경향도 있는듯하다.

비서직의 경우는 「기혼여성이라는 가정적지위를 무시한채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다」는 얘기도있고 다소의 거리감을 느끼게된다는것이 동료 남자직원들의 공통적인 견해.

이에비해 전산실요원, 디자이너, 여성근로자상담역, 건축설계사등은 주위 동료들로부터 상당히 우수하다는 평가를받고있다.

회사측은 金宇中 회장의 특명에 따라 모두 30세미만의 주부인 이들에게 각별히 배려하고있다. 다른 사원들의 근무시간보다 30분 늦은 상오9시에 출근, 2시간빠른 하오5시에 퇴근한다. 이들에게는 미혼 여사원들처럼 유니폼도 입지 않는다. 이같은 배려는 다른사원 특히 같은여사원들로부터 위화감을 조성하는 요인이라고 지적받기도 한다. 보수는 이전의 근무경력을 모두인정했지만 시간외수당이없어대체로20만~25만원수준을 받고있다. 동료들은 이들을 미시즈로 부르고있다.

회사측은 2년 시한부로 고용계약형식으로 이들을 채용했지만 희망할경우 연장근무를 허용할 방침인데 몇명이 연장근무를 희망할는지 아직은 미지수라고.

워싱턴타임즈 試作版선뵈
5월부터發刊…統一敎서 재정지원

文鮮明씨의 統一敎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워싱턴·타임즈紙의 試作版(사진)이 3월1일자로 발행됐다.

20페이지로 된 이 試作호는 오는 5월부터의 정기발행을 앞두고 제작방향에 관한 견해를 청취하기위해 5천부를 인쇄해 워싱턴의 저명인사들에게 배포했다.

이 신문은 오는 5월부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32페이지씩 조간으로 광고없이 발행할 예정이다.

편집장겸 발행인은 새크라멘토·유니언紙의 편집장겸부사장을 지낸 제임즈·휘일런씨로, 그는『워싱턴·스타紙가 폐간된후 워싱턴·포스트紙밖에 남지않은수도 워싱턴의 공백상태를 새로 발행될 워싱턴·타임즈가 메울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신문의 발행회사인 뉴스월드커뮤니케이션社의朴普熙씨는『워싱턴·타임즈를세계10大신문의 하나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하고 제작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4월중순께 기자회견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The Washington Times
PUBLISHER'S STATEMENT
Reagan set to ban Libyan oil imports
Bouttilier charges ... VOA
Hussein, Weinberger agree on Jordan's need for missiles

◇5월부터 발행될 워싱턴·타임즈紙 試作版

英대처딸 就業난항
★記者노조서 적극反對

대처영국수상의 딸 캐롤양(28)은 런던 LBC방송의 심야청취자전화참가프로의사회자로 일할예정이었으나 전국기자노조(NUJ)의 반대에 부딪쳐 새직업획득이 중단된 상태라고.

NUJ의 LBC지부는 현재의 프로담당자를 사전통고나 협의없이교체시키는것은 불합리하며 이프로담당자를 대처수상의 딸로 바꾸기로 한것은 대중의 이목을끄는데 목적이 있다고지적, 현담당자 데리즈·버치양이 현위치에서 옮기려 원하지않는한 프로담당자 교체를 할수없다고 강조.

따라서 캐롤양은 이분쟁이 해결될때까지는 심야 라디오방송프로를 맡을수 없게됐다는것.【런던=AP】

海外토픽

모든生物 전파放出
★美 암연구소 폴博士주장

인간에서 박테리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들은 비록 미미하나마 모두 전파신호를 방출하고 있다고 한 물리학자가 밝혔다.

오클라호마州 스틸워터소재 폴癌조사연구소 소장인 허버트·폴박사는 13일 폐막될 2주간의 제23차 양자이론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새사실을 밝히면서 특히 세포분열때 강력해지는 세포의 전파신호는 앞으로 과학자들이 급격한 암성장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팔코스트(미국)=UPI】

잠깐 졸다가 망신
★國會출석한 日스즈끼

스즈끼(鈴木)일본수상은 지난11일 전국에 TV로 중계된 국회의 대정부질의에 참석해서 잠깐 조는 바람에 의원들로부터 힐문을 받았다.

이날 국내건설업체의 부정에 관해 대정부질의를 벌이던 공산당의 오가사와라·사다꼬의원은 질의도중 스즈끼수상의 조는 모습을 발견하고 『수상, 듣고있읍니까』라고 힐문, 스즈끼수상을 당황하게 만들었는데 스즈끼수상은 오가사와라의원의 지적을 받자 황급히 발언대로 걸어나감으로써 의원들의 폭소를 자아냈다는것.【東京=UPI】

◇레이건-미테랑會談 레이건美 대통령이 13일 美國을방문중인 프랑스의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환담하고있다. 레이건 대통령은미테랑 대통령과 프랑스의 對니카라과 무기판매및 對엘살바도르좌익게릴라지원문제등을 협의할예정이다.【워싱턴12日AP=聯】

"레이건政策은 유치하다"
가다피 오스트리아訪問중 會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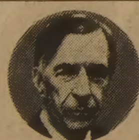
◇가다피

【빈12日UPI=聯】가다피 리비아국가원수는 12일 미국이 리비아를 무력침공할경우 蘇聯에 지원을 요청할것이라고 말하고 레이건 美대통령의 정책을『유치한것』이라고 공격했다.

빈을 공식방문중인 가다피원수는 오스트리아국영방송과의 회견에서『나는 미국으로부터의 무력침공 가능성을 배제할수없다. 우리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하지만 만약 필요할경우에는 지체없이 소련의 지원을 요청 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우리는 레이건 美대통령의유치한정책때문에 걱정이다. 그의 정책은 세계평화를 위태롭게 하고있다』면서 리비아가 미국의 무력침공을 받을것으로 우려하는가라는 질문에『그렇다. 그들은우리나라를 침공할지도 모른다』고 답변했다.

先進國무기 導入말아야 開途國 經濟개발에장애
美갤브레이드敎授


◇갤브레이드

【마드라스(印度)12日PTI=聯】美國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J.K.갤브레이드교수는 11일 선진국 무기도입은 개도국들의 경제개발에 해가되고 그들의 역사적 발전과정에도 맞지않기때문에 후진국은 이를 거부하는데 공동보조를 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인도주재 美대사를 지낸바있는 갤브레이드교수는 이날 마드라스에서「신생국과 군사관계」에관한 강연을 통해 그와같이 촉구하고『개도국들은 비인도적이며, 경비가 많이들면서도 군사적으로 부적합한 게임인 강대국들로부터의 무기유입에 대해 강력한 반응을 보이라』고주장했다.

따라서 자신은 개도국들이 빈부국들간의 무기교류를 재고할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政情불안 高潮
과테말라, 또 連鎖폭발사고

【과테말라시티12日UPI=聯】과테말라의 새 대통령선거일 하루전 서북부 사쿠알파군에서 2백명의 인디언이 집단학살당한것으로 전해진데 이어 수도 과테말라 시티에서 11일밤 9차례의 연쇄폭발사고가 발생, 선거후유증으로 인한 政情불안사태가 증대하고있다.

9차례의 폭발사고중 하나는 대통령당선자로서 3명의 야당후보들로부터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비난받고 있는 아니발·게바라장군의 선거본부 바깥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11일 자정직전에 발생한 이번 폭발사고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는 전혀 없었다면서 9개의 폭탄이 모두 조악하게 만들어진 것들이어서 위력이 약했다고 발표했다.

美, 엘살바도르支援 과테말라 支持안해

【워싱턴12日AP=聯】미국은 군인으로 구성된 엘살바도르정권을 지지하고 있지만 과테말라정부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공약하고 있지않다고 토머스·엔더스 美국무차관보가 12일 밝혔다.

수리남 쿠데타鎭壓 叛軍격퇴首都탈환

【파라마리보12日AP·UPI=聯】수리남정부군은 12일 우익쿠데타를 기도한 반군들을 격퇴, 수도 파라마리보를 다시 장악했으며 반군지도자중의 한사람인 윌프레드·호커특무상사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中美정책 견해차 못좁혀
美·佛정상회담 民主政府이념伸張엔 일치

【워싱턴12日AP·AFP=聯】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레이건美 대통령은 세계경제, 동서문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협력강화, 중남미사태및 제3세계 관계등을 에워싼 美·佛간의 이견이 점증하는 가운데12일 백악관에서 양국정상회담을갖고 국제및 쌍무문제를 폭넓게 협의했다.

미테랑 대통령과 레이건대통령은 근3시간동안 계속된 정상회담후 그들이 중미에대한 양국간의정책상 이견에대해 솔직한 대화를 가졌다고 말했으나 양국간의입장을 바꾸도록 상대방을 설득하는데는 실패한것으로 보인다.

레이건행정부는 엘살바도르반군을위한 주요 무기공급국으로 미국이 간주하고있는 니카라과에 2천만달러상당의 무기를 판매키로한 프랑스정부결정에 크게 불만을나타내고 있다.

레이건 대통령은 미테랑대통령의 요청으로마련된 美·佛정상회담이『지극히 이례적인 친구와 친구간의 회담』이었다고 밝혔으나 프랑스의 對중미정책에대한 자신의 불쾌감을 표명했음을 분명히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전형적인 외교용어를 사용 하여『나는 이제 미테랑대통령이 말썽이 일고있는 중미지역에대한 미국의 정책목표를 보다 잘 이해한 것으로 믿으며 이 문제에대한 우리의토의는 지극히 솔직하고 철저했다』고 말했다.

미테랑 대통령은 그들이 외교접근방식에서의 근본적인 양국간 이견에도불구하고 긍정적인 회담성과를 얻기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미테랑 대통령은『우리의 임무는 빈곤과 인간착취및폭력체제의지배에 항거하는것』이라고 말하고『우리는 민주정부이념의 신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이건 대통령은『미테랑 대통령이 이지역에서 민주정부의 발전을촉진하는데 실패할 경우 가장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것이라는 나의 우려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도로포장율 25·9%
차량통행에 큰不便 忠州市

충북忠州시내 도로중 포장도로는 25·9%인 64·4㎞에 불과해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있다.

13일 忠州市에 따르면 시내도로는 국도18·5㎞ 지방도3·9㎞ 시도248·4㎞등 276·9㎞에 이르고있으나 국도만 완전 포장됐을뿐 지방도는 28·3%인 1·1㎞ 시도는 82·7%인 205·3㎞등 206·4㎞가 비포장상태로 있는것.

美, 니카라과 非左翼지원
각계團體에 總7백40만弗상당 援助

【워싱턴12日AP=聯】미국은 산디니스타 좌익정권 지배하에있는 중미 니카라과를 민주국가로 소생시키기위해 금년에 니카라과의 기업, 노동등 각계각층의 非마르크스단체에 대해 총7백40만달러상당의 원조를 조용히 제공할것이라고 미국무성이 11일밝혔다.

국무성은 이날 성명을통해 미국이 금년에 경제지원기금으로 약5백만달러, 민간부문개방원조로 2백40만달러를 니카라과에 각기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무성 성명은 또이같은 대니카라과 민간단체원조계획을 미의회와 니카라과 정부도 알고있으며 비록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공개적으로』수행되고있다고 밝혔다.

美國은 니카라과 좌익정권에 의한 엘살바도르 반정좌익게릴라 지원과관련, 지난해 4월 정부급원조를 중단했으나 니카라과 정부의인지하에 이같은 민간단체에 대한 원조를 계속해왔다.

蘇, 中美사태 注視
니카라과에 영향파급우려

【모스크바12日AFP=聯】소련은 최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일련의 중미 소요사태를 관심있게 주시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반응의 표시에는 신중을 기하고있다고 모스크바의 외교관측통들이 12일 말했다.

이 외교관측통들은 소련의 이같은 신중한 자세가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에서의 정치적 사태발전으로 인해 니카라과가 영향을 받지않기를 희망하고있는 소련의 불안한 입장때문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中美문제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소련언론들은 최근 엘살바도르사태가 니카라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주 언급, 中美사태에 대한 소련의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관측통들은 지적했다.

메아리
銀行街의 覺書

은행가에 때아닌 激浪이 일고있다. 그 소용돌이는 두 기관장의 직을 앗았고 25개 금융기관의 아마도 몇천명에 이를 부장 지점장이상 간부들의 각서제출사태를 몰고왔다.

「대출관련 비위가 발생할경우 본인은 물론 直上책임자와 해당부서장및 점포장도 함께처벌을받겠다」는것이 각서의 내용인것같다. 이는 일종의「복무선서」라고보아 무방 할듯 하다.

깊은 생각없이 자주쓰는 각서라는말은 그뜻이 두가지인데 첫째는 나라사이의 外交文書의 하나이며 둘째는 의견·희망등을 전달하기위한 문서라는 것이다. 이번 각서는 두번째뜻의 문서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대출관련비위는 각서를 쓰건 안쓰건 문책처벌대상임은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서각서중 본인의부분은 별새것이 아니라고 볼수도있다.

하나 비위가나면 直上책임자와 점포장도 처벌받는다는 대목은 윗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아랫사람과함께 책임진다는것으로 淨化운동에서 언제나 강조되어오는 연대책임을 아랫사람의 입을통하여 밝힌점에서 異色的이다.

이경우「처벌」이 소속기관의 人事上 징계를 뜻하는것은 분명하나 그것이 刑事처벌에까지 미치느냐하는점은 刑法에 비추어 그럴때도 있고 그렇지않을때도 있을게다. 형사처벌은 이번과같은 각서의 제출有無와는 관계없이 문제의 비위가 法에 정해진 罪刑에 해당될때에만 내려질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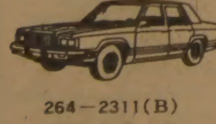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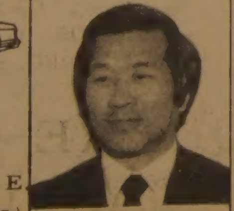
은행원은 ①예금을 되도록「많이」받아서 정한 시기에 정해진 이자와 본전을 또박또박 예금주에게 돌려주며 ②예금된 돈을 필요한 사람에게 꾸어주되, 본전과 이자를떼이지않는다고 확신하는경우에빌려준다. 대개는 사업가인 돈꾼사람이 본전과 이자를 제때에 갚자면 그 사업이 번창하여야 하니 은행업무는 여기서 당연히 기업경영의지도·지원을 제2차적사명으로 삼게된다. 따라서 은행원은 밖에서 기업의 번창을위한 지원자가 되게마련이다.

「국민전체의 봉사자」인 공무원에 비해 2차적역할이긴 하나기업번영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은행원은 이점에서 그 성격상 차이가 뚜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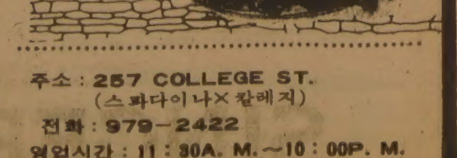
대출관련 비위가 氷山의一角인지 一魚濁水格인지는 차치하고 正直을 생명으로 삼는은행원이 기업과 기능상 通脈하는 이 미묘한 포인트에서 자칫 죄의식없이 사고가 날 법도 하다. 그러나 융자받고 뇌물을 낸다면 그만큼 늘어나는 기업지출은 기업번영과는 상극되는 일이니, 그래서 대출상 비위는 은행의본격적인 사명에 먹칠을 하는 셈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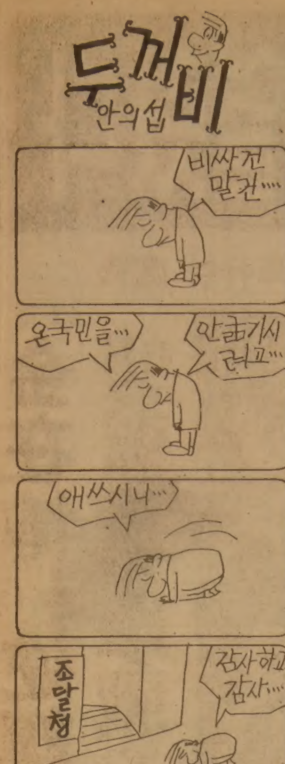
Young—Sook's Jewellery
보석상 개업특별봉사
오는3월1일부터 다운타운에 보석상을 개업합니다. 교민 여러분께 최저 가격으로 특별봉사코자 하오니 꼭 한번 들려주시거나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금·은 취급
* 품질보장
* 뉴 디자인으로 마음에 맞게 해드림.
* 옛날보석 개조 또는 교환 매매.
* 보증서 발행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Fir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Booth No. 10—No. 11
215 Yonge St.
(영×킨)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차종류에 따라 Cash Rebate(Bonus)있음
◎카나다에서 Buick Line 으로는 Top Sale dealer임
* Best After Service * Best Pr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머리털이 빠져 고민하십니까?
머리털을 보존 하십시오.
STOP HAIR LOSS NOW!
● 위험신호 :
①당신이 머리를 빗을때 빠지는 머리털을 많이 보십니까?
②머리가 가렵거나 비듬이 많으십니까?
③당신의 머리털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기름이 많으십니까?
④당신의 머리가 잘빠지거나 불균형 하게 자랍니까?
당신이 위의 말 어느곳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늦기전에 전문가를 만나보십시오.
※상담은 FREE입니다.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오후8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3시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537-3104

京 華 樓
(경 화 루)
PEKING— RESTAURANT
※전통적인 맨다린 음식
※특별 : 북경오리 음식
* 겨울 스페샬(Peking Duck & Firepot)
● 진미의 해산물 요리
● 국수, 야채전문
● 항상上海점심 스페샬

주소 : 257 COLLEGE ST.
(스파다이나× 칼레지)
전화 : 979—2422
영업시간 : 11 : 30A. M.~10 : 00P. M.
(매주 월요일은 문닫음)



鑛夫8명 坑內 갇혀

太白 한성鑛業所

막장6명은 生存확인

13일낮12시30분께 강원太白市한성광업소(소장 김구열·59)본갱입구 1백75m지점에서 운반갱도가 무너져서 종철씨(41)등 광부 8명이 갱내에 갇혔다。

이날사고는 3명의 광부가 운반갱도를 보수하다 갑자기 갱도3m가량이 내려앉아 일어났는데 보수작업중이던 광부는 무사히 갱밖으로 나왔다。

사고가나자 광업소측은 15명으로 구조반을편성、무너져내린 7톤가량의 흙더미를 파올리는한편 막장에있는 양수봉씨(43)등 광부 6명과 통화、생존은 확인했다。

그러나 한주흥씨(46) 김정학씨(36)등 광부 2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있다。【太白=聯合】

도둑아들 拘束되자 아버지 쇼크卒倒死

12일하오9시50분께 서울江東區吉洞453의23 金鍾郁씨(67·무직)집에서 金씨가『아들이 절도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듣고 졸도、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金씨는 이날 맏아들 金모군(16)이 지난9일 하오8시께 서울江東區 岩寺洞 신창아파트9동 현관앞에 세워둔 자전거1대를 훔친혐의로 경찰에 잡혀가자 이를괴로와하며 밖에나가 술을마시고귀가했다가 졸도했었다는것。

한편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金군은 이날밤 서울지검동부지청 李鍾旺검사에의해 영장이 기각되어 풀려났다。

발족될 大學교육協議會에 前後期조정 一任

문교부는 내년도 대학입시 전·후기 조정문제를 오는4월 발족하게 될 대학교육협의회에 우선 일임키로하는 한편 조정결과 입시제도 개선에 큰도움이 없다고 판단될때는직접조정할방침이다。

李奎浩문교부장관은 13일 대학의 전후기조정문제와 지원및 전형시기등 입시제도의 상당부분을 대학교육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결정하겠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또『동일대학내 전후기구분전형은 실현성이 없다』고 밝히고『그러나 분교가있는대학은 본교와 전형기일을 달리할수있는 방법은 연구해볼수있는일』이라고 말했다。

李장관은 또 학제개편에언급、현재전문가들이 현행학제의 문제점을 검토중인데이달말께 본격적인 개편안을마련、오는84년부터 실시할 학제개편시안을 확정발표할것이라고 말했다。

錦江오염막기위해 4百18億들여 시설

忠南道는 13일 錦江유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금년부터85년까지 4백18억을 투입、하수종말처리장1개소를 설치하고 도심지유해업소19개소를 이전시키기로 했다。

13일 도당국은 錦江의 오염원인이 大田市외곽으로 흐르는 甲川의 도시하수(1일 11만6천톤)와 大田공단의 산업폐수(1일 5만톤)가 흘러들고 淸州市를 끼고 흐르는 美湖川도시하수등에 있는것으로보고 금년4월과 9월에 금강주변 50개공해업소에 대해 공해방지시설가동상황과 배출시설관리상황등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大田=聯合】

淪落女고용 돈뜯어

蔚山경찰서는 12일 자기집에 윤락녀를고용、윤락행위를 시키며 소개비조로 1백50여만원을 갈취해온 權순이씨(48·여·蔚山市玉校洞156)를 윤락행위방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蔚山=聯合】

馬山 장난감注射器 갖고놀다 찔려

6歲여아 失明위기

경남馬山市校坊洞86 李창섭씨(48)의 외동딸 인숙양(6)이 지난달12일하오 인근용마상회에서 장난감주사기1개를 50원에사가지고 놀다가 튀어나온 바늘에 왼쪽눈을 찔려 馬山시내2개안과병원과 釜山백병원、서울대학부속병원등을 다니며 치료했으나 결국 실명할것같다는것。

의료진들은 수술을 받아봐야 실명여부의 최종판정이나겠다고 말하고있으나 인숙양의 아버지 李씨는 수술비 2백여만원을 마련하지못해 애태우고있다。【馬山=聯合】

결혼예물, 보석및 시계…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오팔
미도파 보석부
536-1692

「誤發彈」作家 李範宣씨 別世

◇李範宣씨

소설가 李範宣씨가 13일상오3시45분 서울東大門區踏十里洞29의8 자택에서 별세했다。향년 62세。

李씨는 56년『暗票』『일요일』등의 단편으로 문단에 데뷔한뒤 사회의 非理와 부조리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소설『誤發彈』『흰까마귀의 手記』등을 잇달아 발표、「문학 정신이 강렬한작가」라는 평을 받았다。

平南 新安출생。49년 東大국문과 졸업。「東仁文學賞」(61년)、「月灘文學賞」(70년)등을 수상했고、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을 지냈다。外國語大교수로 재직하며 창작과 이론을 가르치다가 최근 漢大 문과대학장으로 발령받았다。그는 지난2월28일 고혈압으로 쓰러져 경희의료원에 입원해있었다。장례는 15일상오10시 자택에서 가족장으로 엄수된다。장지는 龍仁공원묘지。연락처 ☎964-95

구멍뚫린 예비군武器庫

◇이렇게 잘라 범인 申군이 현장검증에서 한전 麗水지점무기고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는 장면을 재연하고있다。【麗水=聯合】

全國5일간「카빈노이로제」…"1억짜리 한탕하려했다"

시골青年의「황금過慾」

【麗水·順天=裵祺哲기자】한전麗水지점(지점장 金忠男·42)예비군 무기고 총기도난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사건발생 5일만인 13일상오 범인 申載龍군(20·무직·麗水市東山洞8)을 잡는데 성공,특수강도,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경찰은 申군으로부터 개머리판없는 카빈1정과 실탄27발、재크나이프1개、탄창 1개등을 압수하는 한편 이에앞서 12일상오9시30분께 麗水市蓮燈洞山37 야산에서 申군이 숨겨놓은 카빈4정과 실탄7백20발등을 주민신고로 찾아내 도난당했던 카빈 5정과 실탄9백발을 모두 회수했다。申군은 경찰에서 『훔친 총기로한탕해서 1억원을 벌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하려고했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銃器절취범 申載龍 범행에서 檢擧까지

검 거: 申군은 13일 상오4시25분께 順天역구내공중변소에 숨어있다가 역무원 金世鍾씨와 시민들의 신고로 붙잡혔다。

범인의 신원이 밝혀진것은 申군이 훔친 카빈4정과 실탄을 싸서蓮燈洞 야산에 묻었던 정부양곡부대가 단서였다。

경찰은 12일상오 약초를캐러갔던 주민 張在先씨(66)가 깊이20㎝의 구덩이속에서 부대를 발견했다는 신고에따라 양곡부대에서 申군의 아버지 이름을 확인한것。

경찰은 이를 근거로 申군집을 덮쳤으나 이미 申군은 가족들로부터 2천원을 받은뒤 집을 나간후였다。申군은 13일상오 서울발 麗水행 완행열차를타고 順天역에서 하차、변소에 숨어있었다。

범행경위: 申군은 지난 8일 새벽1시께 麗水市忠武洞327 한전麗水지점에 침입、숙직실에 사람이없는것을알고 절단기로 경비선과자물쇠를잘라내고 카빈5정과 실탄1상자(9백발)를 훔친후 카빈4정과 실탄7백20발을 蓮燈洞야산으로 옮겨묻었다。

申군은 범행후인 지난11일 훔친 카빈과 실탄을 현금1억원과 맞바꾸자는 내용의편지를 麗水경찰서장앞으로 발송했었다。

또 검거하루전인 12일 밤11시15분께는 順天市稠谷洞103의26 朱淇洙씨(42·順天공고 교련교사)집에 복면을 하고 들어가 안방에서 TV를 보고있던 朱씨가족4명을 개머리판 없는 카빈으로 위협、돈을 요구했다가 실패했었다。

中學2년 中退者 한때 버스案內員

범인주변: 申군은 麗水 여수하물계작업반원인 아버지의 3남3녀중 2남。L국교를 졸업한후 K중학교에 진학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2학년때 중퇴한후麗水시내버스회사인 D교통에 안내원등으로 일했고 성격은 폐쇄적이어서 평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이웃과의 접촉도 전혀없었다。

● 武器묻은 野山 구덩이옆 糧穀부대가 端緖

● 麗水署長앞으로 무기값 1억내라 협박편지

● 자기방 이불속에서 3발 試驗발사 하기도

● 順天驛 구내 화장실 숨어있다 申告로 잡혀

어제 現場검증실시 麗水무기고등 4곳

한전麗水지점 총기절취사건의 범인 申載龍군(20)에 대한 현장검증이 13일낮12시부터 1시간30분동안 한전麗水지점 무기고등 4곳의 현장에서 실시됐다。

申군은 한전麗水지점에서 총기와 실탄을 훔쳐 蓮燈洞야산에 총4정과 실탄7백발을 묻은다음 나머지 1정과 실탄을 갖고 집으로와 자기방 이불속에서 목침에 대고 3발을 시험발사했다고 자백함으로써 실탄3발의 행방이 밝혀졌다。

유공警官 3명特進 署長등은 職位해제

치안본부는 13일 범인검거에 공을세운 順天경찰서소속 徐完錫순경(25)과 張武皐순경(40)、姜双權경사(50)등 3명의 경찰관을 각각 1계급특진시켰다。

총기도난사건과 관련、무기고관리감독 책임자인 麗水경찰서장 崔容鐵총경과 忠武파출소장 朴在福경위를 직위해제하는한편 관리책임자인 金忠男 한전麗水지점장의 직위해제와 부책임자인 池長洙예비군소대장의 파면조치를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서울대학교 病院長 洪彰義씨 解任발령

정부는 13일 감사원및 문교부 감사등과관련、사표를낸것으로 알려진 홍창의 서울대학교병원장을 해임발령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10년간 10여件、大사건악몽

管理·경비巡察 재점검해야

【麗水=裵祺哲기자】전국에 흩어져있는 예비군 무기고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책임자들이 점검을 해봐야할 듯하다。이같은 필요성은 이번 한전麗水지점 사건뿐만아니라 지난10년간 전국에서줄잡아 10여건의 총기도난사건이 발생、대형의 비극을 불러일으킨 일을 기억하기때문에 하는 말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고가 지난72년부터 74년까지 계속된 李鍾大、文度錫사건으로 이들은 72년9월 경기平澤에서 카빈3정과 실탄60발을 훔쳐 2명을살해하고 2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자신들도 가족과 함께 자살하는 참극을 빚었다。이밖에도 金北사태와 寒溪里무기고 총기도난사건(71년7월)등도 관리허술에서 야기된 사고였다。

이번사건도 다행히 申군이 총기를 사용하지않았기때문에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못하게 하는방법은 안전관리를 철저히하는수밖에없다。

예비군무기고의 안전관리는 1차로 지점의 장(長)이 관리책임을、2차로 감독책임을 관할서장이 맡도록했었다。또 무기고의 등급에따라 순시횟수가 월1회에서매일한번이상씩 하도록돼있다。그러나 관리책임자들은『누가 무기고에 접근하랴』싶어 아래사람들에게 맡길뿐 신경을 쓰지않는게 사실이며 이같은 허를 찔릴경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만다。

그러나 예비군무기고에 대한 경비순시는 규정대로만실시한다면 거의완벽한것이며 결코 무기도난사건이 일어날 수없을 정도로 엄중하게돼있다。

犯人신고·武器은닉 提報등 현상금、민간인10명에 分配

경찰은 한전 麗水지점예비군 무기고 총기도난사고에 내걸었던 현상금을 범인을발견 신고한 順天역 역무원 金世鍾씨(34)와 무기은닉장소를 제보한 張在先씨(63)、池신숙씨(66·여)등 한때 경찰에신고한 민간인 10명에게 돌아갔다。

고국의 향수가 물씬어린
미도파 백화점 비디오부
연속극, 가요, 문화, 영화, 전설…
454 BLOOR ST. W.
536-1692

日本을 고발한 日本人

사할린 裁判委 미하라할머니

泰山같은 犯罪에「속죄 9년」

미하라·레이(三原令·사진·東京都千代田區内神里2丁目10의2)씨。59세로 환갑을 앞둔 일본인 할머니다。이 할머니를 한국인들은 교활하고 간사한 일본사람중 1人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바라 볼수가 없다。그녀는 그어느 일본인도、그어느 한국사람도 따라갈수 없는 일을해낸 자랑스러운 世界人이기 때문이다。

미하라씨는 지금 사할린재판실행위원회의 사무국장직을 맡고있다。『일본이 저지른 그 잔혹한 범죄를 일본인들은 모르고 있어요。일본정부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구요』

그 목소리는 잔잔하지만 바위와 같은 무게를 지녔다。그녀는 사할린의 한국동포를 위한 운동을 9년째 벌이고 있다。물론 댓가를 바라고 하는게 아니다。아직 이 운동을 일본이나 한국으로부터 별다른 반응을 못얻고 있지만 미하라씨는 꺼지지않는 촛불처럼집념에불타있다。

그녀가 사할린에 억류중인 한국인의 사정을 알게된것은 9년전。우연히 TV를보다가 가슴에저절로 뜨거움이 와닿는것을 피할수가 없었다。망향의한(恨)을 짓씹고 살고있는 한국인들의 생활상을 볼때 그들을 그렇게 만든 일본인의 한사람으로서 죄책감을 느끼지않을수없었다。

그녀는 그때부터 뜻을같이하는부인들을 모으기 시작했다。「사할린억류귀환한국인회에 협력하는 妻의 會」가 탄생하게된것이다。

그러다가 75년말 사할린 억류동포 4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귀환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이회의 이름을「사할린 재판실행위원회」로 바꾸게되었고 활동이 적극적이게 되었다。

귀환촉구서명운동과 77년1월 타임誌에 2백90만엔짜리 귀환촉구광고를 낸것은 너무나도 유명한업적。『神이여 얼마나 오래도록 우리를 버리시렵니까』란 제목으로 일본정부의 무책임성을 고발한 이광고는 전세계의 많은 사람을 울렸다。

현재 이위원회의 회원은 지원자가 자꾸늘어나 일본전역에걸쳐 1천여명。회원들은 지난해 12월과 금년2월 사할린재판 증언대에 서기위해 억류동포가족들이 일본에 갔을때는 온갖 시중을 정성스럽게 들어줬다。

한국정부로부터 돈을 받았다느니 심지어「조센징」이라는 놀림도 많이 받았다는 미하라씨는『진실은 시간이 가면 저절로 밝혀지는법』이라며 한국과 일본 양국민들의 이해와 성원을 고대하고있다。미하라씨를 바라보며 기자는 갑자기 부끄러워지는 자신을 느꼈다。그것은『사할린』에대한 무관심에 자책감을 느낀것인지 모른다。【文昌宰기자】

김명종 한약방
보약(탕약과 엑기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 745−2058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킷·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스파다이나 코너)
☎ :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각종 가죽옷 도산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 주 내에서 가장큰 가죽제품 스토어
●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 마음대로 선택할수 있음
192 SPADINA AVE.
☎ : 368−4215, 368−0114

Hunts 개업인사
Hunts Bakery
카나다의 유명 제과점인 Hunt's를 소생이 개업하였음을 지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성원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포여러분께는 생일 결혼 Cake에 대해서 10% 할인해 올리겠읍니다 일차 왕림바랍니다
김 준 호 배
Jane & Finch Shopping Mall
☎ : 635-0187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뱅쿠잇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Wilson / Eglinton / Keele / CHINA HOUSE / Bathurst / Bayview / Bloor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 : B) 535-2143 R) 658-3446
대표 이 정 석

광고 신청은
한 국 일 보 사
● 일 반 광 고 : 최 성 조
● 매매구인광고 : 박 정 욱
533−2361

블론디 딘·영 作

"이 코피는 너무 진하군" "당신이 좋아하는식 그대로예요"
"나는 이런 식으로 드는걸 좋아하지 않는다구!" 해요" "아네요, 당신은 좋아 해요"
"긴세월 살다보니 당신이 어떤 코피를 좋아하는 것쯤은 정확히 알고 있단 말예요"
"어리석은 짓 그만하고 마시기나 하세요"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82년 野球시즌이 열렸다

「韓化-韓電」「中央-冲岩高」戰 필두… 萬여명 觀戰

金在博(韓化) 逆轉 3점호머 갈채

맹렬 打擊戰끝에 韓電 침몰

◇3점 홈런을 치고 82년 시즌오픈을 장식한 3점홈런。韓國化粧品—韓國電力대전 4회초 2死후 韓化의 3번 金在博이 통렬한 3점홈런을 날리고 홈인,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있다.

27일부터 6개프로팀 첫선

고교鳳凰祭典엔 在美동포팀참가 最大규모

야구시즌이 열렸다. 13일 서울운동장 야구장 에서는 82년 시즌의무사태평을 비는 고사에이어서 1만여관중이 모인가운데 아마야구시즌오픈전이 펼쳐졌다. 82년은 야구의 해. 오는 27일에는 국내최초의 프로야구가 서울운동장에서 시즌·오픈되며 9월4일부터는 우승국 쿠바를 비롯한 세계12개국 아마추어대표팀들이 참가하는 제27회 세계야구선수권대회가 서울·잠실·仁川구장에서 개막된다. 매해 열리고있는 4대전국고교야구대회와 춘·하·추계 실업야구리그, 대학·실업의 챔피언을 가리는 백호기쟁탈대회등도 야구팬들의 관심거리.

13일의 시즌오픈게임을 장식한 韓國化粧品—韓電경기서는양팀 모두 맹렬한 타격전을 벌인끝에 한국화장품이 12-8로승리했다. 이날 韓化의 국가대표 金在博은 4회초 2死후 역전 3점호머를날려 갈채를 받았다.

또한 고등부경기서는 冲岩高가 6회말3번 蔡道秉의 3타점3루타에 힘입어 中央高를 6-2로 격파,시즌 첫게임을 장식했다.

한편15일 열리는 국제야구연맹(AINBA)기술위원회 참석차 내한한 기술위원장 오스왈도·힐씨(푸에르토리코)는 세계야구선수권대회가열릴 구장시설을 둘러본후 韓電과 韓化에 소속된 대표선수들의 기량을 칭찬했다.

27일 개막되는 프로야구에는 前실업팀의 스타들외에 美·日프로야구 2軍에서 돌아온 朴哲淳·金時哲등이 참가, 국내에서의 큰활약이 기대된다.

6개 프로팀들은 전기(3월27일~6월27일) 후기(7월7일~9월16일) 정규리그 10월 코리안·리그 (7전 4선승제)를 벌이게 된다. 구장별로는 서울35, 大邱38, 仁川13, 光州30, 大田26게임, 그외 全州5, 春川8, 淸州에서 6게임이 소화된다.

8월1일 개막되는 제12회 鳳凰大旗전국고교야구대회는 국내참가팀만 50개를 넘는 사상최대규모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在日同胞외에 在美同胞팀이 처음 참가를 희망, 뜻깊은 대회가 될것으로 보인다.

프로야구서도 정규시즌후 美國의 로스앤젤레스·다저스등 프로팀 초청경기가 계획되고있어 82년시즌은 국내야구에 획기적인 한해가 될것 같다.

국제대회 入賞者 終身연금제 실시 아마레슬링協

李협회장 밝혀

대한 아마레슬링협회 李健熙신임회장은 13일 기자회견을갖고 앞으로 각종 국제대회에서 좋은성적을 올린선수에게는 종신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33개 가맹단체가운데 처음실시되는 연금제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 매달24만원, 올림픽은 메달리스트와 세계선수권과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을경우 월12만4천원, 올림픽銅·세계선수권과 유니버시아드 銀메달 리스트와 아시안게임 金메달리스트에게는 9만원의 경기력향상연금을 지급키로했다.

또한 연금액수는 대한체육회의 지급기준과 동일수준을 유지,체육회연금이 오르면 따라서 협회 연금도 오르게 된다.

臺灣 ISF案수락 소프트볼 大會확정

【오클라호마시티12日UPI=聯合】 自由中國은 국제 소프트볼연맹(ISF)이 제시한 모든조건을 수락했으며 이에따라 제5회 세계여자소프트볼 선수권대회도 예정대로 금년여름 臺北에서 열릴것이라고 돈·포터 ISF 사무국장이 12일 밝혔다.

金允淑·柳尙希도 져

스웨덴배드민턴 單複式 모두탈락

한국 배드민턴은 82년시즌 유럽원정 첫무대인 스웨덴 오픈에서 中共의 신예들에게 석패, 지난대회 우승자인 黃善愛를 비롯한 남녀8명의선수가 단·복식에서 모두 탈락했다.

여자단식 준준결승까지 진출했던 金允淑은 12일 中共의 수롱에게 11-7, 11-7로, 柳尙希는 印度의 아미·기아에게 12-10, 11-7로 완패했다.

朴柱奉 李恩求 복식조는 남복식준준결승서 스웨덴의 퀸스트롬,칼손조에게 2-1로, 黃善愛·柳尙希조는 中共의수롱·우안친조에 2-0으로 패했다.

여자단식 4強에는 우리시, 수롱, 우장장등 中共의 2진급 신예 3명이 진출,압도적 강세를 보이고 있다.

탁구공에서 보트까지

6월22~27일 스포츠用品 서울國際박람회

스포츠話題

SPOREXKOR'82

국내30·外國유명20개社 참가신청

온갖 種目·레저용품등 수백종展示, 벌써열띤 競爭

組織委, 올림픽홍보관 마련 관람객에 靑寫眞 보여

88년서울올림픽에 대비한 스포츠용구 국제박람회가 오는6월 국내최초로 서울에서 열린다. 국민체육진흥재단과 국제전람회사(INTEREX)는 6월22일부터 27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江南區 三成洞65)에서 제1회 국제스포츠용구및 레저용품전시회(SPOREXKOR82)를 개최키로하고 요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번 스포츠박람회에는 국내재벌기업을 비롯한 30개 메이커와 세계적으로 브랜드가 널리 알려진 외국업체 20여개사가 이미 참가를 신청,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을유치한 한국의 스포츠시장을노리고있다. 국내메이커에 대한 신청은 지난12월말 마감됐으나 해외업체에 대해서는 3월말로 마감을 늦추어 참가업체가 더욱늘어날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시회는 86년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국내와 외국의 우수스포츠용품을 소개,국산용품의 질을 높이기위해 마련된 것이다. 널리 알려져있는 외국의 메이커로는 美國의 헤드,포니,나센,밴크로프트,日本의 미즈노,아식스,소니,요넥스, 벨기에의 브라우닝,이탈리아의 스파다,몬도루브터등이 참가를희망하고있다. 아디다스의 출품여부는 확실치않다.

국내기업들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日本의 라이벌회사인 아식스와 미즈노가 각각 50평방미터(약15.1평)넓이의 전시장사용을 희망하고 있는데비해 三星은 1백50평방미터(약45.4평), 鮮京은 1백20평방미터,曉星과 宇島는 각각 1백평방미터(약30.3평)를 요청,열띤 경쟁을 벌이고있다. 國際商事,大宇도 60평방미터의 독점 전시장을 계획하고있다는것.

특히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는 1백50평방미터의 올림픽홍보관을 마련,스포츠박람회기간동안 국내 관람객들에게 올림픽의 역사,88년올림픽의 청사진을 보여줄 계획이다.

전시장의 최소단위는 6평방미터 (약1.8평) 인데 전시장에는 상품의 특성을 살린 전시대가 마련된다.

전시예상품목도 육상,복싱,펜싱,축구,체조,스케이팅,테니스,탁구,수영,스키,골프등을 비롯,보트,서핑,사냥,낚시,등산,캠핑,카메라,장난감,의류,신발등 수백여종.

니센체조기구,헤드라켓,브라우닝총기등 일반적으로 인기있는 품목외에 참가업체들은 전시회에서 히트를 날릴 비장의 품목을 준비하고 있다는것.

이번 전시회를통해 국내기업들은 외국유명메이커들과의 합작투자,기술제휴등 기술개발을위한 다각적인 시도가 이루어질것으로 보인다.

기획을맡은 「국제전람」은 이미 국제기계전(ENKOR)을 치른 경험을토대로 이번 『SPOREXKOR』에도 1백여개국의 바이어들을 끌어들일수 있을것으로 자신하고있다.

한국종합전시장의 金英哲운영이사는 『이번 SPOREXKOR는 아시안게임,88올림픽을앞두고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계에 큰번영을 일으키게될것이라고 말했다. 【方錫鉉기자】

◇세계 유명스포츠용품회사들의 상표.

流星의 賊 <332>

李炳注 作 李友範 畵

風前의 燈火 ⑦

적은 좌우로 산개(散開)하여 기치를 들고 우리 군사의 후면으로 돌아 포위망을 좁혀가며 공격해 왔다. 이일은 사태가 급한 것을 알고 마수를 돌려 북쪽으로 도망쳤다. 우리 군사는 극도로 혼란하여 저마다 자기만이 살려고 서둘렀지만 탈출한 자는 거의 없었다. 종사관 이하 말을 탈수없었던자는 죄다 살해되었다.

적은 이일을 추격했다. 이일은 말을 버리고 옷을 벗고 머리를 풀어 흐트리고 알몸으로 도주했다. 이 대목을 원문 그대로 한문으로 쓰면 『棄馬脫衣服 披髮赤體而走』라고 된다. 한나라의 대장군이 이처럼 참피할 수 있을까. 혹자는 유성룡이 이일을 미워하는 나머지 이렇게 썼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혹시 그럴는지도 모른다.

전투엔 비화가 있게 마련이다. 전투자체가 비화로 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남아 있는 비화란 것도 있다. 이 전투에서 죽은, 이른바 상주의 삼종사관(三從事官)의 얘기도 그런 종류가 아닐까 한다.

윤섬은 22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옥당(玉堂)에 들어가 검상관으로서 명나라에 다녀온 준수한 관리로서 이번 교리(校理) 벼슬에 있었다. 이일이 모병할 때, 친구 한사람이 노모(老母)를 두고 출정하지 않으면 안될 사정을 안타깝게 여겨 윤섬은 그 친구를 위해 대리지원(代理志願)을 하여 이일의 종사관이 되었다. 그는 이일이 도망치자 감연히 전쟁터에 남아 왜병과 싸우다가 죽었다. 그가 죽을 때의 나이는 29세이다.

또 하나의 종사관은 박호. 18세 때 문과에 장원급제(壯元及第)한 사람으로 이때의 벼슬은 홍문관 부수찬. 이일의 종사관으로 상주에까지 따라 와, 이 전투에서 죽었다. 향년 22세.

예조좌랑(禮曹佐郎) 이경류(李慶流)는 조방장 변기(邊璣)의 종사관으로 내려왔다가 도중에서 변기의 소재를 모르게 되어 상주에서 이일과 합류, 이윽고 이 전투에서 죽었다.

이상 세 종사관은 모두 이일이 『같이 가자』는 영을 받고도 병사들과 더불어 운명을 같이 한 것이다.

이일은 문경으로 갔다가 방향을 조령(鳥嶺)으로돌렸다. 이곳에서 조방장 변기와 더불어 버티어 볼 작정을 했던 모양이다. 그러자 신립(申砬)이 도순변사(都巡邊使)로 충주에 와 있다고 듣고 그리로 달려갔다.

「징비록」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나는 임금에게 신립을 천거했다. 임금은 신립을 도순변사에 임명했다. 신립은 스스로 궁성의 문 밖에서서 무사를 초모(招募)했지만 종군하려는 자가 없었다. 이때 나는 중추부(中樞府)에서 출군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신립이 와서 뜰안에 종군을 희망하는 자들이 빽빽이 서 있는 것을 보자 안색을 변하여 격노했다. …나는 신립이 무사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 것에 성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웃으며 말했다. 누구가 하건 나라 일이 아니오. 내가 모집한 군사들을 데리고 가시오. 나는 또 모집을 하겠소. 하고 명부를 넘겨주었다. 행장을 따라갔는데 모두 불만인것 같았다. 김여물(金汝岉)도 따라나섰지만 좋은 기분은 아닌 모양이었다…』

533-2361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60>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숨바꼭질 ㊼

미순이는 순순히 따라나섰다. 도중에서 딴데로 샐 염려는 이제 안해도 될것 같았지만 여남은살 먹은 계집애를 혼자 보내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빨리빨리 서둘지않으면 내가 너의 집에서 재워달래야하는 불상사가 생기겠다』

낯선 거리에서 버스를 내리자마자 이렇게 재촉했지만 미순이는 좁고 꼬불꼬불한 골목으로 한없이 들어갔다. 골목속은 아늑하고 고만고만한 한옥이 추녀를 맞대고 늘어서있고 집집마다 작은 창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아이들이 웃는소리 우는소리도 들리고 양은그릇 부딪는 소리 수도물 따르는 소리도 들렸다. 그 여러소리중에도 목이 듣기에 뻬이겨 하는 대문여닫는 소리가 가장 좋았다.

목이는 그런 구식동네가 처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않고 반가왔다. 이거야말로 집이다. 그녀는 가슴이 찡하도록 집이라는것에 감동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집이라는 걸 그리워했지만 그 구체적인 모습은 상상이 되지않다가 처음으로 그 구체적인 모습과 만난 느낌이었다.

『너네 동네 참 좋다』

『별로야. 난 우리도 빨리 부자가 돼서 양옥집에 살고싶어』

『그럼 너네는 부자가 아니구나?』

『우린 중이래』

『중?』

『생활정도를 어디다 써낼일이 있으면 엄마는 꼭 중(中)이라고 쓰면서 뭐든지 중이 제일 좋은 거래. 그러면서도 내공부가 중인 건 안좋아하셔』

『너 참 재미있는 애로구나』

목이가 웃으면서 미순이 머리를 가볍게 쥐어박았다. 미순이가 고개를 움츠리더니 목이에게 친근하게 몸을 밀착시키며 말했다.

『언니가 우리 친언니라면 참 좋겠다』

『나도 너같은 동생이 있었으면 싶다』

『집이 가까와지니까 무서워. 언니, 되게 혼날거야』

그때 골목어귀에서 서성이고있던 젊은그림자가 왈칵 미순이에게로 달려들었다.

『미순이냐? 미순아, 미순아』

『엄마야?엄마, 엄마』

모녀가 동시에 울음섞인목소리로 외치더니 와락 부둥켜안고 울고,웃고,어루만지고, 때리고, 욕하고,뽀뽀하고 한바탕 법석을 떨었다. 목이는 한걸음 물러나 그런 법석을 구경하면서 지금까지 느껴보지못한 즐거움과 질투를 동시에 느꼈다. 슬그머니 없어져도 그만이라는 자신의 입장이 서글프기도했다.

『그럼 난 이만 가볼게』

목이가 미순이의 등을 툭 건드리며 작별을 고하고 나서야 어머니도 목이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다.

『아이 선생님이 이밤중에 웬일이세요?』

목이는 선생님이란 호칭이 매우 마음에 들었다. 영광한 원에 드나드는 엄마들은 목이를 대개 아가씨 또는 미스 오로 불렀지만 어쩌다가 어리숙하고 순박한 엄마를 만나면 선생님 소리를 들을수도 있었다. 엄마들을 하도 많이 겪어서 그녀가 어떤엄마였던가는 생각나지않았지만 호칭이 마음에 드니까 쉽게 호감이 간다.

목이가 자초지종을 설명할 새도 없이 미순이가 나섰다.

『엄마 이 언니 아니었으면 나 지금쯤 한강물에 빠져죽었을거야』로 시작해서 자기의 귀가를 극적인 생환(生還)으로 꾸미기 위해 목이를 생명의 은인으로 만들고 있었다.

MLS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금주의 새리스팅

o건물및 그로서리 스토아
주매상 : 5천3백불 주5일 영업
토론토 북방 20분 운전거리
외국인 경영 3만5천불 다운
가게와 건물포함. 가격 : 13만8천불

oTake out Food 비지네스
Shopping mall 안에 있으며
운영이 간단하며 부부운영에 적합.
년매상 : 11만불 가격 : 5만5천불.

o도넛샵
주매상 : 4천불 일요일 닫으며
운영이 간편한 도매및 소매상
가격 : 6만5천불

o이외에 투자용 건물및 아파트를 다수 있음.

Member of Toronto Real Estate Board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386-1548(R) M3B 1Z3

새로 개발된
국문, 영문겸용타자기

IBM Ball을 사용한 타자기로서 역사상 처음으로 개발된 영문 국문혼용입니다

①12", 10" Ball 자유자재로 조정
②15" (full Size)
③국문체 활자 2가지, 영문활자 12가지 (2가지는 구입시무료)
④특린 글자는 자동으로 정정할 수 있음
⑤가격 US$1350 (Can $1660) + 통관세 $180

*한인단체나 각 교회에서 꼭 피요한 필수타자기임

연락처 : 한국일보 토론토
☎533-2364 Mrs. 김 Miss. 박

◇약국개업◇

WILLER'S PHARMACY

한국인 여자약사 탄생 : 양문정

- 토론토대학 약학과 4년졸업
- Shopper's Drug Mart
- Yurek Pharmacy
- Vanguard Pharmacy 근무
- Pharmacist Manager 경험
- 건강상담환영(한국어나 영어)
- 각종 약보험 취급

※약국뒤에 두 Doctor's office가 있읍니다.

한국인 여자약사
양문정(CLARA YANG)
1148 DAVENPORT RD.
(at Ossington Ave.)
전화 : 656-3351
656-3247

City of Toronto

Program Information Officer

Mayor's Committee on Community and Race Relations
Contract position for 9 months only

The *Mayor's Committee on Community and Race Relations* is seeking an experienced researcher to work with staff and members of the Ad Hoc Sub-Committee on Equal Opportunity. This person will be required to document all current activities in the Toronto area relating to the employment of minority groups; assemble and prepare information for a public education program; and in consultation with an external liaison officer, will develop content for learning aids, a series of seminars and Mayor's luncheons for employers, unions, and other target groups.

Applicants must have a knowledge of the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issues related to the multi-racial/ethnic workplace; the present and previous requirements of the Ontario Human Rights Code; legislation affecting the employment of immigrants and the concept of Special Programs and Affirmative Action employment for minority groups. Excellent communication skills in presenting and producing written and graphic information. Sensitivity to the issue of minority group employment. A background of studies in the social or behavioural sciences, or economics.

Salary negotiable in the range: $22,800 - $26,700 for 9 months. (Statutory Benefits and Vacation Pay only)

All positions are open to women and men applicants.

To explore this opportunity, submit resume, in confidence, by April 2, 1982, to:

Personnel Services Division
Management Services Department
17th Floor, West Tower, City Hall
Toronto, Ontario M5H 2N2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한국일보 Toronto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한국일보 각 식품점에 배달하실분 구함 (화요일과 목요일)
※영문, 한글타자에 능하신 분으로 식자 배우실분 구함(남, 녀관계없음)
☎ : 533－2364

가족처럼 함께 가게일을 돌볼 여자분 구함. 침식도 제공.
☎ : 1-727-3721

점심시간에 파트타임 Kitchen Helper 구함. (오전11시～오후2시 Mon. – Fri.)
☎ : 421－6016 (오후2시이후 연락바람)

입주하셔서 3살된 아이와 가사를 돌봐주실분 구함. 신원 확실하신분.
☎ : 793－5531(부라말리지역)

입주하셔서 애기(5살, 1살, 6개월) 봐 주실분 구함. 돈·밀지역.
☎ : 429－6838(R), 499－4459(B)

출퇴근하시면서 애기 봐주실분 구함. 오후 5시 이후 연락바람. (돈·밀지역)
☎ : 749－4061

가정부 구함
어린애 돌 돌보실분 구함(침식제공)
월 : $500 브람톤(Brampton)지역
☎ : 456－0567

도너스 가게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
☎ : 284－9325, 282－3353(스카보로지역)

「여행」을 팝시다
여가를 이용해서 돈을 법시다. 파트타임 희망자로 단체, 업체, 노인그룹, 클럽등과 접촉이 있는분은좋은기회 입니다.
본사가 훈련하고 뒷받침 해줌. 영어 필요. 코미션만 지불.
☎ : 675－1960

매매및 양도

① 최신식 방갈로, 사정에의해 급히 팔고자함. 3베드룸(핀치×베더스트) 좋은 모개지, 아스킹 : $129,000
② 도너츠와 햄버거 도너츠 주매상 : $4,500 햄버거 주매상 : $2,500 비데오 머신에서만 월수입 : $10,000 요구액 : $289,000
③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 $4,500(일종의 Tuck Shop) 요구액 : $32,000
④ 점포와 3베드룸 아파트, 요구액 : $82,000
이 훈모 부동산 ☎ : 225－1204

버라이어티 스토아와 2베드룸 아파트
주매상 : $4,000 재정명세서 있음.
건강상의 이유로 매매코져 함.
☎ : 763－5161(Cliff or Joe)
Cimerman Real Estate Ltd. Realtor.

가게급매
가격 47,000불 + 스탁
☎ : 1-877-6463, 883-4550 Mr. 김

버라이어티 & 밀크 스토아 급매.
주매상 : $3,500～$4,000
렌트 : $525 (월) 비데오 머신 있음.
아스킹 : $25,000 + 스탁
관심있으신 분 연락 바람.
443 Kerr St. Oakville. ☎ : 844－6741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가격 : ($1900 -스탁, 비데오 머신도 있음.
1430 Dundas St. W. (Gladstone 코너 : 관심있는분 내방바람)

BASKIN ROBBINS
아이스크림 가게 매매
—년매상 $150,000이상(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케잌)
—가격은 면담후 결정함.
—토론토에서 약 70마일거리로 Mall안에 있음.
—사업은 보장됨.
—개인사정으로 좋은 가격에 급매코저 함.
360 George St. N. Peterborough ONT.
☎705－743－3152 Mr. 유

과일가게에서 필요한 장비 일절 팝니다.
★야채쿨러(10 ft. 2개 $2,500)
★밀크오픈쿨러(10 ft. $2,000)
★오픈 후로존(10 ft. $2,000) ★저울($800)
1503 Bayview Ave. ☎ : 485－9419(Mr. 최)

카테지(8채)공원을접한 해변가까이 있음
2베드룸(2채), 1베드룸(4채), 배츄러(2채)
아스킹 : $99,800, 다운페이먼트 : $35,000
아파트 밀집지역 건너편 광장안에 위치한 바쁜지역의 버라이어티 가게와 기프트가게($26,000)
드라이크리닝($13,500)
Doris Burda ☎ : 763－5555
R. Cholkan Co. Ltd. Realtor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낵·바, 드라이크리닝을 겸해 할수 있는 상점, 살림집 포함(베더스트×로렌스) 오전 10시～오후 8시 ☎ : 783－0134

하우스 렌트

방세놓음(월 : $170 $140 독신자 환영
Pape Subway 에서 1블럭거리
☎ : 282－0236, 466－3764

사무실·점포 렌트

사무실 렌트 원하시는 분
— 600 sq. ft (2층)
— 500 sq. ft (3층)
☎ : 921－2304 Mr. 최
830 Yonge st. (영 × 블루아)

기관및단체

- 총 영 사 관 : 598－4608
- 한 인 회 : 755－9288
- 노 년 회 : 755－8079
- 실업인협회 : 752－7771
- Y M C A : 536－1166
- 외 환 은 행 : 364－2890
- 한 일 은 행 : 865－0456
- 무역진흥공사 : 977－8784
- K A L : 862－8250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특별대매출, •월부판매 알선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서부 Finch West Mall (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킬×던다스)

간 판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판 현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 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62－5194(여정용)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크로스웨이(구 클래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 김

도서판매

범한서적주식회사 북미총판
광복20년(전25권), 한국인물사(전10권)삼국지(전6권) 한국의 가정요리(4권), 새생활백과(전8권), 가정종합병원, 대 한한사전, 토지(전6권)등
1712 Queen St. E. Tor. Ont. ☎ : 690－2216 Mr. 최규흡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매매 부동산

A. E. LEPAGE (우덕이)
☎ : 741－9170

CANADA PERMANENT (황순일)
☎ : 481－3443

이대환 부동산 ☎ : 535－1251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곽 석 웅 ☎ : (B) 752－3111, (R) 298－2546

D. F. McALLISTER R.E.LTD. 김시성
투자전문 (IC & I) ☎ : (B)497-0600 (R)298-8558

황용현 부동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 : (B) 449-8644～5, (R)286-1548

ROYAL TRUST (유복영)
☎ : 762－8255 West 지역

이훈모 부동산 ☎ : 225－1204

미 용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로 마 노 미 용 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 : 248－2957(B) 247－6875(R)

헬 렌 미 용 실 김 조 자
377 Albion Rd. 한국식품 서부지점에서 동쪽에 위치
☎ : 741－7829

킴 스 미 용 실 (코리아하우스 뒤)
☎ : 532－7094(B), 248－2437(R)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보 험

Canada Life (강 학 수) ☎868－0922

김 종 조 종합보험 ☎537－7200

Sun Life (김 신 명) ☎922－3111

임페리알 Life (김 홍 량) ☎482－0166

Sun Life (백 웅 빈) ☎497－3800

조 규 혁 종합보험 ☎233－6236

Sun Life (윤 호 영) ☎922－3111

번역및통역

번역 CHARLES YU(유죄석) 통역은
10 SUNRISE AVE. UNIT203 TOR. 월요일만
통역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합니다.

각종서류 번역및 법정통역.
정부기관 통역등 해드림.
☎281－1677 이영화(전 대학강사)

불 교

대 각 사 ☎ : 463－8998
11 Dawson Ave. Tor. Ont.

불 광 사 ☎ : 223－9152
288 Hownslow Ave.

선 련 사 ☎ : 532－3491
46 Gwynne Ave.

사 진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 : 534－1085 김 춘 탁 619 BLOOR ST. W.

무지개 칼라—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535－2143

미 도 파
454 Bloor St. W. ☎536－1692

빅·세븐
678 Bloor St. W. ☎ : 533－7966

Mister Oh for Men
☎ :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366－0960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스 포 츠

브랜든 운동구점(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취급
337 BLOOR ST. W. ☎ : 598－3732 이 건 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요일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Kipling×Albion)
☎ : 742－1205(B), 745－1632(R) Mr. 마

시설및 수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김부원
☎ : (B)245－5544(PAGING)2790, (R)255－2161

목공소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전기시설·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 : 270－3118 오현구

"가게및 집수리 일체" Mr. Kim
시설및 수리(상, 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 : 425－8585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 주중＝낮12시～저녁10시, 주말＝낮12시～밤12시
•주소 : 2432 Eglinton Av. E. Scarboro(at Kennedy)
☎ : 759－8512 최 영 호

동 궁 (홍콩식 중화요리 전문)
영업시간 월～금 오전11시30분부터～새벽 1시까지
토 오후 4시30분부터～새벽 1시까지
일 4시30분부터～ 밤10시까지
1416 VICTORIA PARK AV. (South of Eglinton) 757－6334

서울하우스
615 Bloor St. W.
☎ : 532－0602

아리랑식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 까지 : 낮12시～새벽 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 :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 · 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리아하우스
666 Bloor St. W.
☎ : 536－8666

한국관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대소연 200석 완비
OPEN 11 : 00AM～1 : 00AM
628 BLOOR ST. W. (☎ : 536－0290, 531－0277)

클링턴하우스
693 Bloor St. W.
☎ : 535－9541 김 영규

거구장 5 Bethridge Rd.
☎ : 742－1618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745－6792(Mr. 우)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R)439- 6548
이영두, 이건학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캐나다 외환은행
☎ : 364 : 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 1140
(KING × YORK)

식품점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Ont, ☎ : 248-5131

삼 복 식 품 ☎ : 743-8270
2437 Finch Ave.W. Weston
주7일영업. 배달합니다.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 field Rd.
☎ : 291-8317

제 일 식 품 (구 단풍식품)
● 7DAYS OPEN(오전10~오후10시까지)
● 배달합니다.
● 뒤에 파킹 LOT 마련.
☎ : 532-1054(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W.Tor.
• 주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 : 531-2242

신용조합

한 인 신 용 조 합
641A Bloor St.W.(2nd Fl.) Tor.Ont. M6G 1L1
☎ : 533-9387

천주교회 신용조합
941 DUNDAS ST. W. TOR. ONT. M6J 1W4
☎ : 363-0097

악기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약국

돈 밀 약 국
☎ : 429-4117
이 요 한

SUPER×DRUGS
☎ : 368-2746
조 남 오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파티드레스··웨딩드레스·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W.☎ : 535-4441 디자이너 MR.김

O'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인벤토리

— INVENTORY —
①STORE인수, 인계 INVENTORY
②STORE정기조사 INVENTORY
③STORE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 : 259-5822, 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여행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제 일 여 행 사
649 A BLOOR ST.W.(김 종조 종합보험 옆)
☎ : 535-2377
유 지원, 신 용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E. Tor.Ont. M5A 1A1
☎ : 868-9018
366-0960(B) 임 태 호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 히팅· 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CENTURY ☎ : 221-5441
(냉동기 시설및 수리) 미스타 이

운전학교

오 행 근 운 전 학 교
423-3035

아스트라 운전학교 ☎ : 769-1960(B)
743-3377
761 Jane St. Mr. Eastman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인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풀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 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정밀인쇄, 고급창정
1559A EGLINTON W.TOR.ONT. M6E 2G9
☎ : (B)789-7351, 789-7352
대표 이인용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 주보 • 명함 • 청첩장 • 책자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493-8894. 윤 종 대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W. ☎ : 535-3520 곽 호 중

윌슨인쇄소 ☎ : 638-6919 임 윤 식
904 Wilson Ave. Downs view, Ont. M3K 1E7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746-0875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 : 256-2111(B), 828-6001(R) 전기덕

FIRST AUTO SERVICE
●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 (B) 532 0200, (R) 533-2157

ALLEN AUTO SERVICE
● GENERAL AUTO SERVICE ● TUNE-UP
● BRAKE JOB ● TIRE ● TOWING SERVICE
● ENGINE OVERHAUL ● ELECTRIC PROBLEM
● AUTOMATIC TRANSMISSION ●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8247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82 송 창 섭

O. K. AUTO BODY
수리중 차대여, 모든 보험관계
138 SIXTEENTH ST.
☎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532-3946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W. ☎ : 366-2673. 366-2206

ROGERS GARAGE(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번 달 원
☎ :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자동차 매매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 : 264-2311 조 의 문

Grant Brown
1575 Weston Rd.
☎ : 247-7161 이 한 구

North York Chev. 김 병 권
7200 Yonge St. Thornhill
☎ : 881-5000

장의사

장 의 사 (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 BOOK 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철
●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 : 960-5736(B), 844-0178(R)

이 경 복 회계사무소
INCOME TAX & BOOKKEEPING ☎ : 766-5639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T. W. SUIT. 206

공인회계사 이 영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 : 278-7800 MISSISS.

Chung's Accounting 정 필 주
• Tax Return, Planning
전 C.A. Firm Accountant ☎ : 661-1819

학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희자)
☎960-0074

Y어린이 학교 (김창열)
☎536-1166

미시사가 한글학교
☎822-6438

샛별한글학교 (스카부로)
☎267-2292

쇼햄한글학교
☎663-1178

김용순 무용연구소
☎924-3905

김미영 한국민속무용연구소
☎ : 499-5079

한방원

동 양 한 약 상 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E.(Yonge St.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는 CASH이상 환영.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품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Ontario St. #517(St.Jamestown)박영숙

신비의 생약 "알로베라" 판매 정 효 기
가정 상비약으로 필수
4020 Dundas St.W. ☎ : 248-1362(R), 769-4347(B)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췌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태권도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W.(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1층)
☎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앞

치과

Dr. Mark Kochman ☎ : 233-9454
(월, 토)9 : 00A.M~6 : 00P.M. (목)9 : 00A.M~9 : 00P.M. 3101 Bloor St.W. Ste. 203

귀 사업체는 —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크레딧·카드로 광고비를 지불하셔도 됩니다.

광고 신청은
☎(416) 533~2361~4

* 한국일보 안내광고 *

'82~'83 재미교포사업의 길잡이!!

재미한인 기업년감

재미 한인 기업년감 편찬 발행 취지

한국일보 뉴욕지사에서는, 한국 및 북미에서 날로 발전하여 가는 한인 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신속한 경제 정보를 교환 제공하고, 기업체 사이에서의 상호 협조 및 유대 강화를 돕기 위하여서 **《82—83 재미 한인 기업 년감》**을 편찬 발행하기로 하였읍니다.

이 사업은, 한국일보 뉴욕지사가 주관하고, 북미 안에 있는 한국일보 전 지사들이 협조하여서, 가장 정확한 재미 한인기업 년감을 편찬할 것입니다.

이 년감을 통하여서, 현재 북미 안에서 운영 발전하고 있는 한인 기업체들의 현황, 기업 경영의 개선책 및 국제적 경제력을 쌓아 올림에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80년대의 한국 경제 발전과 한인 기업의 발전 면모를 직관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재미 한인 기업가들이 앞으로 이룩하여 가야 할 경제성장의 길을 모색함에도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기업체의 재미 지사들은 물론이고, 북미 안에서 이룩한 주식회사와 그 지사들, 그리고 개인 기업체로 운영되는 모든 기업체들이 이 편찬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서, 뜻하시는 바의 발전을 이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 상 :	북미 한인 기업체와 북미 주재 한국상사, 지사 및 개인기업체 (카나다 포함)
신청마감 :	1982년 4 월31일
접수방법 :	한 기업체가 신청서와 신청비 $ 100를 동봉하시면 됨
특 전 :	년감이 발행되면, 년감 1권을 우송하여드림 (송료 본사 부담)
제 출 처 :	THE KOREA NEWS, INC. THE KOREAN BUSINESS YEAR BOOK IN AMERICA 42-22 27 TH ST, L.I.C, N.Y. 11101 (212) 784 - 4500

목차

1. 수록 기업의 기준
전미주 기업체 주재상사, 지사, 합자회사 일체를 대상으로함.

2. 업종분류
전미주에 미정부, 주, 시로 부터 등록된 기업종류에 대체를 따랐음.

3. 수록 순서
업종별로 가나다 순서에 따랐고 한기업체가 여러 업종을 가지고 있을때는, 대표 업종을 기준으로 삼음.

4. 자료 수집 방법
직접조사 (방문, 전화문의) 와 간접조사 (우편, 협회, 단체, 관련업체) 에 의존 함.
단 : 상기 방법으로도 자료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지역 한국일보 신문 혹은 자매지에 보유된 자료로 사용함.

5. 부록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료

'82—'83년 재미 한국 기업 년감 신청서

대표자명 (영어) (한글)
생년월일 년 월 일
본 적 특별시 (도) 시 (군)

사업명
설립 년월일 년 월 일
경영 형태 개인경영 ( ) 주식회사 ( )
자본금 $
본사
종사원수 전화 ( )
주요취급은행
사업내용 (상세히)

※ CHECK나 MONEY ORDER로 TO : THE KOREAN BUSINESS YEAR BOOK IN AMERICA.

주관 : 한국일보 뉴욕지사

42-22 27th ST. L.I.C., N.Y.11101 TEL. : (212)392-5671(임) (212)784-4840(임)